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There구문의 형태변형과 원인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은 숙

2019년 8월



# There구문의 형태변형과 원인 분석

지도교수 양 용 준

오 은 속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오은속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6월

The Morphological Variants in *There*-Construction  
and the Analysis of Their Causes

Eunsuk, Oh  
(Supervised by Professor Yong-Joon,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ugust 2019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1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 문제 .....	6
1.3 구성 .....	8
II. 선행연구 .....	10
2.1 TC의 한정성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 .....	10
2.1.1 한정성 제약 .....	10
2.1.2 한정성 제약에 대한 관점 .....	12
2.1.2.1 한정사의 성질에 의한 분석 .....	12
2.1.2.2 한정명사구의 의미에 의한 분석 .....	16
2.1.2.3 맥락에 의한 분석 .....	19
2.2 TC의 수일치에 대한 선행연구 .....	22
2.2.1 TC의 수일치 규칙 .....	22
2.2.2 TC의 수일치 규칙 위반 현상 .....	24
2.2.2.1 근접성 원리에 의한 설명 .....	24
2.2.2.2 Chomsky의 설명 .....	25
2.2.2.3 Waller의 설명 .....	28
2.2.2.4 Sobin의 설명 .....	29
III. 일반구문의 형태변형과 그 요인 .....	32
3.1 정보구조와 구문 형태변형 .....	32
3.1.1 정보구조 .....	32
3.1.2 정보구조와 구문형태변형 .....	35

3.1.3 화제공유 상태와 구문 형태변형 .....	36
3.2 구문 형태변형의 요인 .....	39
3.2.1 화제공유 상태에 미치는 요인 .....	39
3.2.2 인지적 작용에 의한 정보량과 형태변형 .....	39
3.2.3 구문 형태변형의 준언어적 요소 .....	43
<b>IV. TC의 형태변형과 원인 분석 .....</b>	<b>44</b>
4.1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 .....	44
4.1.1 There의 기능 .....	45
4.1.2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기타 요소 .....	50
4.2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형태변형 .....	56
4.2.1 시각적 효과의 세 등급과 형태변형 .....	56
4.2.1.1 배경화제 문두도치 .....	56
4.2.1.2 명제 발화 .....	60
4.2.2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에 의한 형태변형 .....	64
4.2.2.1 명제 문두도치 .....	64
4.2.2.2 배경화제 문두도치 .....	66
4.3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른 수 형태변형 .....	70
4.3.1 TC의 세 가지 유형 .....	70
4.3.2 개체의 수량과 시각적 효과 .....	77
4.3.3 개체의 수량과 TC의 유형 .....	80
4.3.4 기타 제약과 시각적 효과 등급 .....	82
4.4 개체에 대한 개념과 수 형태변형 .....	84
4.4.1 의미적 수 개념 .....	84
4.4.2 집단명사의 의미적 수 .....	85
4.4.3 의미적 수 개념과 수 형태변형 .....	87
4.4.4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한 수 형태변형 .....	93
4.5 한정성 명사구 사용에 대한 설명 .....	97
4.5.1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의한 설명 .....	97

4.5.2 개체에 대한 개념에 의한 설명 .....	98
<b>V.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b>	<b>103</b>
5.1 TC의 화용적 기능과 변형 .....	103
5.2 TC의 신정보 도입 기능의 변형 .....	105
5.2.1 신정보의 기준 .....	105
5.2.2 신정보 도입기능의 쓰임 .....	107
5.2.3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신정보 도입 기능 .....	107
5.3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변형 .....	113
5.3.1 존재(위치)강조 기능 .....	113
5.3.2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정보구조 .....	116
5.3.3 기타 요소에 의한 기능변형 .....	116
5.3.3.1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 .....	116
5.3.3.2 전치사의 의미적 성질 .....	119
5.3.3.3 단어의 의미적 성질 .....	122
5.4 TC의 제안 기능 .....	127
5.4.1 제안 기능의 제약 조건 .....	127
5.4.2 시각적 효과 작용의 정보성과 제약 조건 .....	128
5.5 TC의 상기 기능 .....	130
5.5.1 TC의 상기 기능 분류 .....	130
5.5.2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상기 기능 .....	131
5.6 TC의 목록 제시 기능 .....	133
<b>VI. 결론 .....</b>	<b>136</b>
참고문헌 .....	140
Abstract .....	147





# I. 서론

## 1.1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There구문(*There Construction*: TC)의 쓰임과 그것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오고 있다. 일반구문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기본적인 문법적 규칙들이 TC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현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TC의 수일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한정성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가 쓰이는 현상이다.

첫 번째 TC의 수일치 문제이다. 규범문법에 따르면 주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구가 그것을 후치하는 동사의 수를 결정할 결정권을 지닌다. 그러므로 TC의 경우도 주어 자리에 위치한 *There*가 그것을 후행하는 동사의 수를 결정하여 *There is*의 유형과 같이 단수동사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TC의 수일치는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There*가 아닌 그것을 후행하는 명사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There are four students in the classroom.*'이라는 예문에서 본동사를 후행하는 명사구(*four students*)가 복수이므로 그것을 선행하는 본동사도 복수동사(*are*)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Chomsky는 TC의 본동사 뒤를 따르는 후치명사구를 *There*의 제휴어(*associate*)라고 하면서 그것이 TC의 수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렇게 TC의 *There*는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단지 주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쓰이는 허사(*expletive*)로 간주된다. 이렇게 일반구문에서의 수일치 규칙과 다른 현상을 보이는 TC의 수일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통사적 분석으로는 Chomsky의 대연쇄(CHAIN), 완전해석원리(Full Interpretation Condition),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Theory), LF이동(LF movement)을 이용한 후치명사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TC의 수일치에 관한 문제

는 여전히 존재한다.

TC의 수일치 문제는 다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본동사를 후행하는 명사구의 수에 상관없이 축약형 *There's*는 허용되고 *There're*는 어색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There's many people in the market.*'은 정문이 되지만, '*There're many people in the market.*'은 비문으로 간주된다. 이에 Chomsky(1986)을 비롯한 Waller(1997), Sobin(1997) 등 여러 학자들은 결국 축약형 *There's*의 쓰임을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 일축시켰다. 그리고 최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축약형 *There's* 쓰임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 관용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의 수일치 문제이다.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해서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그 명사구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수가 결정되는지,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각각의 명사구를 분리하여 복수로 간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본동사에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의 수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는 근접성의 원리이다. 근접성의 원리에 따르면 '*There are five boys and a girl in the classroom.*'에서 본동사에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five boys*)의 수가 복수이므로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도 복수형(*are*)을 취한다. 하지만 가끔 '*There is guns and violences.*'나 '*There are information and other transaction costs*'와 같이 근접성의 원리를 위반하여 첫 번째 명사구와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정문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한정성 명사구가 TC의 명제로 도입되는 현상이다. Milsark(1977)이 제시한 한정성 제약(definiteness restriction)에 따르면 TC에 한정명사구(Definite NPs), 대명사(Pronouns), 범용한정사(Universal Quantifier), 고유명사(Proper Nouns)가 TC의 명제로 도입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TC는 기본적으로 신정보 도입 기능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정성 명사구는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지니는 TC에 도입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사실상 한정성 명사구가 TC의 명제로 도입된 문장이 정문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종종 포착된다.

이에 의미·화용론적 학자들도 TC의 한정성 명사구의 사용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오고 있다. 한정사의 성질에 기반을 두어 강한 한정사, 약한 한정사로 구분하고 약한 한정사만이 TC의 명제로 허용이 된다는 Milsark(1976)의 분석이 있었으며, Barwise와 Cooper(1987)는 강한 한정사의 성질을 다시 항상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와 항상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로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도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와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는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없으며, 약한 한정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만이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Fillmore(1967)는 한정사의 의미를 특정성과 불특정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Rando와 Napoli(1978)는 맥락을 고려하여 명사구가 지니는 조용성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등 TC에서 한정성을 지닌 명사구들이 명제로 도입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도 한정성 명사구는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없는 이유 설명에 그쳤다.

최근 들어서는 TC에 이러한 한정명사구가 쓰이는 문제에 대해서 TC의 화용적 기능을 이용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TC의 기능을 신정보 도입 기능, 존재(위치)강조 기능, 상기 기능, 제안 기능, 목록 제시 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한정성 명사구들이 TC에 쓰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화용적 기능들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사실상 규범문법의 수일치 규칙에 어긋나는 TC의 축약형 There's의 쓰임과 같은 수 형태변형과 한정성 제약이 있음에도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것이 TC의 한정성 명사구의 사용과 수 형태변형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구정보-신정보, 화제-초점의 정보구조로 형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정보는 문두에 위치해 화제의 지위를 지니게 되고, 신정보는 문미에 위치해 초점이 된다. 이러한 구조의 연속으로 담화가 전개된다. Bruce(1988)는 담화전개에서 나타나는 정보량에 따른 구정보-신정보의 연속체를 파도모형(Wave Model)으로 나타내 새롭게 도입될 신정보의 정보량을 파도의 정점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에서 구정보는 선행 문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 청자에게 익숙한 정보를 가리키며, 신정보는 선행 문장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말한다.

하지만 어떤 개체에 대한 정보가 구정보가 되어 화제가 되는 것은 선행 문장에서 언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나 문자에 의해서 언급 되지 않더라도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준언어적 요소들(quasi-verbal factors)도 어떠한 사건이나 개체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청자에게 그것을 구정보로 인식되게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은 어순의 변화나 단어선택을 포함한 구문의 형태변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준언어적 요소로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그러한 요소들에 의한 정보량의 차이는 TC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C의 쓰임이 시각적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다. Bolinger(1977)는 There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지시하고자 하는 개체가 가시적이지 않을 때 There를 사용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Breivik(1981)은 실제 담화상황이나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는 There 없이 신정보가 문두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There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각적 효과 제약(visual impact constraint)’을 제안하였다. Inoue(1993)가 관찰한 어린아이들의 TC 습득 단계 관찰 자료에서도 TC의 There가 직시의 There와 관련이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가시적인 사물을 지시하면서 TC를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은 개체에 대한 가시성을 기준으로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분한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은 항상 같은 정도의 정보량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입하는 개체의 성질이나 담화가 발생하는 환경적 조건에 따라 가시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라 한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른 정보량의 차이는 화제 문두도 치나 화제생략, 명제만 언급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 유형 선택과 같은 TC의 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TC의 형태변형의 원인 분석에는 개체에 대한 개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개체에 대한 개념은 특히 근접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취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의 원인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끔 본동사에 근

접하는 명사구의 수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 are를 취하는 수 형태변형이 정문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 현상에서 TC의 수일치는 근접한 명사구의 형태적 수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TC의 화용적 기능의 분류는 한정성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성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가 사실상 자연스런 문장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화용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여기에서 선행 문장에 서의 언급여부를 기준으로 구정보와 신정보로 분류하여 TC의 신정보 도입 기능과 상기기능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담화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고려된 분석에서는 담화 당시의 가시성을 기준으로 구정보와 신정보가 구분되기 때문에 기존에 분류된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와 상기 기능의 TC에 상호적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TC의 화용적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이 고려될 경우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정성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가 정문으로 사용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TC 형태변형의 원인에 대한 설명에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 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문장은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를 형성하며, 구정보나 신정보를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 어순변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은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에 있으며,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정보는 구정보로 간주된다. 하지만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준언어적 요소들도 개체에 대한 정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TC의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하나는 개체에 대한 가시성 즉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체에 대한 개념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 대상이 되는 개체는 선행 발화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제의 지위를 지니게 되고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에 따라 문두 도치나 화제생략과 같은 구문 형태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TC 형태변형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라는 두 요소는 TC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 TC는 There + 단수동사 + 명사구를 기본구조로 취한다.
- TC는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담화 발생 당시의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도 도입될 개체에 대한 정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타 준언어적 요인으로는, 개체의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 처소 부사구의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 개체의 가시성을 좌우하는 전치사의 성질, 개체의 수량, 개체가 존재하는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장소명 자체의 의미적 특색, 개체를 수식해 주는 수식어인 형용사의 성질을 들 수 있다.

-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의한 정보량의 차이는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와 같은 TC의 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보성 분석으로 인해 TC구문의 화용적 기능 특히 신정보 도입 기능과 상기 기능의 상호적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에 의한 정보성이 고려된 화용적 기능 분류를 통해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도입되는 현상도 설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TC의 형태변형의 원인분석에는 선행 문장에서의 발화여부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 1.3 구성

이 논문은 TC의 수일치 문제와 한정성 명사구의 사용을 비롯한 TC의 형태변형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도 고려되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문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논문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문제,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제 2장에서는 통사적으로 TC의 한정성 제약과 수 형태변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한정성 제약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한정성 명사구가 TC에 쓰이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 구정보의 기준을 선행 발화의 언급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TC의 수 형태변형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학자들이 축약형 There's의 쓰임에 대해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 일축시켰다는 점과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은 통사적으로도 근접성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제 3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로만 구정보와 신정보를 고려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문 형태변형의 원인 분석에는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준언어적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TC의 형태변형에 대한 원인분석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제 4장에서는 그러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개체에 대한 정보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C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예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그러한 요소들의 작용으로 TC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형태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의 정도에 따라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될 수도 있으며,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개체에 대한 개념 또한 한정명사구가 TC에 명제로 도입되는 현



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한 수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논의 된다. 더불어 추상적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구와 물질적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구, 추상적 성질을 가진 처소 부사구에 의한 가시성의 차이, 개체의 가시성을 좌우하는 전치사의 분류, 개체의 수량에 따른 가시성의 차이, 개체가 존재하는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명 자체의 의미적 특색과 지명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의 의미적 특색과 같은 기타 요소도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보량의 차이로 TC의 수 형태변형과 한정성 명사구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 5장은 기존의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에 관한 내용이다. 담화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도 개체에 대한 정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선행 문장에서의 발화 여부를 기준으로 구정보 신정보를 구분하여 분류시킨 기존의 TC의 화용적 기능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TC의 신정보 도입 기능과 상기 기능과 같은 기존의 화용적 기능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한다. 뿐만 아니라 TC의 화용적 기능을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정성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하는 TC가 정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제 6장은 연구의 결과로서 TC의 수 형태변형과 한정성 명사구의 쓰임에 대한 원인분석에 있어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II. 선행연구

TC에서 많은 학자들에게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한정 명사구를 명제로 동반하는 TC와 TC의 본동사와 통사적으로 TC의 주어로 간주되는 명사구의 수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TC구문에서의 이 두 가지 사항은 본 연구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우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 2.1 TC의 한정성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

규범문법에서는 TC에 한정성 명사구의 사용을 제약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사론 분야에서도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통사적 분석만으로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쓰이는 것을 제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의미적 또는 화용적 측면에서 여러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고, 그로 인해 그 문제에 대한 여러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분석과 설명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크게 한정사의 성질에 의한 분석, 한정명사구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분석, 맥락을 고려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TC의 TC의 한정성 제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TC의 한정성 제약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고찰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1.1 TC의 한정성 제약

TC에서 통사적으로 허사로 간주되는 There는 그것의 제휴어(associate)<sup>1)</sup>의 자

1) Chomsky(1991)는 There구문에서 허사로 간주되는 There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완전해석

리에 한정사를 동반하는 명사구가 위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TC의 성질에 대해 Milsark(1977: 4)은 TC에 대한 한정성 제약(definiteness restriction)<sup>2)</sup>을 제시하였다. 그가 분석한 한정성 제약에 해당되는 명제의 종류에는 존재양화사를 제외한, 한정명사구, 고유명사, 대명사, 범용한정사를 동반하는 명사구가 포함된다. 그가 한정성 제약에 해당되는 명사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그러므로 아래의 <표 1>에 있는 명제들이 There의 제휴어의 자리에 위치하는 TC들은 모두 비문으로 간주된다.

<표 1> TC의 한정성 제약에 포함되는 명사구 유형

구분	TC의 한정성 제약 명사구의 유형
a	한정명사구(Definite NPs)
b	고유명사(Proper Nouns)
c	대명사(Pronouns)
d	범용한정사(Universal Quantifier)

그러하여 <표 1>의 TC의 한정성 제약에 포함되는 명사구 유형에서 아래 (1)의 예문들은 모두 비문으로 간주된다.

- (1) a. \*There was Margaret at the party.
- b. \*There were them/those waiting outside.
- c. \*There was Monica's sister available to help.

(McNally, 1997)

- (2) a. \*There was every/each participant upset with the arrangements.

---

원리를 따르기 위해 다른 의미 있는 요소로 대체 되거나 적어도 인접해(adjointed)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There구문의 수일치는 There가 아닌 그 후치명사구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There구문의 후치명사구를 There의 제휴어라 칭하였다.

2) Milsark(1977)은 한정성 제약이라는 용어를 통해 TC에서 the/ one's/ every/ both/ most와 같은 한정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를 제약하는 현상을 기술하였으며, 반면에 Safir(1982)는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를 제시하여 TC가 지니는 근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 b. \*There were both/most ambassadors housed at that hotel.
- c. \*There was everyone but Michelle taking Spanish.

(McNally, 1997)

### 2.1.2 TC의 한정성 제약에 대한 관점

TC의 한정성 제약에 대한 견해는 크게 한정사의 성질에 의한 분석, 한정명사구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분석, 맥락을 고려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 2.1.2.1 한정사의 성질에 의한 분석

Milsark(1974)은 한정사의 성질을 강한 한정사와 약한 한정사로 구분하였다. 한정사의 성질을 존재양화적 성질을 기준으로 고유명사와 한정사 the, 대명사, 범용한정사, 지시사, 소유격한정사 등은 강한 한정사로 존재양화사에 속하는 a, some, many 등은 약한 한정사로 분류했다. 그에 의하면, TC는 그 자체로 존재양화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화적 성질이 강한 한정사를 동반하는 명사구는 그것의 제휴어 자리에 놓일 수 없으며, 그러므로 TC의 제휴어 자리에 위치 할 수 있는 한정사는 그것의 성질이 약한 한정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한 한정사를 동반하는 (4)의 예문은 비문으로 간주된다.

- (3) a. There is a cow in the backyard.
- b. There are many cows in the backyard.
- c. There are fifteen cows in the backyard.

(Milsark, 1974)

- (4) a. \*There is Mary in the backyard.
- b. \*There is her in the backyard.
- c. \*There is every cow in the backyard.

(Milsark, 1974)

반면에, Barwise와 Cooper(1981)는 한정사의 성질을 세 개의 부류로 나눈다.

강한 한정사를 다시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와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로 나누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강한 성질을 가진 한정사가 아닌 것은 약한 한정사로 분류한다. 그들은 한정사의 성질을 구분하기 위해 Det N is an N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다음 (5)는 한정사의 성질을 세 개의 부류로 나누기 위해 그들이 고안한 구조이다.

- (5) a. A determiner Det is positive strong if Det N is an N is tautology.
- b. A determiner Det is negative strong if Det N is an N is a contradiction.
- c. A determiner Det is weak if it is not strong.

(Barwise & Cooper, 1981)

위 구조에 따라, 그 명사구의 의미가 항상 참인 성격을 가진 명사구는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 그 명사구의 의미가 항상 모순인 성격을 가진 명사구는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로 분류되며, 항상 참이거나 항상 모순인 강한 성질을 지니지 않는 한정사는 약한 한정사로 분류된다. 가령 한정명사구는 항상 참이거나 항상 모순이 되는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나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한 한정사만이 허용되는 TC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6a)에서 every는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로 분류가 되며, (6b)의 Neither는 항상 모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every와 neither는 모두 강한 성질을 지닌 한정사에 속하므로, every와 neither를 동반하는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는 비문이 된다.

- (6) a. *Every* book is a book. - 긍정적으로 강한 한정사: 항상 참
- b. *Neither* book is a book.- 부정적으로 강한 한정사: 항상 모순

반면, Keenan(1987)은 그러한 항진과 모순의 성질을 지니는 한정명사구가 항상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7)의 진리조건을 기준으로 존재한정사를 구분하여, TC구문의 명제로 위치할 수 있는 명사구에 동반될 수 있는 한정

사를 존재한정사로 제한하였다.

(7) A function  $f$  from properties to sets of properties is existential iff for all properties  $p, q$   $p \in f(q)$  iff  $1 \in f(q \wedge p)$  where 1 is a property shared by all individuals, the property of existing or being an individual.

(Keenan, 1987)

예를 들어, 위의 진리조건에 따르면 아래 (8)의 *some*은 존재 한정사에 속한다. 왜냐하면, (8a)의 ‘몇몇의 아이들이 cranky하다’는 것은 (8b)의 ‘몇몇의 cranky한 아이들이 존재한다’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9a)의 ‘모든 아이들이 cranky하다’가 (9b) ‘모든 cranky한 아이들이 존재한다’를 함의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10a)가 (10b)를 함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every와 most는 존재한정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some을 동반하는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는 정문으로 간주되며, every와 most를 동반하는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는 비문으로 간주된다.

- (8) a. Some children are cranky.
- b. Some cranky children exist.

(Keenan, 1987)

- (9) a. Every child is cranky.
- b. Every cranky child exists.

(Keenan, 1987)

- (10) a. Most children are cranky.
- b. Most cranky children exist.

(Keenan, 1987)

사실상 그들의 분석은 TC구문은 그 구문 자체로 개체의 존재를 전제로 형성된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존재적 전제를 지니고 있는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11)과 (12)의 예문들을 보기로 하자.

- (11) a. The King of France is bald.
- b.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 c. \*There is the King of France.

- (12) a. A King of France is bald.
- b.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 c. There is a King of France.

위에서, 한정명사구를 취한 (11a)는 (11b)을 전제하지만, 비한정명사구를 취한 (12a)는 (12b)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c)는 정문이 되지만, (11c)는 비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TC에 한정명사구가 쓰일 수 없는 이유는 한정명사구 자체가 이미 개체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Safir(1982: 71)는 한정성 효과를 제안하였다. Milsark(1977)은 단지 TC에 한정성명사구가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그친 반면, Safir는 TC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한정성 효과도 Milsark(1977)의 한정성 제약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TC에 한정명사구, 고유명사, 대명사, 범용한정사가 제휴어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설명에 의해서도 아래 (13)의 예문과 같이 한정성명사구가 쓰인 TC는 여전히 비문으로 간주된다.

- (13) a. \*There was Margaret at the party.
- b. \*There were them/those waiting outside.
- c. \*There was Monica's sister available to help.
- d. \*There was every/each participant upset with the arrangements.

- e. \*There were both/most ambassadors housed at that hotel.
- f. \*There was everyone but Michelle taking Spanish.

(McNally, 1997)

결국, 그들은 모두 한정 명사구와 비한정 명사구를 구분하며,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위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2.1.2.2 한정명사구의 의미에 의한 분석

Fillmore(1967)는 특정성(specificity)과 불특정성(non-specificity)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특정성이라는 용어는 특정적으로 인식되는 항목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a Bud는 Budweiser맥주의 종류들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지시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적이지만, a Bud in the yellow color는 지시대상이 명확하므로 특정적이다. 그는 지칭 개체의 특정성을 기반으로 TC의 명제로 위치할 수 있는 명사구의 성질을 불특정적인 것으로 제한하였다.

반면, Fodor와 Sag(1982)는 양화사가 지니는 한정명사구의 의미를 영향권의 크기로 구분하여 특정성과 불특정성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양화사가 지니는 중의성에 기반 한 분석으로, 영향권의 크기에 따라 특정한 명제를 가리키는 특정성을 지닐 수도 있고, 가리키는 명제가 정확하지 않은 불특정성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14) Every woman talked to a child in fifth grade.

(Enç, 1991)

(14)의 명사구 *a child in fifth grade*는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a child in fifth grade*가 전칭양화사 every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좁은 영향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5학년 어린이’를 가리키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어떤 5학년 학생’을 지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는 의미적 특정성을 후자는 의미적 불특정성을 갖는다.



Enç(1991)는 한정명사구가 지니는 영향권으로 항상 특정성과 불특정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을 펼쳤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 특성적 해석이 되는 예로, *certain*, *specific*, *particular*와 같은 형용사들을 동반하는 명사구를 제시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5) Each husband had forgotten a certain date- his wife's birthday.

(Enç, 1991)

(15)를 영향권의 관점으로 보면 비한정 명사구 *a certain date*는 전칭양화사 *each*보다 좁은 영향권을 갖는다. 게다가, 한정명사구가 지니는 의미적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한정명사구가 항상 특성적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 역시 불특정적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6) Smith's murderer must be insane.

(Enç, 1991)

(16)은 *Smith's murderer*는 형태상 한정명사구를 취하고 있으므로 특성적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의미의 중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Smith's murderer*는 특정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행위를 한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nç(1991)는 특성적 명사구가 지니는 전제에 관점을 돌린다. 특성적 명사구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개체의 존재가 전제된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성적 명사구는 존재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예이다.

(17) There are the following counter examples to their theory.

(Enç, 1991)

(18) \*There are the above counter examples to their theory.

(Enç, 1991)

(17)의 *the following counter examples*에서 수식어 *following*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 아직 어떤 개체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불특정적 해석이 되어 존재문에 허용된다. 반면에, (18)의 *the above counter examples*에서 *counter examples*를 수식해 주는 수식어 *above*는 그 대상이 이미 언급됐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18)의 명제인 *the above counter examples*는 특정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존재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특정성과 불특정성의 개념을 적용시켜 한정성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아래의 (19)와 (20)의 예문들이 정문이고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하였다.

- (19) a. There are some cows in the backyard.  
 b. There are two cows in the backyard.  
 c. There aren't any cows the backyard.

(Enç, 1991)

- (20) a. \*There are some of the cows in the backyard.  
 b. \*There are two of the cows in the backyard.  
 c. \*There aren't any of the cows in the backyard.

(Enç, 1991)

(19)에서 제휴어 자리에는 *some cows*, *two cows*, *any cows*가 위치해 있고 (20)은 *some of the cows*, *two of the cows*, *any of the cows*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전자는 정문이고 후자는 비문이다. (20)의 명사구에 있는 *the cows*는 *cows*라는 개체가 뒤뜰에 있다는 전제적 의미가 이미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렇게 전제가 된 것들 중의 일부를 지시하는 표현들도 특정적 해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성 효과에 의하면 (20)은 비문이다. 결국, 한정성 명사구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도 모두 한정 명사구와 비한정 명사구를 구분하고,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위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설명에 그쳤다.

하지만 McNally(1997: 10-12)는 한정사를 포함한 명사구가 명제로 위치하는

TC의 예를 제시하여, 규범문법에서 규정하는 한정성 명사구의 제약을 기준으로 TC의 명제로 도입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 (21) a. There was this one dog that kept chasing the cars on our street.
- b. There are two of us on the selection committee.
- c. There was the smell of liquor on their breath.
- d. There was some woman's jacket left behind.
- e. There were the usual crowd at the bar.
- f. There were every flavor of ice cream for sale.

(McNally, 1997)

### 2.1.2.3 맥락에 의한 분석

Rando와 Napoli(1978)는 TC의 제휴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구에 대해 그것의 조응관계(anaphoric relation)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그 개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친밀성의 척도로 조응성과 비조응성을 구분하여, TC의 제휴어 자리에는 비조응성(nonanaphoric)의 대명사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Ward와 Birner(1995)는 아래의 대화를 통해 조응관계를 기반으로 TC의 제휴어 자리에 비조응성의 명사구만이 허용된다는 Rando와 Napoli(1978)의 주장을 반박하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22) A: Don't forget that Kim will be bringing a salad.

      B: Oh right—there is *that*.

(Ward & Birner, 1995)

(22B)의 대답에서 사용된 *that*은 A의 대화에서 언급된 *a salad*를 가리키므로 조응적 표현이다. 하지만 정문으로 간주된다. 이에 Abbott(1993)는 TC에 나타나는 명사구를 형태적이나 기능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맥락상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22)와 같은 존재구문을 맥락화된 존재구문(contextualized existential)이라 칭하였다. 계속해서 Ward와 Birner(1998: 116)가 제시한 예문들

을 좀 더 보기로 하자.

(23) \*There's John's book on bird-watching. It is...

(Ward & Birner, 1998)

(24) A: What could I give my sister for her birthday?

B: There's John's book on bird-watching.

(Ward & Birner, 1998)

한정성 제약에 따르면 (23)의 예문은 비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문장의 맥락 속에 놓인 (24B)는 정문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TC의 한정성 명사구의 쓰임에 대한 분석은 문장의 맥락을 고려해야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한정성 제약은 단지 형태론적 관점에서 나온 결과이며 그러므로 TC에 대한 접근은 맥락을 고려한 분석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TC의 한정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검토에서 통사적으로 TC에서 한정명사구가 쓰이는 것을 제약하는 세 가지 관점, 즉 한정사의 성질에 의한 분석, 한정명사구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분석, 맥락을 고려한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결국 TC에는 한정명사구가 올 수 없다는 기본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이유 설명에 그치고 있다. 맥락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선행 문장에서의 언급 여부를 기반으로 조용성 비조용성으로 구분하고 의미적 한정성과 비한정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담화전개에 있어서 한 문장에 한정명사구가 쓰였다는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나 맥락상 전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에 있을 때 발생한다. 한정명사구의 쓰임은 담화 전개에서 이미 어떤 개체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구정보(old information)로 인식이 되거나, 또는 음성적 발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 그 개체에 대한 정보가 청자에게 구정보화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에는 개체를 구정보로 인식시킬 수 있는 준어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음성 또는 문자의 형태로 발화되거나 언

급되지 않더라도 어떤 개체에 대해 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청자와 그 개체에 대해 개념적 공유가 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 2.2 TC의 수일치에 대한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영어에서의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는 규범문법에 따른 문법적 일치(grammatical agreement)/형식적 일치(formal agreement)<sup>3)</sup>를 따르거나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해서는 근접성 원리(proximity principle)<sup>4)</sup>에 의한 수일치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TC에서는 규범문법의 구조적 일치로도 근접성의 원리에 의한 수일치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 2.2.1 TC의 수일치 규칙

규범문법 규칙에 따르면 한 문장의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것을 선행하는 주어이다. 다시 말해, 동사를 선행하는 주어는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취급되며, 그것이 복수이면 그것을 뒤따르는 동사도 복수취급 된다.

- (25) a. A man is/ \*are in the street.  
b. Two women \*is/ are in the street.

(25a)에서 주어 자리에 위치한 *a man*이 단수이므로 단수동사인 *is*를 취한 문장은 정문이 되며 복수동사 *are*를 취한 문장은 비문이 된다. 반면, (25b)의 주어 자리에는 복수명사 *two women*이 위치해 있으므로 단수동사 *is*를 동사로 취하면 비문이 되며, 복수동사 *are*를 취한 문장은 정문이 된다.

한 문장의 주어는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요소라는 사실은 의문문형식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 3) 문법적 일치/형식적 일치는 문법적 형태에 기인하는 수일치로서 단순히 주어의 수에 따라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Quirk, Greenbaum, Leech와 Svartvik(1972, 1985) 및 Quirk과 Greenbaum(1973)은 구조적일치라 칭하였고, Zandvoort(1980)은 형식적 일치라 표현하였다.  
4) 근접성 원리는 Quirk et al.(1985)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구조적일치로 해결되지 않는 수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하는 논리로 문장의 본동사는 그것과 근접한 명사구의 수에 수일치시킨다는 이론이다.

- (26) a. Is/\*Are the student a girl?  
 b. Are the students girls?

(26a)에서 주어 *the student*가 단수이므로 주어의 수 결정에 의해 *is*를 취한 문장이 정문이 되며, (26b)에서는 주어 *the students*가 복수이므로 복수동사 *are*를 취하고 있다.

TC의 수일치는 일반적 주어 자리에 위치한 *There*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There*의 제휴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구가 동사의 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TC의 제휴어의 수가 단수이면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도 단수동사를 취하고 복수이면 복수 동사를 취한다.

- (27) a. There is/\*are a man in the room.  
 b. There \*is/are two women in the room.

(27)에서 제휴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구 *a man*이 단수이므로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의 수도 단수화 되어 *is*를 취해야 정문이 되며, (27b)의 제휴어 자리에는 복수명사 *two women*이 위치해 있으므로 동사도 마찬가지로 복수화 되어 *are*를 취해야 정문이 된다. (27)은 TC에서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것을 후행하는 명사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TC에서 동사를 후행하는 제휴어가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현상은 일반문의 수일치 규칙에 적용되는 문법적 규칙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통사적으로 TC에서 주어 자리에 위치한 *There*는 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아무 의미도 없이 단지 주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쓰여진 허사로 간주되어, 실제적인 주어는 동사 뒤에 위치한 명사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Chomsky(1981, 1986)가 제안한 모든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sup>5)</sup>에서 비롯된다.

5) Chomsky(1981, 1996)는 모든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를 제안하였으며, 그가 고안한 생성문법이론의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There*구문의 허사 *There*는 의미가 없는 요소로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필요

## 2.2.2 TC의 수일치 규칙 위반 현상

### 2.2.2.1 근접성 원리에 의한 설명

하지만, 이러한 문법적 규칙에 따른 수일치 규칙의 예외적 현상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제휴어로 취하는 TC에서 나타난다.

- (28) a. A man and two women \*is/are in the street.  
 b. Two women and a man \*is/are in the street.  
 c. There \*is/are two women and a man in the room.  
 d. There is/\*are a man and two women in th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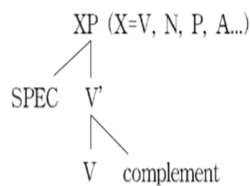
(28)의 예문은 일반문과 TC의 수일치 차이를 나타낸다. (28a)와 (28b)는 일반문으로 주어 자리에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문법적 규칙에 따라 복수 취급 되므로 그것을 후행하는 동사도 복수화 시켜 수일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TC의 (28c)와 (28d)는 통사적으로 주어로 간주되는 그것의 제휴어 자리에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가 오더라도 모든 경우에 동사가 복수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Quirk et al.(1985)은 근접성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근접성의 원리에서 본동사는 바로 옆에 위치한 명사구의 수와 수일치를 보인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28c)에서 TC에서 통사적으로 주어 자리에 위치한 등위접속사로

---

하지 않은 자리에 단지 확대 투사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삽입되는 것이라 하였다. 생성문법이론의 구구조 규칙은 문장을 형성하는 문장형성 규칙으로 핵(head)인 V를 중심으로 핵의 내항에는 보충어(complement)가 자리하고 핵의 외항에는 지정어(spec)가 자리하여 아래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계층구조를 문장의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기본구조로 보았다.

-구 구조 규칙-





연결된 명사구에서 본동사와 가장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 *two women*이 복수이므로 본동사도 복수인 *are*를 선택해야 정문이 되며, 본동사와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is*는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근접성의 원리에 따라 (28d)에서도 *is* 선택은 정문이 되고 *are* 선택은 비문이 된다.

그러나, 규범문법에 따른 수일치 규칙이나 근접성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 TC의 축약형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 (29) a. There's a man/ men in the room.
- b. There's two women and a man/ a man and two women in the room.
- c. \*There're a man/ men in the room.
- d. \*There're two man and a man/ a man and two women in the room.

(29a)와 (29b)에서는 동사 바로 뒤에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의 수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모두 축약형 *There's*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근접성의 원리나 규범문법의 수일치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게다가 (29c)와 (29d)는 TC의 체휴어 자리에 명사구의 수나 동사와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의 수에 상관없이 복수취급 된 축약형 *There're*의 사용은 비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TC의 축약형은 *There're*는 허용되지 않으며, *There's*의 사용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근접성의 원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TC의 실제적인 주어로 간주되는 체휴어의 명사구가 주격을 가지고 있고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는 TC에 대한 통사적 규칙에도 위배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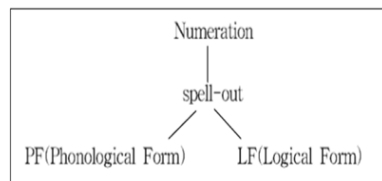
#### 2.2.2.2 Chomsky의 설명

TC의 수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Chomsky가 적용한 이론들은 크게 후치명사구(the postverbal NP)의 격 할당(case assignment)을 위한 대연쇄이론, 완전 해석원리, 최소주의이론, LF이동에 따른 후치명사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Chomsky의 대연쇄<sup>6)</sup>이론에 의한 *There*와 명사구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쇄(chain)

조건에서의 관계와 다르다. 일반적인 연쇄조건에 의하면 There의 상승에 의해서 그것의 제휴어인 명사구와 수일치를 이룬다. 하지만 대연쇄 이론에서는 There와 NP는 자연발생적(base-generated) 관계를 형성한다. 대연쇄 이론에 의하면 후치 명사구와 There는 격 할당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 후치명사구는 격을 받아야 하지만 그 명사구 앞에 있는 동사가 격을 할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격 여과(Case Filter)를 피하기 위해서 그 후치명사구는 격 전송(Case transmission)를 통해 There로부터 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Chomsky(1986)는 그 후치명사구는 LF<sup>8)</sup>에서 모든 요소들(elements)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완전해석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LF에서 상승(raise)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허사로 간주되는 There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

- 
- 6) Chomsky의 대연쇄(CHAIN)이론에 의하면 there와 본동사 뒤에 위치한 NP는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면서 이동(movement)에 의해서 형성된 (*there*, NP)와 구분하기 위해 대문자로 표시하였다.
  - 7) Belletti(1988)는 동사를 포함한 be동사를 포함한 비태격 동사(unaccusative verbs)가 부분격을 할당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근간으로 Lasnik(1992, 1995년)은 TC구문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 8) Chomsky (1995)가 고안한 논리 형태부(Logical Form: LF)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언어능력은 소리를 조음하고 인지하는 감각운동체계인 Phonological Form(PF)와 청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의미를 구성하고 인지한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고체계인 Logical Form(LF)에 전달되고 해석되어 수행된다. 이 원리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 (1) a. There is a boy in the class.
- b. [<sub>TP</sub> There a boy<sub>t</sub> [<sub>T'</sub> is t<sub>i</sub> in the class]]
- c. [<sub>TP</sub> A boy<sub>t</sub> is [<sub>T'</sub> t<sub>i</sub> in the class]]

그러므로 (1a)의 문장에서 DP a boy는 (1b)에서와 같이 외현적 이동(overt movement)은 발생하지 않지만, 문자화(spell-out)되기 전에 이미 내현적 이동(covert movement)이 발생해 허사 there와 병합될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LF에서 (1c)와 같은 통사구조를 형성한다.

문에 의미 있는 다른 요소로 대체(replaced) 되거나 적어도 인접해야하며, 그러므로 TC의 수일치는 There가 아닌 후치명사구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Chomsky(1991)는 그 후치명사구를 There의 제휴어라 하였다.

Chomsky(1993, 1995)의 최소주의이론<sup>9)</sup>에서는 더 나아가 그 후치명사구는 I(nfl)의  $\emptyset$ -features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현적으로(covertly) 상승(raise)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there는 [+D]자질 만을 가지고 있어 I(nfl)의  $\emptyset$ -features는 점검할 수 없다. 그러므로 I(nfl)가 그 후치명사구의  $\emptyset$ -features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난 후의 수 자질이 그 전의 수 자질을 점검 한다.

하지만 Chomsky의 최소주의에 의한 이러한 설명도 축약형 There's의 쓰임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다. 결국 Chomsky(1995)는 There's의 분포는 아주 제한적이며 부정문(negative sentence)이나 의문문(interrogative sentence)에서 축약형 There's의 쓰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하면서, 축약형 There's의 쓰임을 일종의 관용(idiomatc)표현으로 일축시켰다. 그리고 사실상 비축약형 There is는 허용이 되지만 복수형인 There are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30) a. There's a man and a woman in the street.  
 b. There is a man and a woman in the street.

(Waller, 1997)

- (31) a. A man and a woman \*is/are here.  
 b. \*?There are a school and a hospital in Roxbury.  
 c. A man and a woman \*is/are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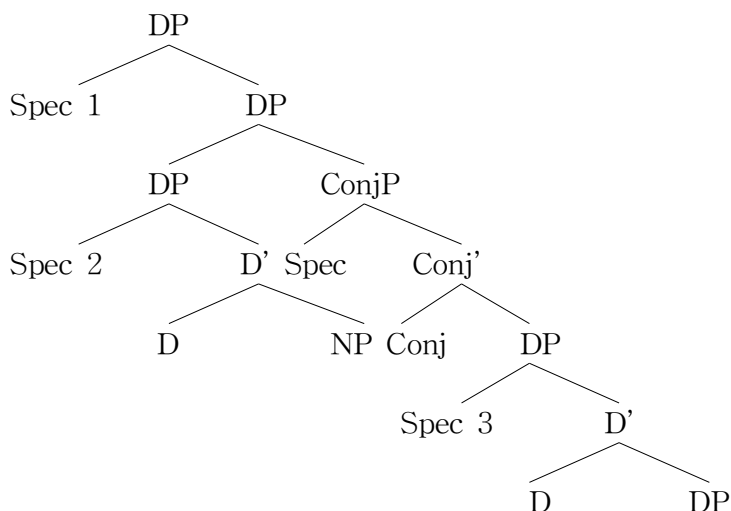
(Milsark, 1974)

9) Chomsky의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Theory): 도출적 경제성(Derivational Economy) 원리를 가정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을 선택하며, 가장 경제적인 운용으로 인간언어의 연산 체계가 설계되어 있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어떤 원리 혹은 규칙의 적용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운용의 값이 더 많이 들수록 최대한 지연된다. 여기에서 병합 우선(Merge over Move) 원칙을 도입하여, 허사 There의 설명을 돕고 있다.

최소주의에 의한 내현적 이동에 의하면, 수일치는 There가 아닌 그것의 제휴어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TC구문과 There-less 구문은 수일치 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논리를 근간으로 (30b)를 (31b)의 경우 같은 수일치 결과가 나와야 하며, 만약 LF에서 그 제휴어가 이동하고 수일치를 결정한다면 (30b)와 (31a)는 각각 완전한 정문이거나 비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TC의 수일치에 관한 Chomsky의 분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옳다면 적어도 왜 긍정문에서는 There's가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 2.2.2.3 Waller의 설명

Waller(1997)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가 제휴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TC 구조 분석을 통해 TC의 수일치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그가 고안한 구조이다.



<그림 1> The structure of conjoined NP (Waller 1997: 21)

이 구조에서 그는 먼저 Spec, DP자리를 There 삽입자리로 지정한다. 그러므로 위 구조에서 DP의 Spec 자리는 Spec 1, Spec 2, Spec 3이므로 there 삽입이 가능한 곳은 세 자리이다. 하지만 그는 Spec 3를 there가 추출 되는 지점 (there-extraction island)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Spec 3는 There 삽입이 가능한 곳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There 삽입이 가능한 곳을 Spec 1과 Spec 2 두 자

리로 지정 한다. 하지만 Spec 1과 Spec 2는 수 결정에 있어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Spec 1은 삼투(percolation)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항상 복수(plural)가 되며, 그래서 만약 there가 Spec 1에 위치하게 되면 복수취급 된다. 반면에 Spec 2의 수는 그것을 지배(dominating)하는 DP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There의 수일치는 두 자리 중 그것이 삽입되는 위치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이 논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Spec, DP]의 자리를 There 삽입 지정 자리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There 외의 다른 요소가 삽입되면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There 외의 다른 요소들의 삽입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 (32) a. \*There is Daniel's pencil on the desk.  
 b. \*[is [<sub>DP</sub> there Daniel [<sub>D</sub>'s [pencil]]] on the desk].  
 c. \*There is the lady in the hall.  
 d. [is [<sub>DP</sub> there<sub>D</sub>' the [lady]]] in the hall].

위 문장들에서 (32a)가 비문인 이유는 그것을 분석한 (32b)에서 보듯이, [Spec, DP]자리에 다른 요소 Daniel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2c)인 경우, (32d)에서 분석된 것처럼 [Spec, DP]자리에 There 외의 다른 요소가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는 문제가 되는 축약형 There's의 수일치 문제는 무시되어 결국 a frozen form으로 간주되었다.

#### 2.2.2.4 Sobin의 설명

반면에, Sobin(1997)은 A prestige English rule을 제시하면서 복수일치 점검자의 역을 지닌 문법 외적인 장치(a grammar-external device)인 바이러스(virus)가 There바로 뒤에 등장하여 복수를 점검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한 규칙을 There are규칙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A Prestige English Rule에서 그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근원지를 찾을 수 없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A prestige English rule이다.

(33) A Prestige English Rule

<The “there are...” Rule>

If: there[Agrs +pl]...be[NP+pl]..

1            2            3    4

then: 2에서 the plural feature 점검

(Sobin, 1997)

Sobin이 제시한 위 규칙은 그 바이러스를 복수자질 점검자로 보고 있으므로 TC은 단수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TC구문에서 단수취급 된 There’s나 There is의 사용은 아주 자연스러운 (perfectly natural) 현상으로 간주되면서 사람들은 There’s의 사용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의 유형을 NP and NP, NP and NPs, NPs and NP, NPs and NPs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There’s, There is, There are에 대한 수용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 최적성(relative optimality)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그 세 유형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을 0-5 등급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이다.

<표 2> Relative Acceptability of the Three Forms(Sobin:1997)

Conjoined Associate	Order of Acceptability (0-5)
NP and NP	there’s > there is > there are (4.36)      (3.58)      (0.81)
NP and NPs	there’s > there is > there are (3.67)      (2.86)      (0.61)
NPs and NP	there are > there’s > there is (3.81)      (2.78)      (1.67)
NPs and NPs	there are > there’s > there is (4.00)      (2.81)      (1.69)
0: most unnatural, 5: most natural, NP: singular NP, NPs: plural NP	

하지만 그의 설명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해 보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첫 번째 명사구가 단수인 NP and NP와 NP and NPs인 경우는 There's> There is> There are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첫 번째 명사구가 복수인 NPs and NP와 NPs and NPs인 경우는 There are> There's> There is>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근접성의 원리에 의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본 동사와 근접한 첫 명사구가 복수인 NPs and NP와 NPs and NPs인 경우에도 단수취급된 There's와 There is 유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There is는 그가 설정한 0-5등급에서 각각 1.67과 1.69등급으로 부자연스러운(unnatural) 사용에 가깝지만, There's의 쓰임은 각각 2.78과 2.81의 수용성 등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연스러운(natural)등급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런 축약형 There's가 동사와 근접한 첫 명사구의 수가 복수인 NPs and NP와 NPs and NPs에서 쓰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 Ⅲ. 일반구문의 형태변형과 그 요인

제 3장에서는 TC의 형태변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기 전에, 우선 일반 구문에서의 형태변형과 그러한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 3.1 정보구조와 구문 형태변형

일반적으로 정보구조는 구정보-신정보의 배열로 이루어지며, 구정보와 신정보의 정보성은 과거나 현재의 담화에서의 언급여부를 기준으로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은 구정보, 언급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신정보로 간주된다. 하지만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적 요소도 어떤 개체에 대해 문자화되거나 음성적으로 발화된 적이 없더라도 그것의 정보성에 영향을 미치며, 때문에 구문 형태변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먼저 정보성에 의한 일반구문에서의 구문 형태변형을 살펴보자.

##### 3.1.1 정보구조

문장의 구조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통사적인 규칙이나 의미론적 분석만이 아니다. 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 즉 신정보(New-information)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문장과 문장의 연속으로 전개되는 담화는 선행 문장을 통해 친숙하게 된 정보 즉 구정보(given-information)에 또 다른 하나의 신정보가 더해지는 형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즉 담화의 전개는 구정보-신정보 배열순서의 정보구조를 취하는 문장들의 연속으로 이어지며, 선행 문장에서의 신정보가 후행 문장의 구정보로 인식되어 화제가 되고 거기에 또 하



나의 신정보가 추가되어 초점이 되는 현상의 순환적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정보-신정보 정보구조에 기반을 둔 분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적 차이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3> 정보구조에 의한 문장구성

정보구조에 의한 문장구성	
구정보(given-information)	신정보(new-information)
화제(topic)	평언(comment)
주제(theme)	제술(rheme)
주어부분(subject)	술어부분(predicate)
담화-구정보 <sup>10)</sup> (discourse-old information)	담화-신정보 (discourse-new information)
청자-구정보(hearer-old information)	청자-신정보(hearer-new information)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문장의 정보구조에 있어 신정보와 구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두 선행 문장에서의 언급 여부에 있었다. 과거나 현재의 담화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 익숙한 정보는 구정보로 분류하고 언급 된 적이 없었던 정보는 신정보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구정보-신정보의 연속체를 설명하기 위해 Finegan(2004)가 제시한 예문이다.

(34) A: Remember that guy I said was pestering me?

B: Ye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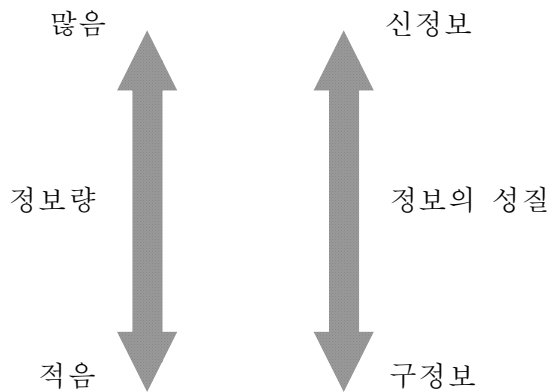
A: Well, he fell off his bike in front of the whole class today.

(Finegan, 2004)

(34)에서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that guy I said was pestering me*는 신정보로 도입이 되었고, A의 두 번째 발화에서는 이미 구정보가 된 상태이므로 화제

10) Prince(1992)는 단지 구정보와 신정보로 정보구조를 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담화와 청자의 입장에서 구정보와 신정보 개념을 반영하여 담화-구정보, 담화-신정보, 청자-구정보, 청자-신정보 용어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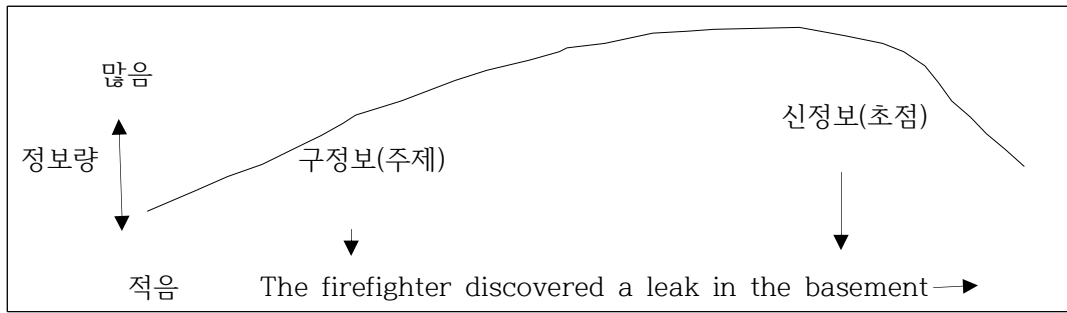
가 되어 대명사 he로 받아 문두에 위치한다. 그리고 *fell off his bike in front of the whole class today*를 신정보로 도입하여 초점화 시키고 있다. 또한 선행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도입된 신정보는 후행 문장에서는 구정보가 되기 때문에 정보량이 최소화 되어 대명사 he로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추가되는 신정보는 긴 문장을 형성해 최대의 정보량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내는 정보량도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량과 구정보와 신정보의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정보량과 구정보·신정보의 관계

위에서 언급된 정보량은 새롭게 도입될 정보량을 가리키며, <그림 2>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신정보의 성질을 지니게 되고, 정보량이 적을수록 구정보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ruce(1988) 또한 정보량과 구정보, 신정보의 관계를 파도모형(Wave Model)을 통해 나타냈다. 그는 정보량에 따른 구정보 신정보를 배치하고 파도의 정점을 정보성의 정점으로 보았다. 아래의 <그림 3>은 Bruce의 정점파도모형이다.



<그림 3> Bruce(1988: 45)의 정점파도모형(Wave Model)

### 3.1.2 정보구조와 구문 형태변형

구정보와 신정보의 정보량은 어순의 변화 등의 구문 형태변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통 문두이동, 좌향전위, 우향전위, 수동화 등의 어순변형을 통해 구정보 즉 화제를 두드러지게도 하고, 도치, 외치, TC를 통해 신정보 즉 초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표 4> 어순변형과 정보구조

어순변형	내 용
문두이동	구정보가 주제로 문두로 이동
좌향전위	선행발화의 신정보를 대명사로 받아 구정보화 시켜 문미에서 재 언급. 선행문장과의 대조적 의미전달 기능
우향전위	구정보인 주제를 문두에 위치시켜 대명사로 표현하고 문미에 그에 상응하는 명사구를 재 언급
수 동 화	문두에 구정보를 위치시키고 by 이하에 신정보 도입
도 치	후치요소(postposed constituent)를 담화 신정보로 도입
외 치	내포된 절(embedded subject clause)은 외치 된다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의 순환적 반복이나 정보구조에 의한 어순변형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정보구조 분석은 선행 문장에서의 발화 여부를 기준으로 정보성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정보로 분류시키는 기준에는 선행 문장이나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선행 언급이 없더라도 개체를 구정보

로 인식되게 하는 기타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준언어적 요소나 개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개념적 공유 사항들이 이에 해당된다.

### 3.1.3 화제공유 상태와 구문 형태변형

화제란 주어진 정보 또는 주제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문제, 이야기 재료 또는 이야기의 제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화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발화가 있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 거리가 발화될지에 대해 청자가 이미 짐작이 가능한 상태이다. 즉 어떠한 정보에 대해 청자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화제공유 상태라 일컫는다.

<표 5> 화제와 화제공유 상태

구 분	의 미
화 제	주어진 정보 또는 주제라고도 칭해지기도 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문제, 이야기 재료 또는 이야기의 제목을 가리키는 말.
화제공유 상태	화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발화가 있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 거리가 발화될지에 대해 청자가 이미 짐작이 가능한 상태, 즉 어떠한 정보에 대해 청자도 공유한 상태.

화제공유 상태는 여러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단어의 생략이나 말 줄임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속담이나 비유어의 사용, 비어, 속어의 사용, 감탄사의 사용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생략이나 수의 불일치, 추가와 같은 문법적 변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기본 틀에서 벗어나거나 구문의 형태가 변형된 모든 현상을 구문 형태변형이라 한다.

<표 6> 구문 형태변형의 구분

구분	의미	발생유형
구문 형태변형	문법적 기본 틀에서 벗어나거나 구문의 형태가 변형된 모든 현상	대용형(pro-forms), 생략(ellipsis) 등

화제공유 상태로 인한 구문 형태변형의 예로, 대용형과 생략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어에서는 선행 발화에서 언급되었던 단어나 구를 그대로 복사하여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것의 대용형을 이용한다.

- (35) a. My parents liv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my husband's people live *there* too.  
 b. I raised the proposal *in the early months of 1988*, but no one was *then* particularly interested.  
 c. She hoped they would paly a Mozart quartet and they will *do so*.

(Quirk, 2016)

(35a)에서는 장소부사구(the adverbial of place)인 *in the north of the country*의 반복(repetition)을 피하기 위해 그것의 대용형 *there*가 이용되고, (35b)에서는 대용형 *then*을 이용해 시간부사구(the time adverbial)인 *in the early months of 1988*의 반복적 언급을 피하며, (35c)에서는 *do so*를 이용해 술어(predicate)의 반복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담화 상 선행 문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청자도 그 대용형이 품고 있는 의미적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적 조건을 지닌다. 그러므로 대용형의 사용도 청자와의 화제공유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서 비롯된 구문 형태변형의 하나이다.

생략도 개체나 사건에 대한 개념이 청자와 공유되었다는 화자의 판단에서 발생하는 구문 형태변형의 한 예이다. 다음의 예문들은 동사나 부사구의 생략을 통해 반복을 회피하고 있다.

- (36) a. She hoped they would play a Mozart quartet and they *will (do so)*.
- b. My parents liv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my husband's people (*live there*) too.
- c. Her daughter is studying physics and her son (*is studying*) history.

(Quirk, 2016)

(36a), (36b), (36c)는 각각 두 번째 절에서 각각 동사나 부사구 *do so*, *live there*, *is studying*이 생략된 문장들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담화 내용에 대해 청자와 충분히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화자의 판단에 의해 나타나는 구문 형태변형이다.

하지만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은 선행 문장에서의 발화 여부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화자가 지니고 있는 개념이 어떠한 개체나 상황을 구정보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 발화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화제공유 상태에 대한 정도가 화자에 의해 판단됐을 때 구문 형태변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요소의 작용으로든 화제공유 상태의 정도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의해 구문 형태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에서 정보구조와 구문 형태변형에서는 정보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구문에서의 형태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정보구조에서 구정보-신정보의 분류는 선행 문장이나 발화에서의 언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담화 발생 당시의 환경적 요소에 의한 공유나 개체에 대한 개념적 공유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구문 형태변형을 일으키는 화제공유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 3.2 구문 형태변형의 요인

#### 3.2.1 화제공유 상태에 미치는 요인

사실상 화제가 공유된 상태에 대한 화자의 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각이나 후각, 청각, 미각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과 화자와 청자가 공감하는 개체나 사건에 대한 개념적 공유상태들은 담화전개 과정에서 그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화제공유 상태를 형성하기도 한다.

<표 7> 화제공유 상태에 미치는 기타 요인

화제공유 상태에 미치는 기타 요인	
인지적 요소 ex) 시각, 후각, 청각...	개체에 대한 개념적 공유

그러므로 담화당시의 인지적 요인과 개체에 대한 개념적 공유와 같은 화제공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은 정보량과 관련이 있으며, 때문에 담화전개에서 발화되는 문장의 단어 선택이나 어순의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담화의 전개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들과 개체에 대한 개념적 공유상태의 작용으로 발생한 화제공유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담화전개를 위한 구문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인지적 작용에 의한 정보량 변화와 형태변형에서 예를 통해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인지적 작용에 의한 정보량의 변화와 정보구조의 변형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보량과 어휘 생략 가능성의 반비례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3.2.2 인지적 작용에 의한 정보량과 형태변형

인지적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반응들은 몸짓과 표정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휘 선택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 형태변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인지적 요소들의 작용을 화자와 청자가 함께 받고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발화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인지적으로 서로 공유하게 되어 구정보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했는데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현관에서부터 풍기는 상황이라면 청자에게 (37a)나 (37b)와 같은 문장으로 담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

(37) a. The smell is so good.

b. Good!

한정명사구의 사용은 기존의 화용적 분석에 따르면 구정보로 분류된다. 하지만 (37a)에서 화자는 선행된 문장도 없이 바로 한정명사구를 이용한 명사구 *The smell*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선행 문장을 기반으로 한 정보구조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적 요인들의 작용효과를 고려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정명사구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 문장의 정보구조에도 문제가 없는 정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7a)의 담화 환경은 개체에 대해 청자와 후각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선행 발화가 없더라도 화자와 청자는 그 냄새에 대해 이미 공유된 상태이며, 때문에 청자에게도 이미 구정보로 인식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한정사를 포함한 명사구인 *The smell*을 사용하고 화제-초점의 정보구조에 따라 문두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그리고 Breivik(1981: 9)은 TC의 be동사는 *There*와 명사구를 연결시켜주는 전이요소(transitional element)라고 하였다. 사실상 화제-초점의 정보구조에 따르면 TC의 *There*는 화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7a)의 be동사 *is*는 화제(*the smell*)와 초점(*so good*)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be동사의 기능을 화제-초점 전환 기능<sup>11)</sup>이라 일컫는다.

---

11) Breivik(1981: 9)은 *There*구문에서 *There*와 도입되는 명사구를 연결시켜주는 be동사를 전이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화제-초점 전환기능의 be동사라고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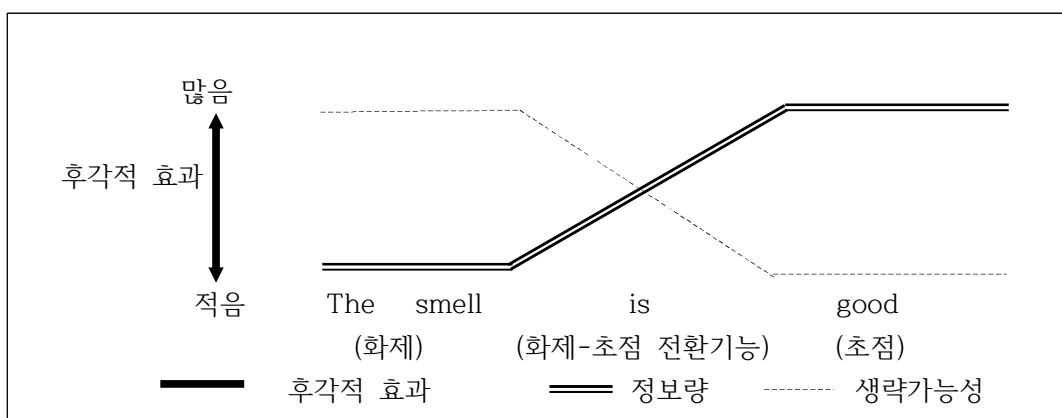


<표 8> 화제-초점 정보구조에서의 be동사의 기능

구 분	화제-초점 정보구조에서의 be동사의 기능
be 동사	화제와 초점을 연결해 주는 화제-초점 전환 기능

결국, (37a)의 문장은 화제에서 화제-초점 전환 기능의 be동사를 통해 초점인 *good*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시 말해, (37a)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이 없더라도 인지적 효과의 작용을 공유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미 구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구문 형태변형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37b)는 초점만이 언급된 경우이다. 하지만 (37b)도 (37a)와 같이 인지적 효과의 작용을 이용해 정문임을 설명할 수 있다. (37a)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smell*은 후각적 공유로 청자나 화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이다. 하지만 만약 화제(*The smell*)에 대해 이미 청자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재 언급의 필요성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화제-초점 전환기능의 *is*가 남아 있을 이유 또한 사라진다. 그러므로 화제(*The smell*)가 화제-초점전환기능의 be동사(*is*)와 함께 생략되어 바로 초점(*good*)만이 언급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화제와 be동사가 생략되는 현상을 화제생략<sup>12)</sup>이라 일컫는다. 이처럼 후각적 작용이 공유된 상황에서 화제와 화제-초점 전환기능의 be동사가 함께 생략되는 현상은 <그림 4>와 같은 물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후각적 효과의 작용과 정보량의 변화에 의한 구문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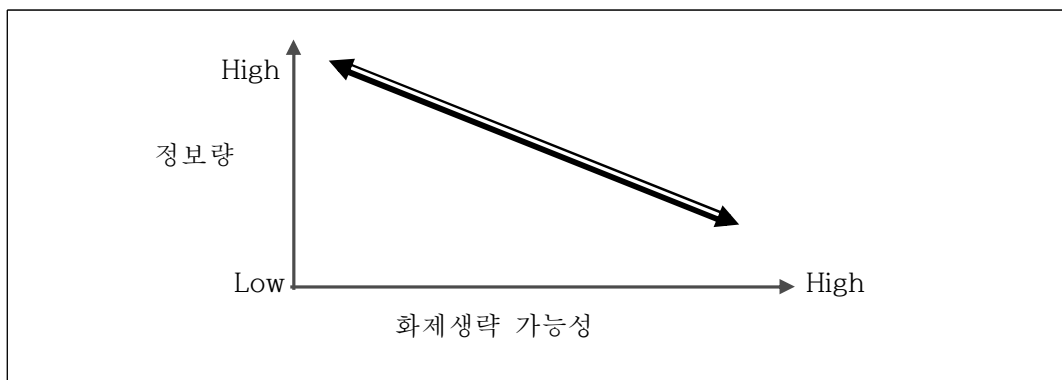
12) 본 논문에서는 화제와 be동사가 생략되는 현상을 화제생략이라는 용어로 대신한다.

<그림 4>에서 후각적 효과의 작용으로 그 대상(The smell)이 되는 개체는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되어 화제로서 문두에 위치하게 되며, 정보량이 많은 신정보 즉 초점(a grocery)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그림 4>의 물결모양은 후각적 효과의 작용과 화제생략이 반비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후각적 효과와 같은 인지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정보량의 차이로 정보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화제 문두도치나 화제생략 등의 구문 형태변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는 인지적 작용의 영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문 형태변형을 나타낸다.

<표 9> 인지적 작용의 영향에 의한 구문 형태변형

구 분	구문 형태변형	
인지적 작용 대상(화제)	화제 문두도치	화제생략

그리고 <그림 5>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량과 화제생략 가능성은 반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정보량과 화제생략 가능성

화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 청자에게 새롭게 인지될 정보량이 적을수록 구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화제생략 가능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많을수록 초점이 되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화제생략 가능성은 줄어든다.

### 3.2.3 구문 형태변형의 준언어적 요소

화제공유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인지적 요소에는 시각, 청각, 미각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후각이나, 청각, 미각은 그러한 감각에 맞는 개체나 사건이 동반되거나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각적인 요소는 다른 인지적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에 구애를 덜 받고 담화가 발생하는 곳 어디서든 거의 항상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면 후각이나 청각의 효과에 의한 구문형태의 변형도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은 개체나 사건을 구정보화 시키는 인지적 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그 대표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문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준언어적 요소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으로 정한다.

<표 10> 구문 형태변형의 준언어적 주요 요소

구문 형태변형의 준언어적 주요 요소	
시각적 효과의 작용	개체에 대한 개념

제 3장에서 TC가 아닌 일반구문에서 정보구조에 의한 구문 형태변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기존의 정보구조에서 구정보-신정보의 분류를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에 기준을 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시각적 효과와 같은 인지적 요인과 개체에 대한 개념 등의 준언어적 요인도 정보량에 영향을 끼쳐 그러한 요인들의 대상을 구정보화 시키기 때문에 구문 형태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 공유상태에 의한 구문 형태변형 현상은 TC구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제 4장 TC의 형태변형이다.

## IV. TC의 형태변형과 원인 분석

제 4장에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나 개체에 대한 화자의 개념이 일반구문이 아닌 TC구문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TC의 형태변형의 유형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TC의 형태변형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제 2장에서 TC에 한정 명사구가 쓰이는 현상과 축약형 There's의 수일치 위반현상을 TC의 주요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을 반영해 그러한 TC의 형태변형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더불어 단어의 의미적 특색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쳐 구문 형태변형을 발생시키는 기타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우선 4장 1절 TC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 TC의 사용이 개체에 대한 가시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가시성의 정도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을 제시한다. 또한 그러한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소들을 확인한다. 4장 2절에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의한 TC의 형태변형들을 알아보고, 4장 3절에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이용해 TC의 수 형태변형을 살펴본다. 4장 4절에서는 개체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분석으로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에 대해 논의 될 것이다. 그리고 4장 5절에서는 한정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하는 TC가 정문으로 쓰이는 현상을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 4.1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TC의 형태변형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화

자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앞서, TC의 There와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개체에 대한 가시성의 정도에 따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그러한 등급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준언어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구문 형태변형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반영될 수 있는 기타 준언어적 요소로서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차이, 전치사의 의미적 차이, 개체의 수량의 차이, 단어 자체의 의미적 특색들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TC의 형태변형의 관계를 설명해 봄으로써, TC의 구문 형태변형에 대한 분석에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 4.1.1 There의 기능

TC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 자리를 There가 차지 한다는 것이다. 이에 TC의 There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Allan(1971), Bolinger(1977), Breivik(1981)등은 There 존재구문은 신정보를 담화 주제로 제시하는 장치이며, There 자체의 담화, 화용적 기능은 담화 상황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신정보를 청자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는 ‘신호기능(signal function)’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Givon(1979)은 TC의 There에 대하여 주제가 바뀌거나 청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청자의 의식 속에 설정해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에서 신정보의 기준을 모두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명제에 두고 있다. 다음은 TC가 담화 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청자에게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Allan(1971)이 제시한 예문이다.

- (38) a. In the first year of Kamehamaha I was resigned *there* occurred an eruption of Mauna Lao, fortunately for the later condition of

the soil which depleted from over cropping.

- b. Mauna Lao eruptd in 1856 but things remained more or less quiet until 1862; in that year occurred two eruption of Kilauea, destroying several villages.

(Allan, 1971)

그의 설명에 따르면 화산폭발이라는 명제는 (38a)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므로 TC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38b)에서는 선행 문장인 (38a)에서 이미 언급된 상태이므로 There가 없는 구문이 사용된다.

하지만 TC의 There의 사용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도 관련이 있다. TC의 There가 도입할 개체에 대한 가시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Bloom(1973), Inoue(1991, 1993) 등은 TC의 There는 직시의 There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의 TC 습득단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Inoue(1993: 58)가 어린아이들의 There의 습득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유아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눈 관찰 자료이다.

<표 11> 어린아이들의 TC 습득 4 단계 관찰 자료(Inoue, 1993: 58)

단 계	나 이	There 구문 습득 관찰
1 단계	앨 리 슨 (1: 4)	a. (Allison pointing to Mother) There. b. (Allison reaching for microphone: hold it) There.
2 단계	에 릭 (1:10/ 1: 11)	a. (Eric pointing up bird) There ə birdie. b. (Lois opens closet door: vacuum cleaner is inside ) There cleaner.
3 단계	앨 리 슨 (1: 10), 지 아 (2: 12)	a. (Allison puts hand to head: looking at monitor) There's Allison. b. (Gia pointing to book on record-player cabinet) There's ə book
4 단계	피 터 (2: 1/ 2: 10), 에 릭 (2: 0.7) 앨 리 슨 (2: 10)	a. (Peter pointing to the box of tape he's holding) There's a tape go (a)round right there. b. (This is the mommy cow. (peter squeezing) There's milk coming out of it. c. (Eric pointing to pigeon walking on street) There's ə birdie in there. d. (Allison pointing to can) There's some in there

그는 위의 자료를 근간으로 TC의 There와 직시의 There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TC의 There가 직시의 There와 관련이 있다는 관찰은 TC의 There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그가 제시한 관찰 자료를 재분석해 보면, 네 단계 모두에서 실험대상자인 어린아이는 가시적인 개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리키는 대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관찰 자료는 TC에서 There의 사용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Breivik(1981)은 ‘시각적 효과 제약(visual impact constraint)’를 제안하면

서 실제 담화 상황이나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는 존재구문의 신정보가 문두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There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의 예문과 같이 There가 없는 존재구문의 예문인 (39a)는 실제 눈앞의 식품 가게가 보이는 상황이나 그에 상응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며, 청자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39b)의 There 존재구문을 사용하게 된다. 다음은 Breivik(1981)이 제시한 예문이다.

(39) a.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b. Across the street, there is a grocery.

(Breivik, 1981)

그는 또한 위의 문장에 ‘as I recall’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There가 삽입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담화, 화용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40) a.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there is a grocery.

b.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Breivik, 1981)

(41) As you can see,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40a)와 (40b)에서 삽입된 ‘as I recall’은 화자가 본인의 의식 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떠올리며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쓰이는 표현이므로 가시적으로 개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40)의 상황에서 TC를 이용한 (40a)는 정문이며, 반면 (40b)는 비문이 된다. 하지만 (41)의 문장처럼 만약 ‘as you can see’를 문두에 위치시키면 화자와 청자 모두 길 건너에 있는 식품 가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There가 생략된 문장을 구사하여도 정문이 된다. 그의 설명 또한 TC의 사용은 개체에 대한 가시성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의 Bloom(1973), Inoue(1991, 1993)의 관찰 자료와 Breivik(1981)의 시각적 효과제약을 재 해석해 보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없을 때에는 There의 삽입은 의무적이고,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을 경우에 There의 사용은 선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청자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담화환경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따라 TC의 사용이 (비)의무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TC의 사용이 가시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Bolinger(1977)가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There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개체가 가시적이지 않을 때 There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2) In my right hand is a pencil, and in my left there's an eraser.

(Bolinger, 1977)

Bolinger는 위의 예문을 설명하기 위해 청자 앞에 내민 오른손에 연필 한 자루가 있고 뒤에 숨겨진 왼손에는 지우개가 있는 상황을 설정한다. 그런 상황에서 오른손에 있는 연필은 청자도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There가 없는 *in my right hand is a pencil*이라는 문장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왼손은 화자의 뒤에 숨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청자는 왼손에 있는 지우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There를 삽입하여 *in my right hand there's an eraser*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42)의 예문을 통한 그의 설명도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TC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은 시각적 효과와 There 삽입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그러한 요소들의 작용이 TC의 형태변형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담화 조건에 따라 시각적 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가시성의 차이와 TC의 형태변형 유형과 관련지어 설명하지도 못했다.

모든 개체가 항상 같은 정도의 가시성을 지니지는 것은 아니다. 개체나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환경이 가시성의 차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유형의 구문 형태변형으로 나타기도 한다. 다음은 개체에 대한 가시성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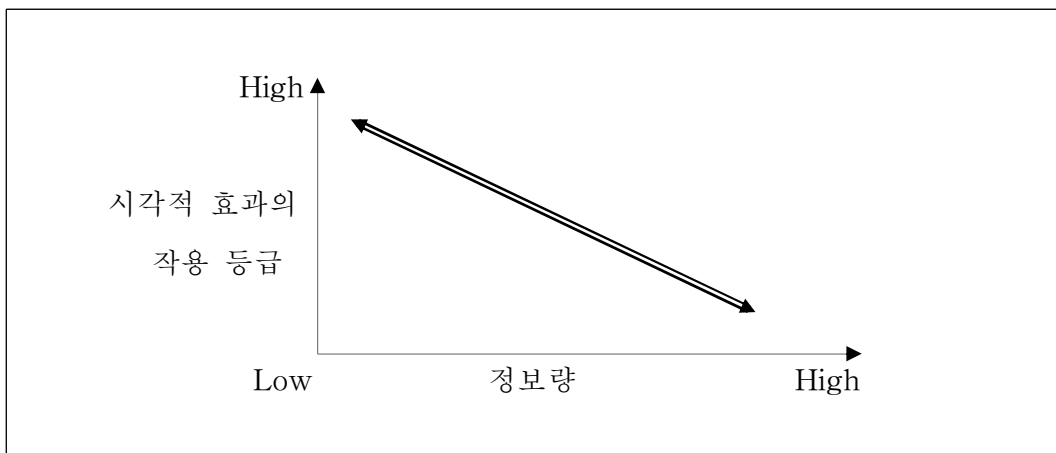
차이를 나타내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기타 요소들이다.

#### 4.1.2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기타 요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개체에 대해 청자도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정보량이 적은 상태이다. 하지만 모든 개체가 같은 정도의 가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개체나 담화 환경이 가시성의 차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담화 당시의 이러한 가시성의 차이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라 부른다. <그림 6>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정보량의 관계이다.

<표 12>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의 의의

구 분	의 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모든 개체가 같은 정도의 가시성을 지니지는 것이 아니며, 개체나 담화 환경에 따라 가시성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개체에 대한 이러한 가시성의 차이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라 한다.



<그림 6>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정보량의 관계

<그림 6>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정보량의 반비례적 관계를 나타낸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은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개체에 대한 가시성을 기준으로

정보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량은 줄어들며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낮을수록 정보량은 높아진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기타 준언어적 요소로서 첫 번째로 물질적 개체와 추상적 개체를 들 수 있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은 개체에 대한 가시성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양이 없는 개체들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시각적 효과 무작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에 물질적 개체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대상으로 분류된다. <표 13>는 물질적 개체와 추상적 개체를 분류한 예이다.

<표 13>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  
(추상적, 물질적 개체)

구 분	종 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물질적 개체	air, water, paper, sugar, money, cheese, butter, juice, cup, building, gym, school...	작용
추상적 개체	knowledge, hope, thought, idea, pain, misery, information, trust, peace, transition, slavery, victory, success, loss, wisdom, excellence, gladness, friendship, experience, importance, courage, interest, value, honor, sense, ease, purpose, reality, beauty, happiness, safety, fluency...	무작용

두 번째로 위치 전치사를 들 수 있다. 개체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또는 장소 부사구가 동반될 경우 사용되는 전치사의 쓰임이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표 15>는 전치사와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분류이다.

<표 14>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I(전치사)

구 분	시각적 효과의 등급	
	작용	무작용
위치(장소) 전치사 A	on, in front of, before, beside, by, near, above, at, ahead of..	—
위치(장소) 전치사 B	—	in, inside, behind, over, beneath, beyond,

A 그룹의 위치(장소) 전치사는 개체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되며, B 그룹의 위치(장소) 전치사는 개체의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on, in front of는 지시하는 개체가 무언가의 ‘위’와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담화가 발생하는 현장 기준에서 그것이 지시하는 개체가 시각적으로 드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환경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on과 in front of와 같은 전치사를 동반하는 전치사구는 선행하는 개체에 대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일으키는 성질을 지닌 전치사에 속한다. 하지만 inside, behind 등의 전치사는 지시하는 개체가 무언가의 ‘안’ 또는 ‘뒤’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것이 가리키는 개체가 무언가에 가려져 있거나 감싸져 있어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없는 환경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inside와 behind 같은 위치 또는 장소 전치사는 그것을 동반하는 시공간적 전치사구를 선행하는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일으키는 성질을 지닌 전치사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시공간적 장소를 나타내는 지명이 지니고 있는 의미 자체를 들 수 있다. <표 15>은 그러한 지명의 의미적 특색에 따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으로 나눈 예이다.

<표 15>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II (단어의 의미: 지명)

구 분	시각적 효과	
	작용	무작용
단어 A (지명)	table, building, street, mountain, board, bed, bag, body, hand, mirror, van, forefront...	—
단어 B (지명)	—	backyard, underground, darkness, back garden, blood vessel, heart, needle's eye, pipe...

A 그룹의 단어들이 어떠한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지명으로 쓰일 경우 그 개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임을 나타내는 성질을 지니지만, 단어 B 그룹의 단어들은 그 자체로 어떠한 개체를 한 눈에 볼 수 없게 만드는 의미적 특색을 지니므로 가시성이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성질을 지닌다. 예를 들어, ‘darkness’는 ‘어둠’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어떠한 개체가 어둠 속에(in the darkness) 있다고 한다면 그 개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지명을 나타내는 A 그룹의 단어들은 개체에 대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며, 반면에 B 그룹의 단어들은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색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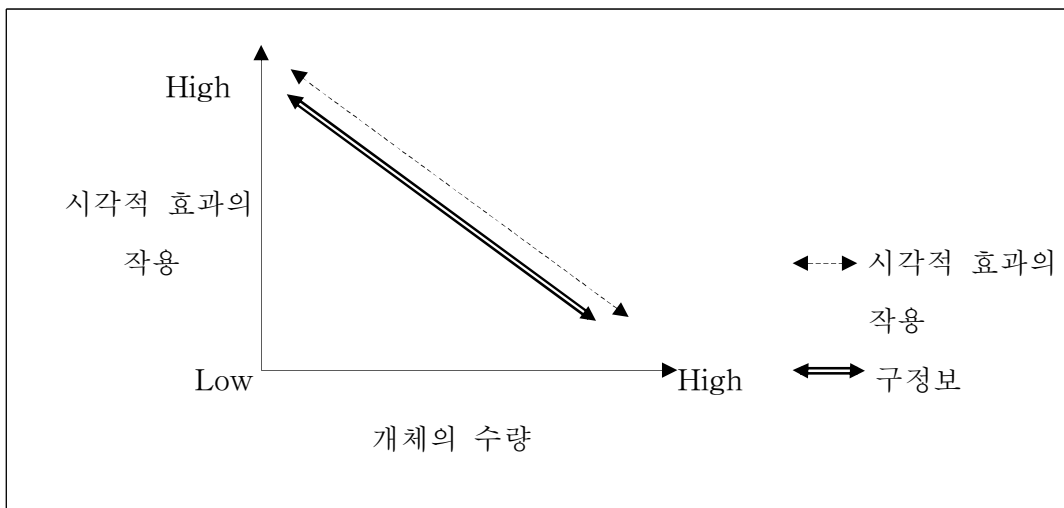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배경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성질이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표 16>은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지닌 배경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예이다.

<표 16>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V(단어의 의미: 수식어)

구 분	시각적 효과	
	작용	무작용
단어 C (형용사)		deep, remote, faraway, distant,

예를 들어, 형용사 ‘deep’, ‘remote’와 같은 단어는 ‘깊은’, ‘원거리의’의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담화가 발생하는 현상에서 개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을 마련해 주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떠한 개체가 구멍 깊은 곳에 있거나(deep in the hole) 아주 멀리 위치해 있다면( in the remote area) 그 개체를 한 눈에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체의 수량이나 크기의 정도이다. 예를 들어, 아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의 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개 되지 않는 개수의 사물은 한눈에 들어온다. 때문에 전자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낮고 후자는 높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체의 수량과 시각적 효과 작용 등급이 반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그림 7>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개체의 수량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구정보의 관계

마지막으로 과거의 사실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무)등급을 나타내는 요소로 들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은 시제의 특성상 담화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그 대상이 되는 개체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을 전개하는 TC는 가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개 명제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개체가 같은 정도의 가시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담화의 환경적 요소가 가시성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담화 당시의 개체에 대한 이러한 가시성의 차이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라 하고, 그러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나타내는 요소로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가시성의 차이, 개체의 존재위치를 나타내는 지명과 그것과 함께 동반되는 전치사 자체가 지니는 의미적 특색,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지명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성질, 그리고 개체의 수량을 들었다. 게다가 과거의 사실은 시제의 특성으로 언급하는 개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곧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의 정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구문 형태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의한 TC의 형태변형에서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들에 의한 TC의 형태변형이 다루어 질 것이다.

## 4.2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형태변형

앞 절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은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가시성의 차이, 개체의 존재 장소를 타나내는 지명과 그것과 동반되는 전치사가 지니는 의미적 특색, 지명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성질, 개체의 수량 그리고 과거의 사실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나타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은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어떠한 유형의 TC의 형태변형이 초래되는지에 대해 논의 될 것이다. 우선 시각적 효과의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른 형태변형에 대한 관찰이다.

### 4.2.1 시각적 효과의 세 등급과 형태변형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라 개체의 정보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라 TC의 형태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대표적 형태변형으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는 배경화제 문두도치 현상 그리고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서는 명제만을 언급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 4.2.1.1 배경화제 문두도치

Reinhart(1981)와 Erteschik-Shir(1997)은 한 문장은 화제 X에 대한 진술이며,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Cohen과 Erteschik-Shir(2002)은 TC에서 개체의 배경을 나타내는 시공간 관련 표현인 처소 부사구가 화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체가 존재하는 시공간과 관련된 화제를 배경화제(stage topics)라고 하였다. 즉 TC의 문미 처소 부사구는 화제의 기능을 갖출 수 있으며, 화제가 된 배경은 구정보-신정보, 화제-초점의 정보구조에 따라 문두로 도치될 수 있다. 아래 (43)의 예문을 보자.

(43) There are two O-rings around the seal, and on about five, perhaps



half a dozen STS flights; *on each flight* there are six seal areas, three segments, three breaks in each of two solids.

(Ward & Birner, 1998)

(43)의 두 번째 문장에서 처소 부사구 *on each flight*가 문두에 위치해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on each flight*라는 처소 부사구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후행하는 문장에서는 이미 구정보가 되어 화제-초점의 정보구조에 따라 문두로 위치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개체의 존재 시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배경화제는 가시적일 수도 있고 비가시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개체가 존재하는 시공간적 배경은 그것에 대한 가시성에 따라 화제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화제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이용해 TC의 문미 처소부사가 문두로 도치되어 *There*가 생략되는 TC의 형태변형을 설명할 수 있다. 예문을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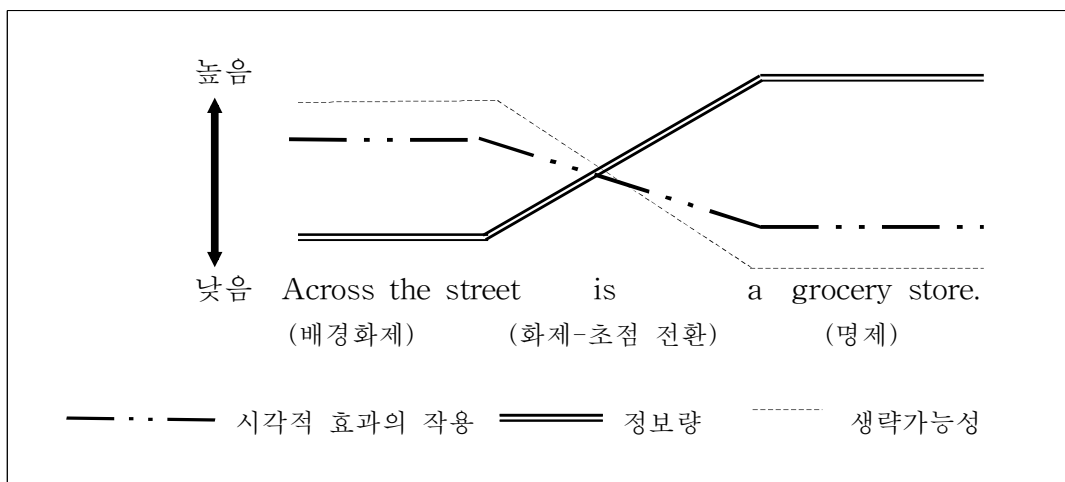
(44) *There is a grocery across the street.*

(45)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위 (44)와 (45)의 예문은 모두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적용한 분석으로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를 이용해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시각적 효과가 *Across the street*에 작용하고 있지만 *a grocery*에는 작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경화제 *Across the street*은 청자에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이미 정보량이 적은 구정보<sup>13)</sup>로 인식 된다. 그러므로 *Across the street*은 화제-초점의 구조에 따라 문두에 위치하여 화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Breivik은 ‘시각적 제약 효과’를 제시해 개체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There*가 없는 구문이 가능하고 청자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There*가 삽입된 구문이 사용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3) <그림 2> 정보량과 구정보 신정보의 관계 참조.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화제만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이미 문두에 자리해 화제의 지위를 지니고 있던 *There*를 삭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는 *a grocery*는 청자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정보량이 많은 신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화제-초점 전환기능의 *be*동사를 이용해 신정보인 *a grocery*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정보 *a grocery*가 초점으로 도입되어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45)는 (44)의 예문은 배경화제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받아 도래된 형태변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TC의 문미 배경화제의 문두도치 현상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정보량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8>은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TC의 문미에 위치한 배경화제가 문두로 도치되는 현상과 정보량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낸 정보량 물결모양이다.



<그림 8>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배경화제 문두도치 I

위 그림에서 개체의 존재위치를 나타내는 배경화제(*Across the street*)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받고 있어 정보량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문두로 도치되어 화제의 지위를 지니고 화제-초점 전환기능의 *be*동사를 이용해 정보량이 많은 신정보 즉 초점(*a grocery store*)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정보량은 반비례적 관계를 나타내며,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생략 가능성은 비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각적 효과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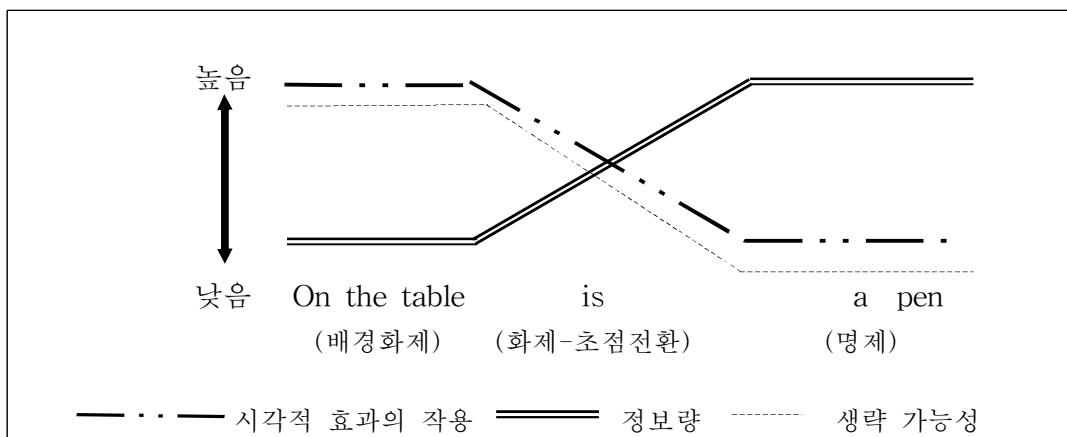
용에 의해 문미의 배경화제가 문두로 도치되고 화제-초점 전환의 be동사를 이용해 정보량이 많은 초점으로 전환하는 현상은 Celce-Muria와 Larsen-Freeman (1999: 451)가 제시한 아래의 예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46) *On the table is a pen.*

(Celce-Muria & Larsen-Freeman, 1999)

(47) *There is a pen on the table.*

위 (46)의 문장을 일반적인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로 분석하면, *on the table*은 문두에 위치해 있으므로 화제이며 *a pen*은 초점이다. 다시 말해 *a pen*을 신정보로 초점화 시키기 위해 문미로 이동한 어순의 형태변형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46)의 예문은 (47)의 *There is a pen on the table*의 TC에서 형태변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만약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해서 청자도 개체인 *a pen*이 위치한 배경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on the table*은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문미에 위치한 배경 *on the table*은 문두로 위치되어 화제의 지위를 지니고 be동사 *is*를 통해 초점인 *a pen*을 도입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46)의 예문을 물결모형으로 나타낸 <그림 9> 역시 <그림 8>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배경화제 문두도치 II

#### 4.2.1.2 명제 발화

하지만 모든 상황이 같은 정도의 가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도 가시성의 차이가 있다. 사실상 도입할 개체와 그것이 존재하는 위치가 모두 가시적인 상태에서는, 도입할 개체인 명제 자체도 구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화 없이 표정이나 제스처로 개체와 개체가 존재하고 있는 배경화제가 표현되기도 하며, 도입할 개체인 명제만이 간단히 언급되어도 충분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하려는 개체가 위치하는 시공간적 배경과 그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상태를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으로 구분한다.

<표 17>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구 분	의 의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도입할 명제와 그것이 존재하는 배경화제 모두 가시성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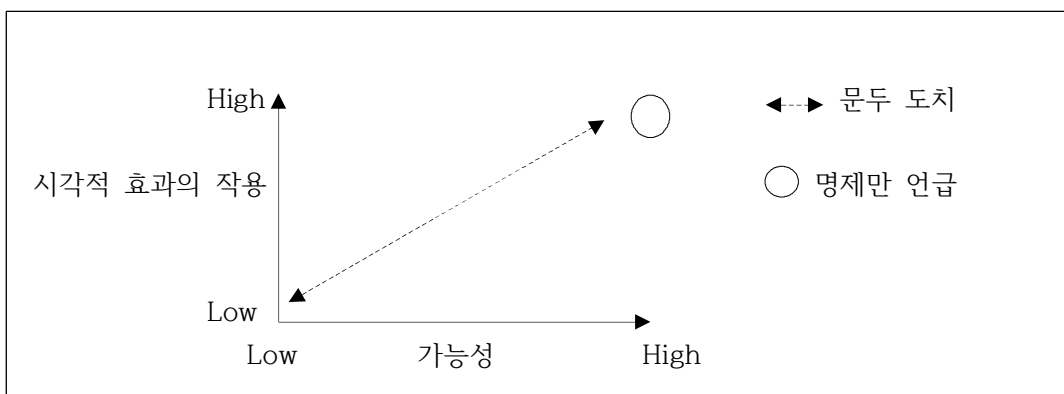
그러므로 위 *There is a pen on the table*에서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상태라면 도입하려는 개체와 그것의 배경화제인 *a pen on the table*은 청자에게도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다. 명제만을 언급하는 문장이 발화되어도 충분히 정문으로 간주되어 원활한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의한 명제만을 언급하는 경우는 예문 *There is a grocery store across the street*의 구문에도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청자가 길 건너에 있는 야채가게의 위치와 그 야채가게까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각적 효과가 *a grocery store across the street*까지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상태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간단히 명제인 *a grocery* 만 간단히 언급되어도 충분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다. <표 18>는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인 경우 가볍게 명제만 발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 든 예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18>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 시 정보구조와 명제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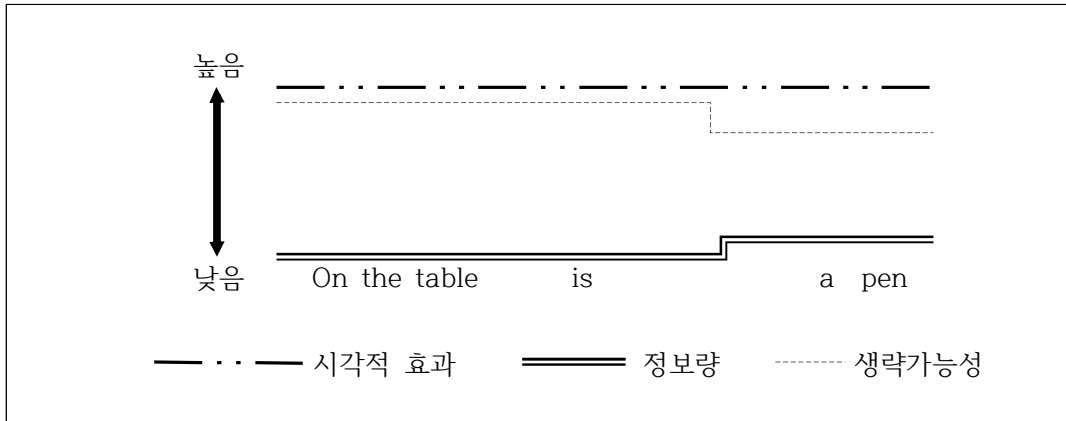
There is + 명제 + 처소부사구 구정보(정보량↓)	재 언급의 필요성	명제만 발화
There is a pen on the table. 구정보(정보량↓)	↓	a pen
There is a grocery store across the street. 구정보(정보량↓)		a grocery

<표 19>에 따르면 시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미의 처소부사구가 문두 도치될 가능성이 커지며,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도입되는 명제와 명제가 위치해 있는 배경화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명제만을 언급하여도 정문으로 쓰여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0>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작용의 대상이 문두도치 될 가능성도 높아지며,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의 조건에서는 명제만 언급될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그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받는 TC의 문미 배경화제가 문두로 도치되는 형태변형은 비례적 관계를 이루며,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서는 명제만 언급되는 형태변형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림 10> 시각적 효과 작용등급과 문두도치/명제만 언급될 가능성의 관계

<그림 10>를 물결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은 물결모양이 형성된다.



<그림 11>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명제 발화

위 <그림 11>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은 명제(*a pen*)와 그것의 배경화제(*on the table*)에까지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명제와 그것의 배경화제 모두 낮은 정보량을 보인다. 그리고 <그림 5> 정보량과 화제생략 가능성에서 정보량과 화제생략 가능성의 반비례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화제생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단지 청자의 인지를 확인하거나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제만이 언급될 수도 있다. 아래의 TC의 예문도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을 적용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48) ~~There is a pencil in my right hand~~

(48)의 상황을 재해석해 보면 오른쪽 손에 있는 연필 한 자루가 청자의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명제인 *a pen*과 그것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in my right hand*까지 미치고 있어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상태이다. 그러므로 오른쪽 손에 있는 연필 한 자루도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다. 이 경우 화제를 언급할 필요성은 없으며 명제인 *a pencil* 만 간단히 언급하거나 심지어 발화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청자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결론적으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 그리고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구문 형태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19>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의 세 등급과 그에 따른 TC의 형태변형 유형을 나타낸다.

<표 19> 시각적 효과의 세 등급과 TC의 형태변형

구 분	구 문 형 태 변 형
시각적 효과 작용 (Visual Impact)	<p>There is a pencil <i>in my right hand</i>.</p> <p>→ VI →</p> <p><i>In my right hand</i> is a pencil.</p>
시각적 효과 무작용 (No Visual Impact)	<p>There is happiness and misery <i>in our lives</i>.</p> <p>→ NVI →</p> <p>*?<i>In our lives</i> is happiness and misery.</p>
완전한 시각적 효과작용 (Full Visual Impact)	<p>There is a pen <i>on the table</i>.</p> <p>→ FVI →</p> <p><i>On the table</i> is a pen.</p>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 개체가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문미의 배경화제가 문두로 도치되는 구문 형태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에서는 구문 형태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배경화제가 문두도치된 구문은 비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개체가 존재하는 배경화제와 그 개체가 모두 가시성이 있는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는 배경화제를 생략하고 도입할 명제만이 언급되어도 정문으로 간주되므로 명제만이 발화되는 구문 형태변형의 쓰임이 초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가 아닌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른 정보성의 차이에서도 구문 형태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요소에서 언급됐던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준언어적 요소에 의해서도 TC의 형태변형

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유추된다. 다음은 그러한 요소들과 TC의 형태변형에 대한 설명이다.

#### 4.2.2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에 의한 형태변형

먼저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에 의한 TC의 형태변형이다.

##### 4.2.2.1 명제 문두도치

먼저 <표 13>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에서 제시되었던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에 의한 TC의 형태변형이다. 도입될 명제의 성질이 추상적이냐 물질적이냐에 따라 그 명제가 문장의 주어 자리인 문두로 도치된 TC가 정문이 될 수도 있고 비문이 될 수도 있다.

(49) a. There is a water fountain in front of the building.

b. A water fountain is in front of the building.

(50) a. There is a strong air pressure in that space

b. \*Strong air pressure is in that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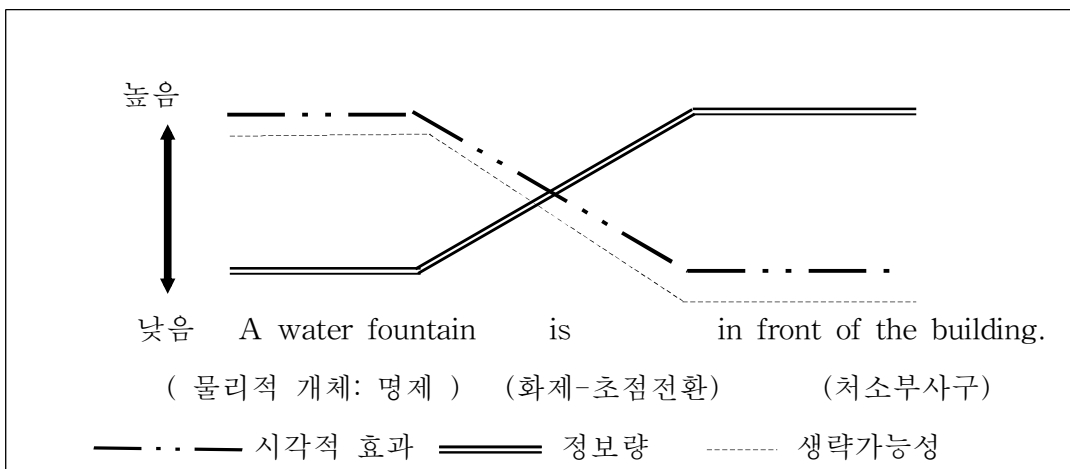
(51) a. There is information about the planet in that book.

b. \*?Much information about the planet is in that book.

명제의 추상적 성질을 이용하여 (49)와 (50)의 구문이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는 물질적 개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반면에 추상적 개체는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위의 예문들을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반으로 분석해 보자. 예컨대 (49a)의 *a water fountain*은 물질적 개체이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는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에 화자와 청자 눈앞에 분수대가 있어 그 분수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화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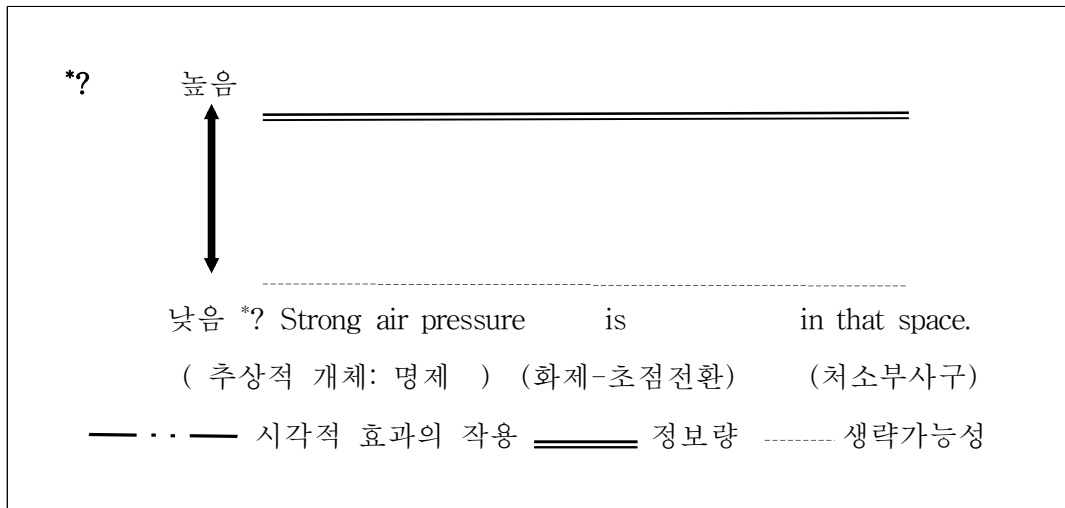
*water fountain*은 이미 청자에게 구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선행언급 없이 그것을 문두로 위치시켜 화제의 지위를 지니게 한 (49b)의 문장이 곧바로 구사되더라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므로 (49b)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림 12>는 물질적 개체에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을 경우의 정보량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구문 형태변형을 물결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질적 개체인 명체에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보량이 줄어들어 문두에 위치해 화제의 지위를 지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물질적 개체의 시각적 효과 작용과 구문 형태변형

반면에, 담화 당시의 가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서 추상적 성질을 가진 개체는 구정보로 인식될 수 없는 조건을 지닌다. 때문에 그 대상이 문두로 도치되어 화제의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예컨대 (50b), (51b)의 *strong air pressure*와 *much information*은 가시성이 없는 추상적 성질을 가진 개체이다.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일으키는 개체로 분류된다. 따라서 TC를 이용해 명체를 도입한 (50a), (51a)는 자연스런 문장이 되지만, *strong air pressure*와 *much information*을 문두로 도치시킨 (50b)와 (51b)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Park(2005: 82)도 예문 \*Plenty of room is on the shelf을 제시해 이 문장이 비문인 이유로 ‘plenty of room’이 추상적 대상(abstract entity)임을 들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도입하는 개체가 추상적 대상일 경우에

는 There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이유를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정보구조의 변형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림 13>은 추상적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과 구문 형태변형을 나타낸다. 추상적 개체에 대해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 표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물결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추상적 성질을 가진 개체가 문두에 위치해 화제의 지위를 지닌 구문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3> 추상적 개체의 시각적 효과 무작용과 구문형태 무 변형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명제의 성질이 추상적 개체인지 물질적 개체인지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명제가 문두도치 된 문장이 정문이 되기도 하고 비문이 되기도 한다.

#### 4.2.2.2 배경화제 문두도치

추상적/물질적 성질에 의한 문두도치 가능여부는 개체 즉 명제의 성질뿐만 아니라, 명제가 존재하고 있는 시공간을 나타내는 배경의 성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시공간적 배경은 그것의 성질이 추상적 성질을 지니는지 물질적 성질을 지니는지에 따라 그것이 문두에 위치된 장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다. <표 20>은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을 가진 시공간적 배경을 분류하고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과 문두도치의 가능여부를 나타낸 예이다.

<표 20>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을 가진 시공간적 배경과 문두도치

구 분	배경	시각적 효과	문두도치
추상적 성질	in our lives, in the world, over the world, from all walks of life, in the foreseeable future, in foreign policy, in a fatal car accident, over the railing, under the influence, on the economic downturn, at a standstill, in good standing, beyond one's means, in the budget plan, in the afterlife, at the scheduled time, beyond the village....	무작용	불가능
물질적 성질	on the table, at the playground, on the box, in front of the building, on the coffee table, on the street, in your hand, on the table,,,	작용	가능

다음의 예문을 보자.

(52) a. There is happiness and misery (in our lives).

b. \*?In our lives is happiness and misery.

(53) a. There is a conflict in foreign policy.

b. \*?In foreign policy is a conflict.

- (54) a. There is a cut in the budget plan for next year.  
 b. \*?In the budget plan for next year is a cut.
- (55) a. There is a more beautiful world in the afterlife.  
 b. \*?In the afterlife is a more beautiful world.
- (56) a. There is a possibility of water shortage is the foreseeable future.  
 b. \*?In the foreseeable future is a possibility of water shortage.
- (57) a. There is a traffic jam on the street.  
 b. On the street is a traffic jam.

위에서 (57)과 (52)의 예문은 같은 구조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문미 처소부사구가 문두로 이동한 (57b)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간주되지만 (52b)는 어색한 문장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를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으로 설명해 보자. (57)의 경우 개체가 존재하는 시공간을 나타내는 *on the street*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화자와 청자가 함께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발화에 의해 언급되지 않더라도 화제로 인식 될 수 있다. 그러므로 *on the street*을 문두로 위치시킨 (57b)는 정문으로 간주 된다. 하지만 (52b)는 어색하다. (52)의 *in our lives*는 개념적으로 일반화된 공간을 지칭하므로 문미에서 생략은 가능하지만 추상적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의 조건을 지닌다. 즉 *in our lives*는 그 자체가 지니는 추상적 성질에 의해 그것에 존재하는 개체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상태로 분류시킨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서는 문도도치의 구문 형태변형을 발생시킬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in our lives*를 문두이동 한 (52b)의 예문은 어색하다. (53b), (54b), (55b), (56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명제가 존재하고 있는 시공간을 나타내는 *in foreign policy, in the budget plan, in the afterlife, in the foreseeable future*는

추상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그것들이 문두에 위치해 화제의 지위를 지니는 (53b), (54b), (55b), (56b)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지금까지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따른 TC의 형태변형으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의 문두도치, 완전한 시각적 효과 작용등급일 때의 명제만 언급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물질적 개체와 추상적 개체의 가시성,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의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에 따른 문두도치의 가능 여부도 설명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의 차이로 이러한 TC의 형태변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TC의 수 형태변형과 한정 명사구의 사용과 같은 다른 유형의 TC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따른 TC의 수 형태변형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 4.3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른 수 형태변형

본 절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TC의 수 형태변형에 적용시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따라 TC의 수 형태변형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이에 우선 TC를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먼저 TC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난 후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따른 TC의 수 형태변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4.3.1 TC의 세 가지 유형

TC의 There는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통사적으로 역을 지니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단순히 주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쓰이는 허사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C에서 be동사 뒤에 따르는 명사구의 수와 상관없이 축약형 There're의 쓰임은 비문이 되고 축약형 There's는 정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통사적으로 허사로 여겨지는 There가 사실상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어역을 지닌다는 관점을 야기 시킨다. 그러므로 TC의 기본 구조는 There + 단수동사+명사구라고 가정하며, 이에 동사를 후행하는 명사구의 수에 상관없이 모두 단수동사를 취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간주한다. 다음은 TC의 기본구조에 따른 유형이다.

<표 21> TC의 기본구조와 유형

TC의 기본구조(There + 단수동사 + 명사구)의 유형
a. There + 단수동사 + (NP)
b. There + 단수동사 + (NPs)
c. There + 단수동사 + (NP+NP)
d. There + 단수동사 + (NPs + NP)
e. There + 단수동사 + (NP + NPs)
f. There + 단수동사 + (NPs + NPs)

There는 단수동사를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TC의 수일치에 대해

여 단수동사를 취한 There is나 There's는 의미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There's와 There is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도나 개념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축약형과 비축약형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TC의 수일치에 문제가 되는 것이 There are의 축약형으로 There's가 쓰이는 현상이며, 본 연구과정에서 There's와 There are에 대한 비교와 설명을 주로 다루게 되므로 There is를 대신해 축약형 There's을 다루기로 한다.

There + 단수동사 + 명사구로 단수동사를 취하는 것이 TC의 기본구조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TC의 기본구조에 따르면 TC는 There의 통사적 체휴어 자리에 어떠한 형태의 명사구가 오더라도 단수동사를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There는 단지 주어 자리를 메우기 위해 놓여진 것이 아니며, There는 문두에 위치해 주격을 지니고 있어 수를 부여하며, 때문에 단수동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He's, You're 등과 같이 명사주어가 be동사와 결합할 때 축약형을 취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단 He와 You는 주격대명사이며 There는 부사(adverbs)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사도 주격을 취할 수 있다. 다음은 부사도 주격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Quirk et al.(1985)이 든 예문이다.

- (58) a. *Where's* the scissors?  
 b. *Here's* John and Mary.

(Quirk et al., 1985)

There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본동사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가끔 'Here comes the bus'와 같이 동사 앞 주어 자리에 위치하면서도 주어가 아닌 것이 분명한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C의 There가 주어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부가의문문, 의문문에서의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inversion)되는 현상, WH-의문문, if가 없는 조건문에서도 발견된다.

- (59) a. There are mice in the garden, *aren't there*?

- b. *Are there* mice in the garden?
- c. *Why is there* someone in the garage?
- d. *Had there* been someone in the backyard. I would have seen him.

(58)과 (59)의 예는 TC의 *There*는 주어 역할을 하며 그러므로 동사의 수를 부여 한다<sup>14)</sup>는 주장을 지지하며, *be*동사를 취하는 TC의 기본 유형은 *There is*~라는 관점을 더욱 확실케 한다. 그러므로 그것의 축약형 *There's*가 정문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하며 자연스럽다.

그리고 <표 10>에서 나타내는 TC의 기본구조를 보았을 때, *There is*나 *There's*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분석보다는 TC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나 *There are*가 선택되어 쓰이는 경우의 화자의 전달 의미나 의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축약형 *There's*와 비축약형 *There are*의 사용은 축약형과 비축약형의 관계가 아니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There's*와 *There are*는 서로 다른 TC 유형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C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도입할 명제만을 언급하는 (*There's*)생략과 TC의 기본유형인 *There's*, 그리고 도입할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도적 선택인 *There are*~로 구분한다. 이것은 Sobin(1997)이 *There's*, *There is*, *There are*로 나눈 것과는 다르다. TC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

14) Sobin(1997) 또한 *There*구문의 수 결정은 주어자리에 위치한 *There*이며 *There is*를 기본 구조로 보았다.



<표 22> TC의 세 가지 유형

유 형	비 고
There's	There's는 TC의 기본구조인 There is의 축약형으로 자동적 발화이다. There's가 자동적 발화인 것은 어린이의 TC 습득단계 발달과정 관찰 자료와 사람들은 There's를 선호한다는 Sobin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There's) 생략	화제가 공유된 상태에서는 화제 재언급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화제생략현상에 의해 화제를 불러오는 There와 화제-초점 전환 기능의 be동사가 함께 생략된다.
There are	TC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나 복수형을 취하는 것은 도입할 명제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위 <표 22> TC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먼저 There's에 대한 설명이다. There's의 쓰임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종의 자동적 발화이다. There's가 자동적 발화라는 주장의 근간은 Inoue(1993)의 유아기의 TC 습득단계 관찰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사실상 Inoue(1993)의 관찰은 TC의 There가 직시의 There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유아기의 TC 습득 과정을 4단계로 나눈 그의 관찰 결과이다.

<표 23> 유아기의 TC 습득 과정 4단계(Inoue: 1993)

단 계	발 화 형 태
1 단계	There
2 단계	There NP
3 단계	There's NP
4 단계	There's NP VP / There's NP location

하지만 TC의 There와 직시의 There의 연관성을 관찰하고자 했던 그의 본연의 연구목표를 제쳐두면, 제 3 단계에서 주어 자리에 위치한 There 뒤에 /s/발음을 추가시켜 There's의 형태를 취해 드디어 처음으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하고, 제 4 단계에 이르기까지 There's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 어린이들의 There's의 발화는 자동적 발화임을 시사한다.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NP and NP, NP and NPs, NPs and NP, NPs and NPs의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There is, There are, There's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도(acceptability)<sup>15)</sup> 조사에서 축약형 There's의 사용이 선호된다는 Sobin(1997)의 언급도 축약형 There's를 발화하는 것은 명사구의 복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자동적 발화임을 지지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There are의 사용이다. 축약형 There's의 사용이 자동적 발화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There are가 쓰이는 것은 도입할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도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There's를 선택할 경우 도입될 명제에 대한 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There are가 선택되어 쓰이는 현상이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Waller(1997: 2)과 Milsark(1974)이 제시한 예문이다.

(60) There is a man and a woman in the street.

(Waller, 1997)

(61) ?There are a school and a hospital in Roxbury.

(Milsark, 1974)

앞서 제시된 TC의 기본구조에 따라 There가 수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60)의 예문은 단수동사인 is가 위치해 있으므로 그 기본구조에 따른 수일치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61)은 (60)과 같은 NP and NP의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동사인 are가 선택된 경우이다. 그것은 본동사와

15) <표 2> Sobin(1997) Relative Acceptability of the Three Forms 참조.

근접한 첫 명사구인 *a school*과도 수일치 되지 않으므로<sup>16)</sup> 근접성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한다. TC의 기본구조가 *There* + 단수동사 + 명사구(NP/ NPs/ NP+NP/ NPs+NP/ NP+NPs/ NPs+NPs)라는 관점에서 *There's* 는 모든 형태의 명사구를 보격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 *There are*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의 선택으로 인한 기능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에서도 TC의 수일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There's*의 쓰임이 아니라 유형 *There are*가 선택되는 의미의 차이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be*동사를 취하는 TC는 *There's*와 *There are*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There's*) 생략이다. *There's*가 생략되어 명제만 언급되는 현상은 4장 2절에서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서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된 바와 같이, 주어 자리에 위치한 *There*와 본동사 자리에 위치한 *be*동사의 생략 즉 화제생략인 (*There's*) 생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은 원어민들의 대화에서 쉽게 포착된다. 아래의 (62b)는 *There's*가 생략되어 바로 *a piece of cake and an apple*라는 명제만을 언급한 경우이다.

- (62) a. What is on that plate?  
 b. (*There's*) a piece of cake and an apple.  
 c. *There's* a piece of cake and an apple.

(62b)의 유형은 모든 문장은 화제+논평 또는 화제+초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논리를 이용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TC구문의 *There*는 화제표시 기능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62a)에서 처소구 *on that plate*을 통해 배경화제가 이미 공유된 상태이므로 (62b)에서 배경화제<sup>17)</sup>가 재 언급 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는 화제를 생략하고 바로 초점으로 들어가 명사구만이 발화된 경우이다. 그리고 <그

16) 근접성의 원리에 따르면 *there* 구문에서 본동사에 후치하고 있는 첫 번째 명사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 시킨다.

17) Erteschik-Shir(1997)와 Cohen과 Erteschik-Shir(2002)의 모든 문장은 화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화제 제약(topic-constraint)과 화제는 시간과 장소라는 담화의 배경이라는 배경 화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제가 공유된 상태에서 화제와 화제-초점을 전환 시켜주는 be동사가 함께 생략되는 화제생략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There'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적 발화이므로 There는 후치하고 있는 /s/와 함께 생략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음은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 세 유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What is/are ~ 처소부사구?'나 'How many ~ 처소부사구'와 같은 유형의 문장들을 예로 들어 (There's) 생략, There's선택, There are선택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다.

(63) a. What is in the treasure chest?

- b. earrings and a necklace.
- c. There's earings and a necklace.
- d. ?There are earings and necklace.

(64) a. Who's in the practice room?

- b. Music students and teachers.
- c. There's music students and teachers.
- d. ?There are music students and teachers.

(65) a. How many benches do you see in front of the building?

- b. Three benches.
- c. There's three benches.
- d. ?There are three benches.

(63a), (64a), (65a)의 예문은 모두 'What is/are ~ 처소부사구?'나 'How many ~ 처소부사구'의 형태로 처소 부사구를 통해 배경화제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화자는 이미 배경화제가 공유되어진 상황이므로 그 화제를 재차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There's를 생략하고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인 명사구를 나열하는 (63b), (64b), (65b)의 유형으로

구사하거나, 가볍게 자동적 발화인 축약형 There's을 문두에 위치시켜 초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배경화제를 재빠르게 점검하는 (63c), (64c), (65c)의 유형을 선택해 발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화제를 다시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There's) 생략 구문이나 그에 준하는 There's가 취하게 된다. 하지만 (63d), (64d), (65d)에서처럼 There are가 언급되는 것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TC의 수 형태변형에 어떠한 변형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 4.3.2 개체의 수량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TC의 수 형태변형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TC를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환경을 만들어 각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앞에서 <그림 7> 개체의 수량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구정보의 관계에서 개체의 수량이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개체의 수량을 헤아려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아래의 각 질문에 제시된 답변의 유형을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66) How many pictures of a tree and an airplane are on the blackboard?

- a. There's two pictures of an airplane and a picture of a tree.
- b. Two pictures of an airplane and a picture of a tree.
- c. ?There are two pictures of an airplane and a picture of a tree.

(67) How many men and women do you see in the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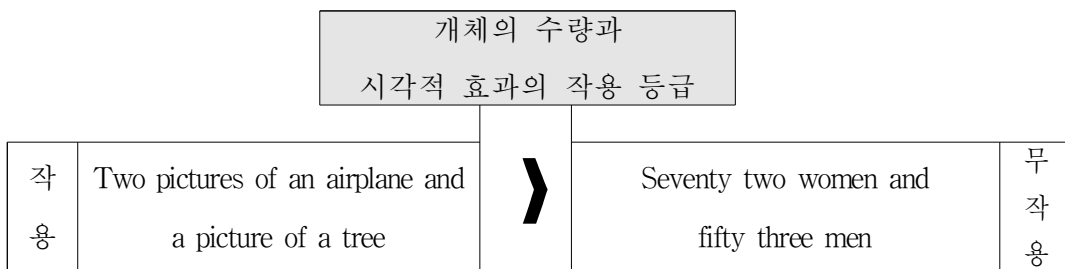
- a. ?There's seventy two women and fifty three men.
- b. ? Seventy two women and fifty three men.
- c. There are seventy two women and fifty three men.

담화환경을 고려했을 때 위의 세 질문은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위 세 질문은 모두 ‘How many ~ 처소부사구’의 형태를 취하는 동일한 유형의 의문문으로, 각각 *on the blackboard*와 *in the audience*를 통해 청자와 시각적으로 배경화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자에게 개체의 수량을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두 문장 모두에서 청자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 발생 당시에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체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문미 처소부사구 *on the blackboard*와 *in the audience*는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다.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미 공유된 배경화제를 재 언급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66) ‘How many pictures of a tree and an airplane are *on the blackboard*?  
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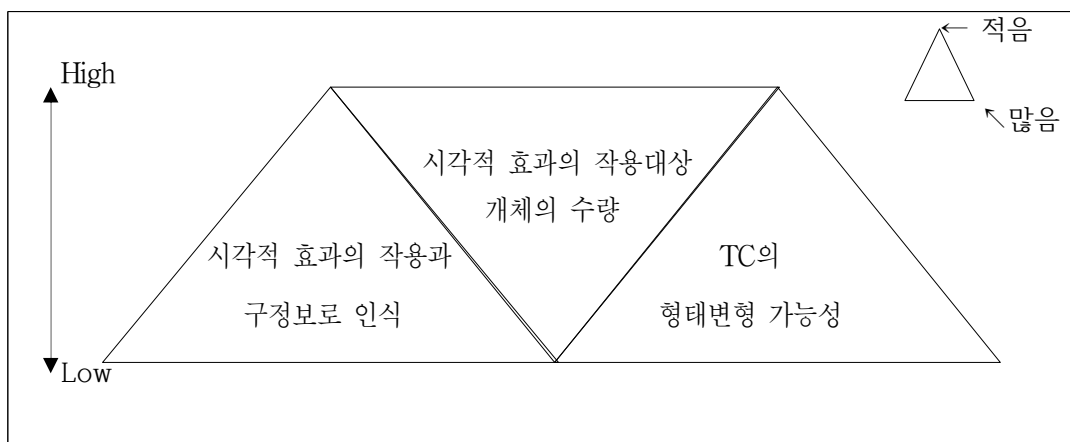
(67) ‘How many men and women do you see *in the audience*?  
구정보

하지만 같은 문장구조와 같은 처소 부사구를 문미에 취하고 있음에도 (66)과 (67)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66)에서 *Two pictures of an airplane and a picture of a tree*는 그 개체의 수가 적으므로 개체의 수가 한 눈에 들어오지만, (67)에서 *Seventy two women and fifty three men*은 그 개체의 수가 한 눈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러므로 (67)의 답변자가 느끼게 되는 시각적 효과의 정도는 (66)의 경우보다 훨씬 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림 14> 개체의 수량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그러므로 (66)의 상황에서 청자가 느끼는 시각적 효과 작용 등급이 높아 개체가 구정보로 인식될 가능성은 크지만, (67)의 상황에서 청자가 느끼는 시각적 효과 작용 등급은 낮아 개체가 구정보로 인식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림 7> 개체의 수량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구정보의 관계<sup>18)</sup>에서도 개체의 수량과 시각적 효과 작용에 의한 구정보의 반비례적 관계가 설명된 바 있다. <그림 15>는 개체의 수량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그 대상이 구정보로 인식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TC 형태변형의 가능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개체의 수량- TC의 형태변형

<그림 15>는 시각적 효과 대상인 개체의 수량이 많을수록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은 낮아지고 개체의 수가 적을수록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 수량은 반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TC의 형태변형의 가능성은 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대상이 되는 개체의 수량과 TC구문의 형태변형의 관계는 반비례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각적 효과의 작용 대상인 개체의 수량이 적을수록 TC구문의 형태변형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개체의 수량이 많을수록 형태변형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18) <그림 7> 개체의 수량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구정보의 관계 참조

### 4.3.3 개체의 수량과 TC의 유형

개체의 수량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은 또한 TC의 세 가지 유형의 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66)의 대답 유형들을 먼저 보자. 수량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66a)의 경우 개체의 수가 적어 시각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에게 모두 그 개체에 대한 수는 이미 구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이미 청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TC의 기능이 되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66b)에서 재언급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There's) 생략 현상으로 바로 명제만을 간단히 언급된 경우에 해당 된다.

하지만 (67)의 경우는 시각적 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Seventy two women and fifty three men*은 그 개체의 수적인 면에서 한 눈에 들어오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상태와 흡사하다. 전달하고자 하는 개체의 수에 대한 기존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화자는 그것들의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새롭게 도입해야 하므로 신중성을 기하게 된다. 그리고 한 집단의 수를 하나씩 세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것을 집단명사로 간주하여 단수 개념을 가질 수도 없는 조건이다<sup>19)</sup>. 그러므로 (There's) 생략이나, There's에 의한 표현은 좀 어색하며 There are이용한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다. 결국 (66)의 경우 시각적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66b)와 같이 There's를 생략하고 바로 개체를 나열하거나 There's구문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며, 반면에, (67)의 경우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바로 There's를 생략하고 바로 명사구 나열로 개체를 도입하는 형태는 어색하다. 시각적 효과가 아주 약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화자는 비축약형 There are를 선택해 전달하고자 하는 개체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게 된다. 역으로 시각적 효과가 강하여 개체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이 강할수록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 순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상황에서의 There are 유형의 선택 가능성은 'do you guess'를 삽입한 문장에서도 확인된다. 아래의 (68)의 질문에도 *in the pencil case*가 문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통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작용

19) 집단명사에 대한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는 4.4.2 집단명사의 의미적 수와 4.4.3 의미적 수 개념과 TC구문의 수 형태변형에서 자세히 다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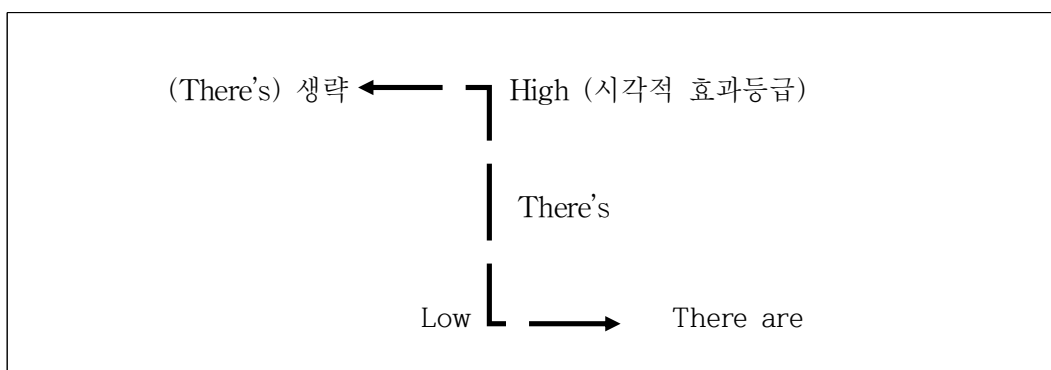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그 필통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 필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관한 것이다.

- (68) How many erasers and pencils do you guess are in the pencil case?
- a. (Maybe...) Seven pencils and two erasers.
  - b. I guess... there are seven pencils and two erasers.
  - c. ?I guess there's seven pencils and two erasers.

그리고 *do you guess*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그 필통 안에 있는 개체에 대해 시각적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필통 안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낮은 상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화자는 신중을 기해 자신의 추측에 의한 정보를 초점으로 도입해야한다. 이런 경우 명제를 새롭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때문에 *There's*의 선택보다 *There are*의 선택이 자연스럽다.

<그림 16>는 TC구문의 세 가지 유형인 (*There's*) 생략과 *There's* 그리고 *There are*의 형태변형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 시각적 효과 등급과 TC구문의 세 가지 유형의 형태변형

<그림 16>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높을수록 화제 공유등급이 높아져 도

입할 개체를 구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There's) 생략 또는 There's 유형의 문장으로 구사되며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 낮을수록 화제 공유상태의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 대상을 구정보로 인식하지 않고 신정보 도입을 위한 신중성이 반영된 비축약형 There are 유형의 구문을 구사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라 TC의 세 가지 유형의 형태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

#### 4.3.4 기타 제약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이용하여 규범문법에서 TC의 과거형에 대하여 be 동사와 There의 축약형이 허용되지 않는 규칙에 대한 이유 설명도 가능하다. 다음은 TC의 본동사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69) a. There were → \*There're

b. There was → \*There's

(69)를 시각적 효과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시각적 효과의 작용 기준은 담화가 발생하고 전개되는 당시의 배경이나 환경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여부에 있다. 그리고 앞서 <그림 16>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TC의 세 가지 유형의 형태변형에서 시각적 효과 작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There's) 생략 현상이 나타나고 낮을수록 There are 유형의 문장을 구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은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에 가시성이 없는 특색을 지니므로 시각적 효과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며,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는 상기 작용에 의한 언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을 전개하는 TC는 도입되는 명제가 시각적 효과의 무등급으로 분류되게 한다. 따라서 과거시제에 대해 축약형 There's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표 24>는 TC의 be동사 과거형이 축약형으로 쓰이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24> be동사 과거형의 축약형 제약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구 분	시각적 효과	비고
There were	무작용	*There're
There was	무작용	*There's

지금까지 4장 3절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따른 TC의 수 형태변형에서는 시각적 효과등급을 이용하여 통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TC의 수 형태변형을 설명하였다. 4장 4절에서는 개체에 대한 화자의 개념이나 개념 공유 상태가 TC의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증하기로 하겠다.

#### 4.4 개체에 대한 개념과 수 형태변형

본 절에서는 개체에 대한 화자의 개념과 TC의 수 형태변형의 관계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통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은 본동사에 근접한 명사구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된 것임을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TC의 형태변형의 원인을 논하는데 있어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개체에 대한 개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데 의의를 둔다. 먼저 TC의 수일치에는 개체에 대한 수 개념이 반영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4.4.1 의미적 수 개념 제시

TC의 수 변형형태의 또 다른 현상은 규범문법의 주어-동사 수일치 규칙과 근접성의 원리를 위반하여 쓰이는 축약형 There's이다. TC에서는 동사 뒤에 동반되는 명사의 수에 상관없이 축약형으로 There's만이 허용되며, 동사 뒤에 동반되는 명사의 수가 복수일 지라도 축약형 There're의 사용은 비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축약형 There's의 수일치 처리 문제는 기본 규칙인 구조적 일치로도 설명되지 않으며 근접성 원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TC의 수일치는 명제에 대한 의미적 수일치를 반영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 (70) a. There's a man/men in the room.
- b. There's two boys and a girl/ a girl and two boys in the room.
- c. \*There're a man/men in the room.
- d. \*There're two boys and a girl / a girl and two boys in the room.

주어-동사 일치는 크게 구조적 일치와 의미적 일치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일치는 단순히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문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말하며, 의미적 일치는 단순한 문법적 수일치에서 벗어나 주어자리에 위치해 있는 명사구의

의미적 수 개념이 고려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Bock(1995)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언어적 특징에 의해 영어를 구사하는 화자들은 수일치 면에서 구조적 일치를 따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어에서의 수일치는 의미적 처리와도 관련이 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 4.4.2 집단명사의 의미적 수

TC에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구문에서 개체의 수 개념이 반영된 경우를 살펴보자. 개체에 대한 수 개념이 반영된 의미적 수일치의 반영은 집합명사주어-대명사의 처리에서도 볼 수 있다.

- (71) a. Piguénit's family also had *its* troubles on the land.  
 b. The family had *their* icons behind other pictures during the most difficult times.

(71)의 두 예문에는 family라는 같은 명제가 주어로 위치되어 있다. 하지만 (71a)에서는 그것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its*가 사용되어 단수취급 되고 있으며 (71b)에서는 *their*가 사용되어 복수취급 되고 있다. 이것은 *Piguénit's family*와 *The family*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Levin(2001)은 대명사에 대해 Corbett(1979, 1983)의 일치위계(Agreement Hierarchy)를 따라, 수일치 시킬 대상(target)이 그것의 통제자(controller)에서 멀리 있을수록 통사적 일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아래 (72)가 그것의 예라 할 수 있다.

- (72) The labor party *is* worse than the Conservatives, *aren't they*?  
 (syntactic) (semantic or notional)  
 (Kim & Park, 2014)

(72)에서 주어 *the labor party*를 후행하는 동사는 주어의 형태상의 수에 일치시켜 단수동사 *is*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문장의 마

무리 단계에서는 복수동사 *aren't*가 위치해 있다. 그 집합명사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복수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사와 명사의 수를 일치 시키는데 있어 단순한 통사적 일치뿐만 아니라 수를 일치 시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또는 개념적 수 개념이 반영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제에 대한 수적 개념에 따른 수일치 차이는 집합명사에 대한 British English(BrE)와 American English(AmE)의 주어-동사 처리에서도 나타난다. BrE에서 동사의 수일치는 복수일치를 선호하는 반면 AmE는 단수일치를 선호한다. Quirk et al.(1985)는 “AmE는 일반적으로 집합명사에 대해 단수 취급한다.”고 하였고, Algeo(1988: 1-31)는 “BrE는 집합명사에 대해 복수 동사를 아주 선호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집합명사에 대해 서로 다른 수일치 패턴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수적 의미가 반영된 개념적 일치(notional concord)의 차이에 있다. Levin(1999: 21-33)은 “단수 형태는 한 집합명사가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었을 때 쓰이며, 복수 형태는 화자가 각각의 구성원들을 고려할 때 쓰인다.”고 한 바 있으며, 그래서 Poutsma(1914)는 *army, force, nation*과 같이 많은 개개인을 포괄하는 집합명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구성된 독립체(unitary entities)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board, family, government, council*과 같이 적은 수로 구성된 집합에 대해서는 그 집합 자체 보다 그러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복수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언어에도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며 개체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 역시 구사하는 문장 형태에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반면, Levin(2001, 2006)은 BrE에서 집합명사에 대한 주어-동사 일치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일치를 보이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동사의 단·복수의 선택은 자율적이므로, BrE에서 집합명사에 대한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의미적 또는 화용적 맥락이 아니라 그러한 명사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집합명사에 대한 수일치를 개인적 선호도로 치부하는 것으로, 가끔 같은 명제에 대해 동사를 단수처리하기도 하고 복수처리하기도 하는 현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집단명사에 대한 수일치는 그 명제에 대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수 개념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 4.4.3 의미적 수 개념과 수 형태변형

명사구에 오는 개체에 대해 화자가 갖고 있는 수 개념은 TC에서도 마찬가지로이며, 그것을 선행하는 be동사의 형태변형으로 나타난다. 아래 예문의 TC들은 일종의 집합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73a)와 (73b)는 각각 단수 형태의 명제 *the usual crowd*와 *every flavor of ice cream*에 대해 복수 동사를 취하고 있다.

(73) a. There were the usual crowd at the bar.

b. There were every flavor of ice cream for sale.

(McNally, 1997)

위의 예문을 앞서 언급한 Poutsma(1914)의 관점을 반영해 해석해 보자. (73a)는 ‘그 술집에는 보통 오는 손님들이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그래서 *the usual crowd*는 ‘자주 그 술집을 찾는 손님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의 손님들의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73b)은 ‘판매되는 모든 맛의 아이스크림들이 있었다.’라고 해석되며, *every flavor of ice cream*은 ‘보통 판매되는 맛의 모든 아이스크림 종류’라는 의미로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스크림의 맛 종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were*를 선택해 각각의 맛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사구 *the usual crowd*와 *every flavor of ice cream*은 형태상으로는 단수형을 취하지만 복수동사 *were*를 선택하여 화자가 그것들에 대해 갖고 있는 수 개념은 ‘손님들’과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들’이라는 복수의 의미임을 전달하고 있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수 형태에 반영된다는 점은 COC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아도 쉽게 확인가능하다.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복수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이다. 그러므로 복수 동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수동사를 취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드물지만 발생한다. <표 25>은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는 수량형용사 *some, a lot of, any*의 수식을 받는 *some people, a lot of people, any people*의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에 대해 단수동사 *is*를 취하는 경우와 복수동사 *are*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 COCA에서 검색된 문항의 수를 수치로 나타낸 결과이다.

<표 25> There is/are some/a lot of/any people의 문항 수(COCA 검색)

구 분	건 수	
a. There are some people	758	
b. There is some people	6	
c. There are a lot of people	1421	
d. There is a lot of people	31	
e. There are any people	6	
f. There is any people	0	

<표 25>에서 <표 25, b>와 <표 25, d>는 be동사를 후행하는 명사구(some people과 a lot of)에 대해 단수형 is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COCA에서 검색된 예문들이다.

(74) *There is some people* who work on find(ph) in different shops, different malls.

(CNN: CNN's Amanpour)

(75) You know *there is some people* who say well you know they are using this as a political football if...

(CNN: CNN's Amanpour)

(76) It's really widespread. That *there is some people*-he wears no man's collar.

(PBS: PBS Newshour)

(77) *There is some people* who think that after the double digit growth we've already seem for China.

(CNN\_Money)



(78) In Europe, *there is some people* who deny the reality...  
(CNN\_Q&A)

(79) At this point, *there is some people* who belief that your controversial role in..  
(CNN\_Moneyline)

(80) I am glad that *there is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are trying to repost the message.  
(2015 SPOK CNN: (--) ABC)

(81) I know *there is a lot of people* that boarded up and stayed.  
(2004 SPOK CNN\_Daybreak ABC)

(82) I think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have the same problem I had, he told the standing  
(2007 NEWS Houston ABC)

(83) Especially when *there is a lot of people* overseas that don't have a roof to live under. They do  
(2001 SPOK Ind\_Oprah ABC)

(84) And now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want to turn that around. I think that would be a ...  
(2000 SPOK CNN\_King ABC)

(85) And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are not prepared to accept that she has gone, and that...  
(2004 SPOK CNN\_King ABC)

(86) I absolutely agree with you on that, and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would want to hook up and they do not want to take...

(2014 SPOK CNN: Dr. Drew ABC)

(87)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are being paid for nothing.

(2002 SPOK NPR\_ATCW ABC)

(88)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don't end up there. You know...

(2014 SPOK Fox: The Five ABC)

(89) *There is a lot of people* that want to learn a lot about Barack Obama right now.

(2008 SPOK Fox\_HC ABC)

(90) I saw on Twitter too, Dr. Drew. *There is a lot of people* think that we are demeaning racism...

(2015 SPOK CNN: Dr. Drew ABC)

(91) But you put out new music from the Beatles,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are going to come and buy that...

(2003 SPOK Fox\_Gibson ABC)

(92) over the last few years have come to, including like -- *there is a lot of people*...

(2013 SPOK Fox: The Five ABC)

(93) I think that *there is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John, who clearly are weary of the war

(2006 SPOK Fox\_Gibson ABC)

(94) And, you know, *there is a lot of people*. And there is a lot of different moving parts.

(2016 SPOK Fox: Tucker Carlson Tonight ABC)

(95) We can say this, but thankfully,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get disgusted by it, conservative or not. And so right

(2013 SPOK NPR: Talk Of The Nation ABC)

(96) We said you know,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go there...

(2014 SPOK Fox: On The Record: Susteren ABC)

(97) And I mean, *there is a lot of people* not doing the same thing, but sort of in the...

(2013 SPOK CBS: This Morning ABC)

(98) But, the message today, is that if *there is a lot of people* like us out there doing this, both in the scientific point of

(2013 SPOK Fox: On The Record: Susteren ABC)

(99) What do you do, but it's -- *there is a lot of people* aching tonight, still waiting. I know so many people who are

(2010 SPOK CNN\_Misc ABC)

(100) *There is a lot of people's lives* on the line if these things are...

(2012 SPOK NPR: Fresh Air ABC)

(101) It appears to be going, *there is a lot of people* saying, just change, do something different, and now it's

(2003 SPOK CNN\_King ABC)

(102) Ten thousand, wow! So, *there is a lot of people*. Here's what strikes me. Austria and Hungary are 64-65 percents ...

(2017 SPOK Fox: The Five ABC)

(103) OK, Ronnie. Thanks for calling. *There is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science and spirituality, God, these days. I mean

(1999 SPOK NPR\_Science ABC)

(104) I think.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think businessmen create businesses which create jobs.

(2012 SPOK ABC\_ThisWeek ABC)

(105) I mean,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want to see that.

(2007 SPOK ABC\_ThisWeek ABC)

(106) And *there is a lot of people* and a lot of resources in the federal government.

(2010 SPOK CNN\_JohnKing ABC)

(107) How many folks are inside? *There is a lot of people* inside.

(2014 SPOK CNN: CNN Tonight ABC)

(108) *There is a lot of problems* to be solved.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would like to leave.

(1990 SPOK ABC\_Nightline ABC)

(109)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live up here, Martha, and not just those homes too. ...

(2008 SPOK Fox\_News ABC)

(110) Only in South Carolina, but all around the country, and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are sighing relief, and I feel great, and I'm  
(2000 SPOK CNN\_SunMorn ABC)

위 예문에서 복수명사 *some people, a lot of people*에 대해 단수동사 *is*를 취하는 TC가 드물지만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some people*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문장들 또한 COCA에서 검색된 것으로서, 복수명사구에 대해 단수동사 *is*를 취하는 TC의 예이다.

(111) COSTELLO: What did they say?

HAMDAN: Well, one party talking, and it seemed *there is many people* in this side talking to one, another individual telling him exactly in Arabic, which I'm going to say it in English, of course,...

(112) He's been arrested. He's this Kennedy cousin. *There is books, there's movies, there's a lot of spin, a lot of disinformation*, and no one really knows the story. The jury trial will expose the evidence to the public.

그러므로 TC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사구에 오는 개체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체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다음은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취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이다.

#### 4.4.4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한 수 형태변형

명사구의 의미적 수 개념에 따른 수 형태변형은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

를 명제로 취하는 TC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TC의 수 일치에서 근접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문장이 가끔 발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Milsark(1974)이 제시한 예문이며, 또한 이 문장의 근접성원리 위반현상은 아직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113) \*?*There are a school and two hospitals in Roxbury.*

(Milsark, 1974)

위 (113)의 예문은 근접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어야 한다.

(114) a. *There is a school and two hospitals in Roxbury.*

b. *There's a school and two hospitals in Roxbury.*

그렇다면 *a school and a hospital*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명제에 대해 지닐 수 있는 화자의 수 개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26>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해 가능한 수 개념

분류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개념	수 개념
A	NP and NP / (각각의 명제가 통합된 하나의 unit으로 간주)	단수
B	NP / and NP (각각의 명제를 각각의 다른 구성원으로 간주)	복수
C	NP / and NP (근접한 명사구에 대한 의미적 수 개념반영)	단수 또는 복수

만약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해 분류 A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제에 대하여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단수 동사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분류 B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는 각각의 다른 구성원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복수 동사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분류 C는 근접성의 원리를 따라 본동사와 가까운 명사구의 수에 일치시키기는 하나, 그 명사구의 형태적 수일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구에 대한 수에 대한 개념적 일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 C의 경우는 본동사에 근접한 명사구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에 따라 단수 동사를 취할 수도 있고 복수 동사를 취할 수도 있다. 즉 형태적으로 근접한 명사구의 수가 복수를 취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에 따라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취할 수도 있고, 근접한 명사구의 수가 형태적으로 단수를 취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에 따라 복수 동사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분류 C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취하는 TC에서 동사에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되어 수 형태변형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COCA에서 검색된 예문들이다.

(115) ... to be left to private contract and renegotiation. To be sure, *there are information and other transaction costs* that impede the optimal arrangement just as they do in other...

(2017 ACAD The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ABC)

(116) In the first part *there are information* about sex, seniority, graduation and Classroom Management course.

(2010 ACAD Education ABC)

(117) If there -- *if there are information and facts* that show that there's wrongdoing, that's a different matter.

(1995 SPOK Ind\_Geraldo ABC)

(118) ... lived in a neighborhood where you have lived in poverty and *there is guns and violence* going on around you and you...

(Date 2005 (20050223) Title Tavis 20050223 Source SPOK: PBS\_Tavis)

(115)의 *there are information and other transaction costs*, (116)의 *there are information about sex, seniority, graduation and Classroom Management course*와 (117)의 *there are information and facts*에서 모두 본동사에 근접한 명사구는 *information*으로 불가산명사이다. 그러므로 단수동사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동사 *are*가 위치해 있다. 이것은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각각의 명제를 각각의 다른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표 26>의 B의 경우에 속하거나, 근접하고 있는 명사구 *information*에 대한 개념적 수에 일치시킨 <표 26>의 C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18)의 경우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 *guns and violence*에 대해 동사에 근접하고 있는 명사구가 복수(*guns*)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동사 *is*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guns and violence*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거나, 근접한 명사구 *guns*에 대한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26>의 분류 A나 분류 C에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분류 C에 해당되므로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고 있는 TC에 대해 본동사에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명사구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근접성의 원리를 따르기는 하나 형태상의 수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접한 첫 번째 명사구에 대한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되어 TC의 수 형태변형이 발생될 수 있다. 이제 통사적 수일치와 근접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113)의 TC인 *There are a school and two hospitals in Roxbury*에서 복수동사가 쓰이는 이유는 명제(*a school*)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수 일치에 대해서도 명제에 대한 수 개념이 반영되며, 때문에 근접성의 원리에 어긋나더라도 정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취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에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체에 대한 수 개념이 반영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TC의 수 형태변형에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한정성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구문에 관한 것이다.



## 4.5 한정성 명사구 쓰임에 대한 설명

본 장에서는 앞서 통사적으로 해결되지 문제로 제시되었던 TC의 두 가지 사항 중의 하나인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쓰이는 것도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반영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TC의 성질에 대해 Milsark(1977: 4)이 제시한 TC에 대한 한정성 제약에 따르면 한정명사구, 고유명사, 대명사, 범용한정사를 동반하는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된 TC는 비문으로 간주 된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정성 명사구가 TC의 명제로 도입되어 사용되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포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 형태변형의 준언어적 주요 요소를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에 두고 있으며<sup>21)</sup>, 그러한 요인들이 개체에 대해 청자와의 화제 공유상태를 발생시켜 TC의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한정성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의 형태변형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적 공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TC의 한정성 명사구의 쓰임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 4.5.1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의한 설명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의한 한정성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에 대한 설명이다. 제 4장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영향적 요소로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정보성의 차이<sup>22)</sup>를 들었다. 추상적인 개체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림 12>에서 추상적 개체의 비가시성으로 명제가 문두로 도치된 구문 형태변형이 비문이 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으로 구정보로 인식되어 화제의 지위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화 당시의 가시성이 없는 추상적 개체는 선행 발화에서 언

20) <표 1> TC구문의 한정성 제약에 포함되는 명사구 유형 참조.

21) <표 11> 구문 형태변형의 준언어적 주요 요소 참조.

22) <표 15> 시각적 효과의 영향적 요소(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 참조.

급된 적이 없는 한 신정보의 성격을 지닌다. 어떠한 개체가 추상적 성질을 지닌다는 것은 추상적 명사와 같이 단어 형태상의 추상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의 추상적 성질을 말한다. 다음은 형태상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개체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비문으로 간주되는 문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오희정(2007)이 제시한 예문들이다.

(119) There are *all* sorts of variations on term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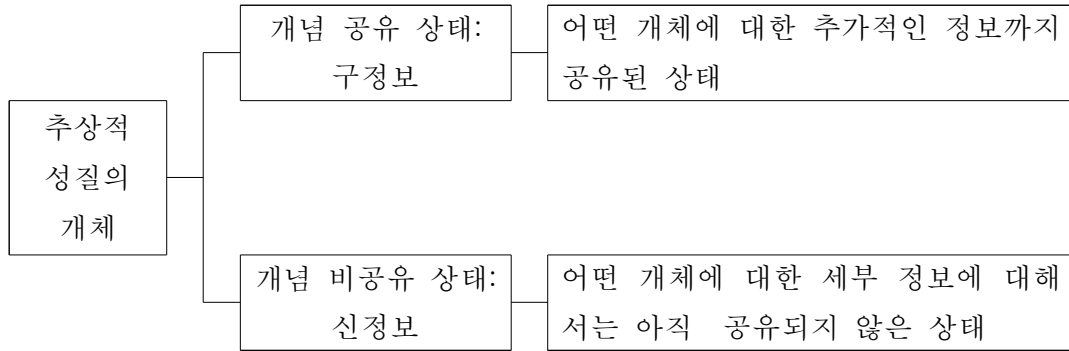
(120) There'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over the next several years demand will continue for...

(119), (120)의 TC는 한정성 제약에서 제약하고 있는 *all*, *every*를 동반하는 한정성을 가진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정문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오희정(2007)은 (119)과 (120)의 경우 *all*과 *every*가 지니는 의미는 범위가 정해진 개체를 지시하는 ‘모두’라는 의미의 특정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는 각각 ‘많은’, ‘충분한’의 의미이며, 명사구 *all sorts*, *every reason*는 각각 ‘많은 종류’, ‘충분한 이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지시하는 개체는 의미상 추상적이다. 다시 말해, *all sorts*와 *every reason*이 지시하는 의미의 추상적 성질로 인해 추상적 개체로 분류되고, 신정보로서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있다.

#### 4.5.2 개체에 대한 개념에 의한 설명

어떤 개체가 추상적 성질을 지닌다는 그 개체에 대한 개념적 (비)공유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설령 선행 발화에서 어떠한 개체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청자와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자에게는 아직 그 개체에 대한 추상적 성질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 성질의 개체는 <그림 17>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개념 공유 상태와 개념 비공유 상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개념적 공유 상태는 도입하고자 하는 개체에 대

한 추가적인 정보까지 청자와 공유된 상태를 말하며, 반면에 개념적 비공유 상태는 어떠한 개체에 대한 주변 정보를 아직 공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자는 구정보로 후자는 신정보로 인식된다.



<그림 17> 개념 (비)공유에 의한 추상적 개체의 분류

다음의 예문을 보자. 다음은 Ward와 Birner(1995: 730)가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있는 한정성 명사구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후치수식을 받는 청자신정보 형태의 명사구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문이다.

(121) The deputies waved him on as he hurried past, not bothering to look inside his sack. “I think there is alertness now,” said Fulton Police Chief George Coleman,....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someone can find ways around security.*

(Ward & Birner, 1995)

위 (121)의 TC에서 도입되는 명제는 앞서 언급된 적이 없는 데도 한정사 *the* 를 동반한 한정명사구(*the possibility*)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특히 *that*을 동반하여 후치수식(*identifying description*)을 받을 경우 한정성 명사구가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있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고려한 분석으로는 *the possibility*는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에 속하며 신정보성을 지닌다. 그리고 추상적 성질을 지닌개

체에 대한 개념적 (비)공유를 고려한 분석으로도 (121)의 *the possibility*와 *that* 이하의 정보와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정보로서 TC의 명제로 도입 될 수 있다. 그러므로 TC에 한정성 명사구가 쓰이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에는 한정성 명사구의 쓰임이 아니라 그 명제에 대한 개념적 공유상태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상 추상적 성질을 지닌 명제에 대해 개념적 공유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Quirk et al.(1972)이 한정사 The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과 근본적 의미를 같이 한다. 그는 한정사 The에 대해 어떤 개체에 대해 청자와 이미 공유하고 있을 때 쓰이는 The와 발화가 될 때 까지 청자는 알고 있지 않는 개체를 나타내는 The로 구분하였다. 아래 (122)의 TC도 *The*를 동반하는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형태상 한정성 제약을 위반하지만 정문으로 쓰이는 구문이다.

(122) In Kittredge's latest book there is *the* claim that syntactic structure is inferrable from pragmatic principles.

(122)에서 *the claim*은 형태상 한정성을 지닌 명사구에 속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니는 개념적 속성을 보았을 때 화자에 의해서 발화되기 전까지는 청자와 그 주장에 대한 개념적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청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의 내용을 나타내는 *that* 이하의 정보에 대해 아직 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적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념적 추상성을 지닌 추상적 개체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신정보로서 TC의 명제의 자리에 위치해 정문으로 쓰일 수 있다.

아래 (123), (124), (125)의 예문에서도 명사구 *the traditional sessions*, *the usual crowd*, *the funds necessary*, *that problem*을 명제로 도입하고 있으며, 모두 한정사 the나 지시어 that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상 청자에게 이미 익숙한 정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명사를 수식해 주는 수식어인 *traditional*, *usual*, *necessary*의 의미에서도 이미 청자에게 익숙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정보로 간주되어 비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문으로 쓰이고 있다.

(123) There will be *the traditional sessions* to do problems in comparative reconstruction this town.

(124) There was *the usual crowd* at the beach today.

(Prince, 1981)

(125) There weren't *the funds* necessary for the project.

(Bolinger, 1977)

(126) There was never *that problem* in America.

(Rando & Napoli, 1978)

하지만, Ward와 Birner(1998)에 의하면 청자에서 각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그 지시대상이 명사구를 후행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록 한정사를 동반하는 명사구의 형태를 보일 지라도 신정보로서 TC에 쓰일 수 있다.

결국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명제에 대한 개념이 한정명사구를 동반하는 TC나 TC의 수 형태변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TC의 형태변형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담화 발생 당시의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4장 먼저 담화 당시의 개체에 대한 가시성의 차이가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의 차이를 낳고, 시각적 효과와의 작용에 따른 정보량의 차이로 TC구문의 (There's) 생략, There's, There are 세 가지 유형의 형태변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항을 고찰하였다.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소로 단어나 전치사 자체의 의미적 성질,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가시성에 의한 정보량의 차이, 개체의 수량 등을 들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TC의 형태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의 수 형태변형은 본동사에 근접한 명사구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되어 동사의 수 형태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

다. 그리고 개체에 대한 개념을 고려한 분석으로 형태상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된 TC가 정문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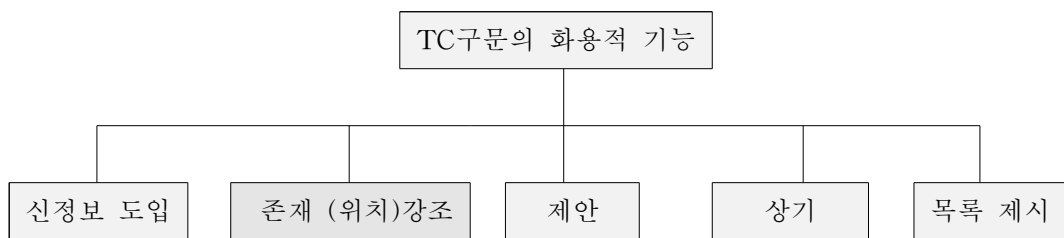
제 5장은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이다.

## V.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제 5장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고려될 경우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에 관한 내용이다.

### 5.1 화용적 기능과 변형

TC의 화용적 기능은 신정보 도입, 개체의 존재(위치)강조, 제안, 상기, 목록제시의 화용적 기능들로 세분화 된다. <그림 18>은 지금까지 분류된 TC의 화용적 기능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림 18> TC의 화용적 기능 분류

이러한 분류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구분은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박기태(1999)를 비롯한 화용적 관점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은 한정명사구를 취하는 TC를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하여 TC에 한정명사구의 쓰이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때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판단의 기준을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에 둔다. 하지만 문장의 정보성은 단지 문자나 발화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준언어적 요소인 시각적 효과의 작용도 개체에 대한 정보성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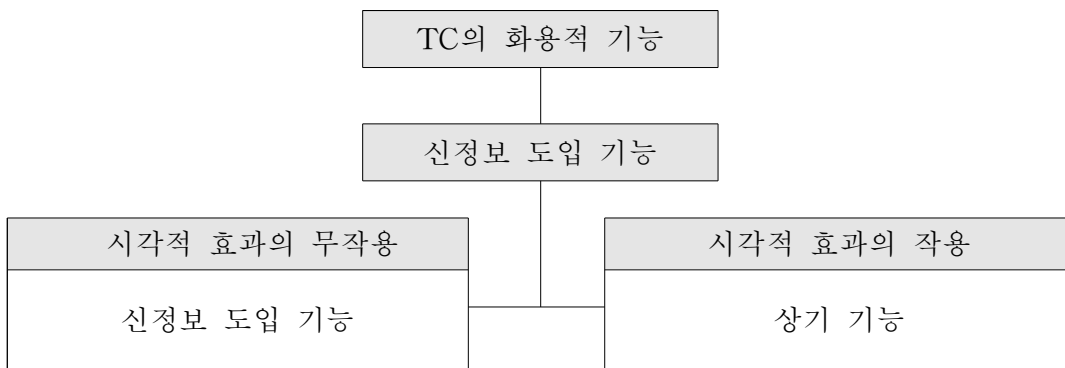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고려되어졌을 때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이 달라져 정보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개체에 대한 가시성을 기준으로 구정보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적이 없고 비록 비한정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이미 구정보로 인식되어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다.

사실상 TC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한정성 제약을 위반하면서도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가 정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화용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때문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고려되었을 경우의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통사적으로 비문으로 간주되는 한정성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 유형들이 정문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TC의 화용적 기능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반영할 경우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 5.2 신정보 도입 기능의 변형

선행 발화 여부를 기준으로 정보성을 분류하는 방식에서는 선행 발화가 된 적이 없고 새롭게 도입되는 정보는 신정보로 간주되어 비 한정명사구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체를 도입하는 명제로 도입하는 TC의 화용적 기능은 신정보 도입기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반영한 TC 분석에서 신정보의 기준은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뿐만 아니라 담화 당시에 개체에 대한 (비)가시성에 있다. 때문에 일반적 분석에 의해서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로 분류되었던 것이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서는 상기의 기능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기능의 변형을 나타낸다.



<그림 19> 신정보 도입 기능 TC구문의 기능변형

지금부터 TC의 화용적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고려된 경우의 신정보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 5.2.1 신정보의 기준

화자는 청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하면서 담화를 전개한다. 이때 청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구정보라 하고, 화자가 청자에게 새롭게 보태는 정보를 신정보라 한다. 다시 말해 화자가 발화할 시점에 청자의 의식 속에 이미 들어있는 정

보를 구정보라 칭하고 청자의 의식 속에 들어있지 않은 정보를 신정보라 한다. 이때 화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맥락을 통해서 청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지식이면 그것은 구정보에 해당한다. 담화가 발생하는 준언어적 요소인 시각, 후각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과 명제에 대한 개념적 공유상 태도 담화의 맥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체에 대한 정보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즉 담화의 맥락에 대한 이해나 정보성은 꼭 화자나 청자의 발화에 의해서 표현된 문장을 바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체가 청자에게 신정보로 인식이 되려면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그 개체에 대해 청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청자와 화자가 전혀 그 정보에 대해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그러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화자와 청자 사이에 개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를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라 칭한다. 즉 신정보의 기준은 청자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 즉 <표 2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자와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에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표 27>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와 신정보의 기준

구 분	기 준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상이 되는 개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
신정보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에 있는 정보

문장은 구정보-신정보의 구조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를 먼저 발화하여 청자로 하여금 신정보를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자를 배려하는 의식적 행동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담화 당시에 화자가 판단하기에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라고 가정이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될 개체를 본동사 뒤로 후치시켜 전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TC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될 개체를 본동사 뒤로 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화용론자들은 이러한 TC의 기능을 신정보 도입 기능으로 분류시켰다.

### 5.2.2 신정보 도입 기능의 쓰임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는 주로 이야기의 시작 단계에서 새롭게 도입될 개체를 소개할 때 나타난다. (127)는 TC를 이용해 an old mother pig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127) Once upon a time, there was an old mother pig who had three little pigs and not enough food to feed them.

(127)의 예문은 이야기의 도입 부분이다. 그러므로 개체에 대한 화자의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에 해당된다. (127)의 문장이 발화되기 전까지는 화자와 청자는 개체에 대해 공유된 개념도 없어 구정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TC의 형태변형이 초래될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7)에서도 비축약형(There was)으로 개체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완전 화제 비공유 상태에서의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는 형태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5.2.3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신정보 도입 기능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기준으로 한 해석에서는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에서도 형태변형은 발생된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의한 정보구조의 변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버스 한 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어’라는 정보를 아래와 같은 문장 구사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자. (128)은 비한정명사구를 이용한 문장이고, (129)는 한정명사구를 이용한 경우이다.

(128) a. There is *a bus* coming.  
b. *A bus* is coming.

(129) a. There is *the bus* coming.  
b. *The bus* is coming.

두 경우에 각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공유한 경우와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 즉 시각적 효과의 작용 상태인 경우와 시각적 효과 무작용 상태인 경우로 나누어 정보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고, 각 구문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설명해 보자.

먼저, 비한정 명사구를 사용한 (128)의 경우이다.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의 관점에 따르면 문두에 구정보인 화제가 위치해야 한다. Reinhart(1981)와 Erteschik-Shir(1997)는 한 문장은 화제 X에 대한 진술이며,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128a)와 (128b)는 모두 비한정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고 있다. 통사적으로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할 때 비한정 명사구를 취한다. 그러므로 두 문장은 모두 화제를 포함하지 않는 구문이 된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128)의 예문도 화제가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 만약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버스 한 대가 오고 있는 현장을 화자와 청자 모두 목격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에 *a bus coming*은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128)의 예문은 비한정 명사구를 도입하고 있지만 모두 화제를 포함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경우 (128a)는 단지 청자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8>은 비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는 TC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경우의 정보구조와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나타낸다.

<표 28> 비한정 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한 TC 화용적 기능(시각적 효과 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화
	비한정 명사구	서술어	
There + 존재동사	구정보	구정보	상기 기능
ex) There is <u>a bus coming</u> . (구정보) (구정보)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청자와 시각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한정 명사구의 쓰임도 구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TC의 화용적 기능면에서는 비한정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더라도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은 한정 명사구를 취하는 경우이다. 우선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상태를 설명해 보자. 한정 명사구를 취한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정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한 (129a)는 화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버스가 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초점은 *the bus*가 아니라 그것을 후행하는 서술어 *coming*이 된다. 그러므로 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는 (129)의 예문은 기존의 구정보-신정보에 의한 분석에 따라 *the bus*는 구정보이며 후행하는 *coming*은 신정보로 간주하여 신정보 도입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Lambrecht(1996: 223)이 제시한 세 가지의 초점구조<sup>23)</sup> 중의 하나인 문장-초점구조로도 분류될 수도 있다. <표 29>은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서 한정 명사구를 취하는 TC와 일반구문에서의 명사구를 후행하는 서술어의 기능이 신정보로 인식이 되어 TC의 신정보 도입 기능이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23) Lambrecht(1996: 223)은 초점의 기준을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그 기준을 언급여부에 두지 않고 담화 내 복원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초점구조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a. 서술어-초점 구조(predicate-focus structure)

A: What happened to your car?

B: My car/It broke DOWN.

b. 논항-초점 구조(argument-focus structure)

A: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B: My CAR broke down.

c. 문장-초점 구조(sentence-focus structure)

A: What happened?

B: My CAR broke down.

<표 29> 한정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한 TC의 화용적 기능

(시각적 효과 무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한정 명사구	서술어	
There +존재동사	구정보	신정보	신정보 도입 기능 (서술어-초점구조)
ex) There is <u>the bus</u> <u>coming</u> . (구정보) (신정보)			

일반구문 유형인 (129b)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신정보 도입의 화용적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30> 한정명사구를 문두에 취하는 일반구문의 화용적 기능

(시각적 효과 무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일반구문의 화용적 기능 변화
	한정 명사구	서술어	
일반구문	구정보	신정보	신정보 도입 기능 (서술어-초점구조)
ex) <u>The bus</u> is <u>coming</u> . (구정보) (신정보)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경우를 설명해 보자. (129)의 문장은 한정명사구를 취하고 있다. 한정명사구를 이용한 *the bus*를 도입했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며 그것은 청자에게도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만약 그 버스가 오는 모습을 청자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상황 즉 시각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화가 되기 전에 그 명제를 후행하는 *coming*도 이미 청자에게 구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비한정명사구가 도입된 (128)의 경우와 별 차이 없이 (129a)도 청자의 인지를 확인하려는 TC의 상기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구문을 이용한 (129b)에서도 시각적 효과에 대한 공유로 인해 명제(*the bus*)와 술어(*coming*)가 모두 구정보로 인식되며, 그 정보에 대한 청자의 인식을 확인하려는 상기 기능의

일반구문으로 분류된다. <표 31>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는 TC가 상기 기능의 화용적 기능을 지니게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표 31> 한정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화용적 기능  
(시각적 효과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한정 명사구	서술어	
There + 존재동사	구정보	구정보	상기 기능
ex) There is <u>the bus coming</u> . (구정보) (구정보)			

그리고 <표 32>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는 일반구문도 상기 기능의 화용적 기능을 지니게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표 32> 한정명사구를 문두에 취하는 일반구문의 화용적 기능  
(시각적 효과 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일반구문의 화용적 기능 변형
	한정 명사구	서술어	
일반구문	구정보	구정보	상기 기능
ex) <u>The bus is coming</u> . (구정보) (구정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the bus coming* 자체가 구정보가 되기 때문에 구정보-구정보의 정보구조를 형성하여 일반구문이나 TC에서 상기 기능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문미에 신정보를 도입한다는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와는 다르게 구정보-구정보의 정보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화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장 형성의 기본적인 조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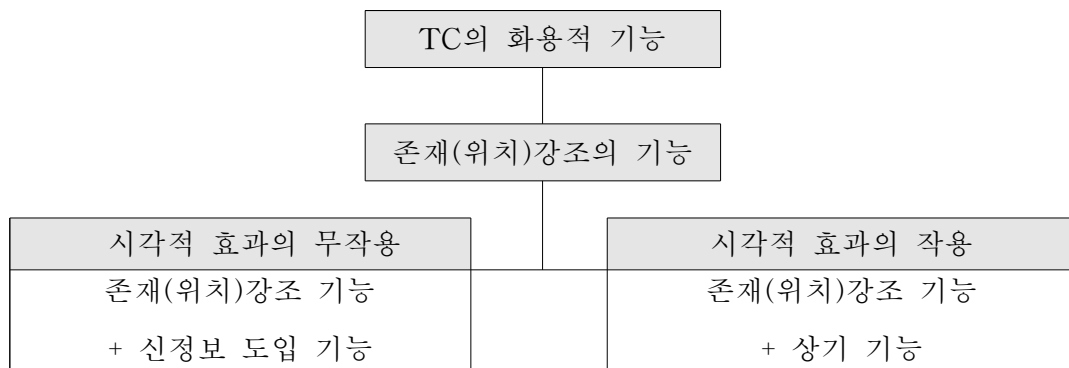
충족시킨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서는 한정 명사구를 명제로 취하더라도 정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상태에서 명사구의 형태상 한정성에 상관없이 모두 신정도 도입기능의 TC로 분류되며, 반면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 상태에서는 비한정 명사구를 도입하든 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든 모두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고려한 분석으로 한정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된 TC가 정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한정 명사구와 비한정 명사구와 같은 문장의 형태 또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TC구문이 비문 또는 정문인지 논하기 보다는, 그러한 형태변형에 대한 원인 분석에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같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준언어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 5.3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변형

TC는 어떤 개체의 존재와 그것이 존재하는 시공간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TC의 기능을 분류한 것이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이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정보구조는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정보성의 차이, 단어와 전치사 자체의 의미적 특색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다시 신정보 도입 기능이나 상기 기능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림 20>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반영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TC의 존재(위치)기능에 대한 화용적 기능 변형이다.



<그림 20>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기능 변형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화용적 기능의 변형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TC의 존재(위치)강조 기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 5.3.1 존재(위치)강조 기능

There + (단수)동사 + 명사구 + (전치사구)의 구조에서 본동사에 위치될 동사의 의미적 유형에 따라 TC의 기능이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가 위치해 있으면 어떤 개체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TC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한 기능의 TC는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로 분류된다. 어떤

개체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주로 be동사/ exist/ remain/ stay 등의 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다음은 동사를 후행하는 개체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exist/ remain/ stay의 의미로 be동사가 쓰인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이다.

- (130) a. There IS a Santa Claus.
- b. Undoubtedly, there is a God. ['God exist']
- c. There weren't cars in 1876.
- d. There must be a more direct route.

Lakoff(1987)<sup>24)</sup>와 Bolinger(1977)<sup>25)</sup>는 어떤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나 장면 또는 추상적인 장소나 장면과 연관시킨다고 하였다. TC는 이처럼 어떤 개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나 그 개체와 연관된 특정상황을 새로운 정보로 도입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개체가 존재하는 위치나 특정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TC의 문미에 있는 시공간적 장소부사에 강세를 두기도 한다. (131)의 예문은 개체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 (131) a.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table.
- b. There used to be a big tree behind the garage.
- c. There is much happiness (in this life).

하지만 Quirk et al.(1985)은 온전히 어떠한 개체의 존재적(bare existential)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지닌 TC를 존재의 기능을 가진 TC로 분류하여 제안 기능의 TC와 구분하였다. 그들은 문장의 형태로만 존재의 기능의 TC와 제안의 기

---

24) Lakoff(1987)은 존재는 여기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비존재는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5) Bolinger(1977)는 장소(location)와 존재(existence)는 연속체의 양 끝에 놓여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능의 TC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도 중점을 두어 의미적인 면에서도 순전히 어떠한 개체의 존재만을 나타내는 TC를 존재 기능의 TC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존재 기능의 TC와 제안 기능의 TC의 의미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문장이다.

(132) a. There have always been wars.

b. There have been wars (in our period of history).

(Quirk et al., 1985)

(132a)와 (132b)는 같은 형태의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132a)는 제안 기능의 TC로 분류하고 (132b)는 존재 기능의 TC로 분류시킨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132a)는 순전히 어떠한 개체의 존재를 나타내기 보다는 자연스런 담화를 이끌기 위해 *always*라는 서술적 표현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132a)는 제안 기능의 TC구문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132b)는 문미에 *in our period of history*가 생략되어 있지만 전쟁이 있어왔다는 존재적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132b)는 존재의 TC에 속한다.

하지만 아래의 (133)을 보자. (133)도 문미에 (132b)의 *in our period of history*와 같은 유형의 수식어인 *for the committee this morning*이 생략되어 있다. (133)과 같은 예문을 제안 기능의 TC로 분류시킨다.

(133) Is there another business (for the committee this morning)?

(132b)의 문미에 *in our period of history*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것은 (133)의 문미의 *for the committee this morning*이 생략된 현상과 다르다. (132b)의 경우는 문미의 수식어 즉 처소 부사구를 생략하기 전과 생략한 후에 그 문장이 의도하는 의미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133)의 경우는 문미의 수식어를 생략하기 전과 후에 그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에 차이가 보인다. 다시 말해,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자연스런 담화전개를 위한 제안 기능의 TC와는 달리 단지 어떠한 개체의 존재를 전달하는 기능의 구문을 분류한 것이다.

### 5.3.2 존재(위치)강조 TC의 정보구조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문장구조는 아래 <표 33>와 같이 There + 존재동사 + 명사구 + (전치사구)의 구조를 취한다. 그것을 정보구조로 나타내면 <표 34>에서와 같이 문미에 전치사구가 생략된 경우는 There + 존재동사 + 신정보의 구조를 취하며, 전치사구가 동반되는 경우는 그것의 정보량에 따라 There + 존재동사 + 구정보 + 신정보 또는 There + 존재동사 + 신정보 + 신정보의 구조를 형성해 문미에 신정보가 위치된다.

<표 33>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구문형태

구 분	구 문 형 태
존재기능의 TC구문	There + 존재동사 + 명사구 +(전치사구)

<표 34>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정보구조

구 분	정 보 구 조	
	명사구	전치사구
a. There + 존재동사	신정보	-
b. There + 존재동사	구정보	신정보
c. There + 존재동사	신정보	신정보

### 5.3.3 기타요소에 의한 기능 변형

하지만 이러한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정보구조는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정보성의 차이, 단어와 전치사 자체의 의미적 특색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었을 때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다시 신정보 도입 기능이나 상기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에 의한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살펴보자.

#### 5.3.3.1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

일반적 분석에 의한 정보구조에 따르면 모든 문장은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

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를 명제로 도입하는 TC의 정보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정보가 문미에 위치된다. 그렇다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적용한 분석에서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경우이다. 추상적 개체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반영될 수 없는 조건을 지닌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TC는 당연히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로 분류된다.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의 성질을 지니는 추상적 개체의 성질에 의해 그것을 명제로 취하는 문장이 신정보 도입 기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35>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화용적 기능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의한 분석)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추상적 개체	전치사구	
There + 존재동사	신정보	신정보	존재(위치)강조+
ex) There is much happiness in the world.			신정보 도입

<표 35>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정보구조와 화용적 기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There is much happiness in the world*’에서 명제인 much happiness의 추상적 성질로 인해 그 명제와 그것을 후행하는 전치사구가 *in the world*는 신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가 형성되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신정보 도입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도입하는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다시 신정보 도입 기능으로도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TC는 <그림 19>에서 언급했듯이 다시 그 개체에 대한 개념공유 상태와 개념비공유 상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한 2차 분류에서 개념비공유 상태라면 여전히 신정보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표 36>에서와 같이 There + 존재동사 + 신정보(추상적 개체) + 신정보(처소 부사구)의 정보구조를 형성해 신정보 도입기능의 TC로 분류된다.

<표 36>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화용적 기능  
(개체에 대한 개념 비공유 상태)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화
	추상적 개체	처소 부사구	
There + 존재동사	신정보	신정보	존재(위치)강조
ex) There is <i>much happiness in the world.</i>			+ 신정보 도입

하지만 추상적 개체에 대한 개념 공유 상태라는 것은 청자에게도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 *much happiness in the world*에 대한 개념이 청자와 공유된 상태라면 추상적 명제인 *much happiness*와 그것을 후행하는 전치사구인 *in the world*도 구정보로 인식되어 구정보-구정보의 정보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TC는 청자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상기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표 37>는 추상적 개체에 대한 개념 공유 상태에서 There + 존재동사 + 구정보(추상적 개체) + 구정보(처소 부사구)의 구조가 형성되어, 그러한 개체를 도입하는 존재(위치)강조의 TC가 다시 상기 기능으로도 분류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표 37> 추상적 개체를 명제로 취하는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개체에 대한 개념 공유 상태)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추상적 개체	처소 부사구	
There + 존재동사	구정보	구정보	존재(위치)강조
ex) There is <i>much happiness in the world.</i>			+ 상기 기능

그렇게 도입될 추상적 개체에 대해 개념이 공유된 조건에서는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다시 상기 기능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번에는 물질적 개체를 명제로 도입하는 경우이다. 물질적 개체도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상태에서는 구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체를 명제로 도입하는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다시 상기 기능을 지닌 TC로 분류될

수 있다. 아래의 <표 38>는 물질적 개체를 포함하는 TC에서 시각적 효과가 작용될 경우의 정보구조의 변형과 화용적 기능의 변형이다.

<표 38> 물질적 개체를 동반하는 존재(위치)강조 TC의 화용적 기능  
(시각적 효과의 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
	물질적 개체	전치사구	
There + 존재동사	구정보	구정보	존재(위치)강조
ex)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table.			+ 상기 기능

<표 38>에 제시된 예시에서 *several books on the table*은 물질적 개체로 이루어졌다. 만약 청자도 그 개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청자에게도 *several books on the table*은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TC의 정보구조는 구정보(명제)+구정보(전치사구)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때문에 이 경우 청자의 인식을 확인하려는 TC의 상기 기능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 5.3.3.2 전치사의 의미적 성질

그 개체의 존재위치를 나타내는 처소 부사구에 동반되는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 도입될 개체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무작용이 구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처소 부사구에 동반되는 전치사의 의미적 성질 자체가 그것을 선행하고 있는 개체의 가시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efore*(~앞에)는 담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입하려는 개체를 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34) Look! *There is a man before the audience.*

위 (134)의 예문에서 담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중 앞 (*before the audience*)의 상황은 청자에게 가시성이 있다. 또한 그곳에 있는 한

남자(a man)도 청자에게 한 눈에 들어오게 되며, 그 청중 앞에 있는 한 남자는 청자에게 구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전치사 before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치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nside(~안쪽에)나 behind(~뒤에)는 담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사물의 뒤나 안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곳에 존재하는 개체를 한 눈에 볼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보자.

(135) A: Can you tell me where the bus station is?

B: *There is the bus station behind the apartment.*

위 (135)의 예문에서 담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파트 뒤 (*behind the apartment*)의 상황은 청자에게 가시성이 없으며,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버스 정류소(*the bus station*)도 청자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큰 건물이 그 뒤에 있는 개체의 존재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아파트 위에 있는 버스 정류소는 청자에게 신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전치사 behind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유발하는 전치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9>은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치사의 분류의 예와 그에 따른 화용적 기능을 타나낸 것이다.

<표 39> 전치사 분류별 시각적 효과 (무)작용과 TC의 화용적 기능

구 분	시각적 효과		화용적 기능
	작용	무작용	
전치사 A	on, in front of, by before, near, at, above, ahead of...	—	상기 기능
전치사 B	—	in, inside, behind, over, beneath, back, beyond...	신정보 도입 기능



그러므로 존재(위치)강조 기능 TC의 문미에 위치한 처소 부사구에 쓰이는 전치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것을 선행하는 개체의 정보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TC가 다시 신정보 도입 기능이나 상기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아래의 (136)의 예문은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일어나는 전치사 A그룹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현상을 발생시키는 전치사 B그룹을 포함하는 처소 부사구를 문미에 취하는 TC의 예이다.

- (136) a. There are some people in front of the house.  
 b.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table.  
 c. There are several books inside the drawer.

각 (136a)의 집 앞의 사람들(*some people in front of the house*)과 (136b)의 탁자위에 있는 몇 권의 책(*several books on the table*)은 담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전치사 *in front of* 와 *on* 자체가 개체를 볼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자도 명제인 *some people*과 *several books*에 대해 화자에 의해서 언급되기 전에 이미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사구 + 전치사구는 구정보 + 구정보의 정보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가 상기 기능의 TC로도 분류될 수 있다. <표 40>은 (136a)와 (136b)의 화용적 기능을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발생하는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나타낸다.

<표 40> 존재(위치)강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전치사 A그룹)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명사구	전치사구	
전치사 A	구정보	구정보	
(136a) There are some people <i>in front of</i> the house. (136b) There are several books <i>on</i> the table.			존재(위치)강조 + 상기 기능

그러므로 A그룹의 전치사를 포함하는 전치사를 문미에 취하는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상기 기능을 지닐 수 있다.

반면에, *inside*는 그것의 의미적 성질로 특정한 개체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136c)의 경우에 그 서랍 안(*inside the drawer*)에 있는 개체(*several books*)를 한 눈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명제와 전치사구가 신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를 형성해 신정보 도입 기능을 지니게 된다. <표 41>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조건을 일으키는 전치사가 동반된 전치사구가 문미에 위치한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가 다시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41> 존재(위치)강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전치사 B그룹)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명사구	전치사구	
전치사 B	신정보	신정보	존재(위치)강조
(136c) There are several books <i>inside</i> the drawer.			+ 신정보 도입 기능

그러므로 B그룹의 전치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를 문미에 취하는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는 다시 신정보 도입 기능을 지닐 수 있다. 이처럼 처소 부사구를 형성하는 전치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적 성질 자체가 그것을 선행하는 명사구의 개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무작용에 영향을 미쳐 TC의 화용적 기능에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TC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분석에서 한정명사구와 비한정 명사구라는 형태상의 한정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작용 여부와 같이 담화가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5.3.3.3 지명의 의미적 성질

개체의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명이 지니는 의미 자체<sup>26)</sup>에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6) <표 16>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II (단어의 의미: 지명) 참조.

(137) a. There is an old lady in the darkness.

b. There is an old lady in the room.

위 (137)의 두 예문은 같은 형태상 같은 유형의 문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137)의 두 문장을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반영한 분석해 보면 (137a)에 도입되는 명제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137b)에 도입되는 명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두 문장이 다른 점은 명제인 an old lady가 존재하는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명인 darkness와 room의 차이이다. 방 안에(in the room) 어떤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시적일 수 있지만, 어떤 개체가 어둠 속에(in the darkness) 있는 경우는 가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137a)에 도입되는 명제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정보로 분류될 수 있고, 반면에 (137b)에 도입되는 명제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는 경우에 구정보로 분류된다. 때문에 화용적 기능 면에서는 (137a)는 신정보 도입기능으로 분류되고 (137b)는 상기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 4장 <표 16>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의 영향적 요소 III에서는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시공간적 지명의 예를 제시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 그룹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그룹으로 분류 시켰다. 거기에서 그룹 B는 그룹 A와는 달리 그 단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적 특색으로 인해 그것이 속해있는 전치사구를 선행하는 개체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 그룹의 단어가 속해있는 시공간적 배경을 선행하는 명제의 존재는 가시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B그룹의 단어가 속해있는 시공간적 배경을 선행하는 명제는 가시성을 받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형성되므로 신정보로 도입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서는 A 그룹이 속해 있는 TC는 상기 기능으로 B 그룹이 속해 있는 TC는 신정보 도입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적 특색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예문이 정문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138)은 Enc(1991)가 제시한 예문이다. 그는 특정성과 불특정성의 이유를 들어 한정사를 취하는 명사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것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some of the~*, *two of the~*, *any of the~*과 같은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는 비문이 된다하였다. 기존의 통사적 분석뿐만 아니라 화용적 분석에서도 (138)의 예문들은 비문으로 간주하여 그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 (138) a. \*?There are *some of the cows* in the backyard.  
 b. \*?There are *two of the cows* in the backyard.  
 c. \*?There aren't *any of the cows* in the backyard.

(Enç, 1991)

하지만, (138)과 같은 유형의 TC가 실제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표 42, a> There are *some of the~*, <표 42, b> There are *two of the~*, <표 42, c> There are *any of the~*의 사용에 대해 COCA에서 검색된 건수와 예문이다.

<표 42> COCA Movie Corpus 검색 결과

구 분	건 수
a. There are <i>some of the~</i>	21
b. There are <i>two of the~</i>	1
c. There any of the~	0

- (139) There are 1900 people going. GIFFORD: Yeah. KOTB: And *there are some of the usual suspects*, you'd expect.

( 2011 SPOK NBC\_Today ABC)

- (140) In Shark Bay and *there are some of the them* under the seas off Bermuda and various other places.

(2009 SPOK NPR\_TalkNation ABC)

(141) *There are some of the cranes out in the Big Dig, outside...*

(2000 SPOK CBS\_Morning ABC)

(142) Incident at Loch Ness be called The Enigma of Loch Ness.

And, of course, *there are some of the famous photos...* of  
Nessie, the monster.

그렇다면 (138)의 예문이 실생활에서 사실상 정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어의 의미적 특색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대한 분석을 이용해 설명해 보자. (138)의 문미에 위치한 *backyard*는 뒤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만약 담화가 한 건물 앞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 건물 뒤에 있는 뒤뜰은 가시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그곳에 존재하는 개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 뒤뜰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적 특색으로 그 곳에 존재하는 개체 대해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in the backyard*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행하는 *some of the cows, two of the cows, any of the cows*도 신정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138)의 예문은 신정보 도입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래의 <표 43>은 단어 자체의 의미적 특색이 지니게 되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반영한 정보구조 분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 43> 단어의 특색에 의한 정보구조와 TC의 기능변형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구 분	정 보 구 조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명사구	전치사구	
단어 B	신정보	신정보	존재(위치)강조 + 신정보 도입
(138a) <i>There are some of the cows in the backyard.</i>			
(138b) <i>There are two of the cows in the backyard.</i>			

이것은 또한 TC의 기능이 구정보 전달인지 신정보 도입인지 그리고 비문인지

정문인지 구분하는데 있어 명제의 형태적 한정성과 비한정성 보다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고려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TC의 화용적 기능 분석에서도 담화의 시각적 요소의 (무)작용과 같은 담화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5.4 제안 기능

TC의 제안 기능은 상세한 묘사를 위한 서술적 표현의 추가로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를 도울 수 있는 TC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담화는 문장과 문장의 연속으로 일어나며, 담화의 전개는 새로운 담화요소 즉 주제의 연속적 도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담화를 잘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장면을 청자도 이해하고 잘 그려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묘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런 담화 전개를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장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생생한 서술적 표현이 요구된다.

TC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TC에서 새로운 주제는 본동사를 후행하는 명사구를 통해 도입되며, 그러므로 동사구의 서술적 표현이나 명사구를 수식해 주는 상세한 묘사를 통해 자연스런 담화가 전개된다. 즉 서술적 표현의 추가로 도입될 개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구체화 시킨다. 예를 들어 (143)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자.

(143) a. In the cubical there was *sitting alone* a pretty young woman  
*writing a term paper*...

b. In the cubical, there was a pretty young woman.

위 (143b)의 TC는 단순히 *a pretty young woman*이 있었다는 존재적 사실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143a)는 *sitting alone*과 *writing a term paper*와 같은 서술적 표현이 추가되어 그 장면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해 담화를 돕고 있다. (143a)와 같이 서술적 표현이 추가되어 담화의 전개를 돕는 TC가 제안 기능의 TC이다.

### 5.4.1 제안 기능과 제약조건

하지만 TC의 제안 기능에는 제약조건이 발생한다. 바로 추가되는 서술적 표현의 길이의 제약이 있다. 추가된 서술적 표현을 포함한 동사구의 길이가 그것을

후행하는 서술적 표현을 포함한 명사구의 길이보다 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144) a. In the cubical *there was sitting alone a pretty young woman writing a term paper...*

b. Suddenly *there burst into the room an SS officer holding a machine gun...*

(145) a. \*In the cubicle *there was sitting alone a girl.*

b. \*Suddenly *there burst into the room a man.*

예를 들어, (144a)와 (145a)는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하지만 (144a)는 정문이고 (145a)는 비문으로 간주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그 차이는 서술적 표현의 길이에 있다. 두 문장의 동사구의 길이와 그것을 후행하고 있는 서술적 표현을 포함한 명사구의 길이를 살펴보면, (144a)에서 동사구 *was sitting alone*의 길이는 그것을 뒤따르는 명사구 *a pretty young woman writing a term paper...*의 길이 보다 짧다. 반면에 (145a)의 경우 동사구 *was sitting alone*의 길이는 명사구 *a girl*의 길이 보다 길다. 이러한 서술적 표현의 길이의 차이로 (144)의 예문들은 정문이고 (145)의 예문들은 비문이 된다.

#### 5.4.2 시각적 효과 작용의 정보성과 제약 조건

사실상 제안 기능의 TC에서 서술적 표현의 길이 제약은 구정보-신정보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량<sup>27)</sup>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제 3장에서 문장은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를 바탕으로 구정보는 최소의 정보량을 지니는 반면에 신정보는 최대의 정보량을 지니며 최고의 정점을 형성하여 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즉 문장은 정보량이 적은 것부터 정보량이 많은 것으로 이루어 진다<sup>28)</sup>. 그러므로

---

27) 여기서 말하는 정보량은 Newmeyer(1998)가 칭한 명칭으로 기능적 문장 인식(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과 관련된 현대 프라그 학파의 언어학 이론의 기본개념이며, Fibras(1964)은 의사소통 역학(communicative dynamism), Beaugrander(1981)은 정보성(informa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8) Bruce(1988)는 정보량에 따른 구정보-신정보의 연속체를 과도모형으로 나타냈다. 제3장 참조.



구정보와 신정보의 성질을 보았을 때 화자는 당연히 새로운 정보인 신정보를 강조하게 되고, 구정보-신정보의 정보구조를 고려했을 때 강조하고자 하는 신정보인 초점이 문미에 위치하게 되므로 신정보를 선행하는 구정보에 대한 묘사의 길이가 신정보의 서술적 표현의 길이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5.5 상기 기능

앞서 5장 2절과 5장 3절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TC의 상기 기능의 변형은 TC의 신정보 도입 기능과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변형과 상호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TC의 상기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상기 기능 TC 분류에서도 명사구에 대한 형태의 한정성이나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 뿐만 아니라, 담화가 발생하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과 같은 환경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 5.5.1 상기 기능

사실상 TC의 상기 기능은 한정명사구를 동반하는 TC가 쓰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화용론자들에 의해서 분리된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한정명사구가 사용된다는 것은 그 명사구가 가리키는 개체에 대해 청자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한정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는 청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 시키거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청자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언급했던 개체의 존재적 전제 내용이 청자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TC에 한정명사구의 쓰임이 허용된다. 박기태(1999) 또한 TC에 한정명사구 형태의 명사가 도입되더라도 청자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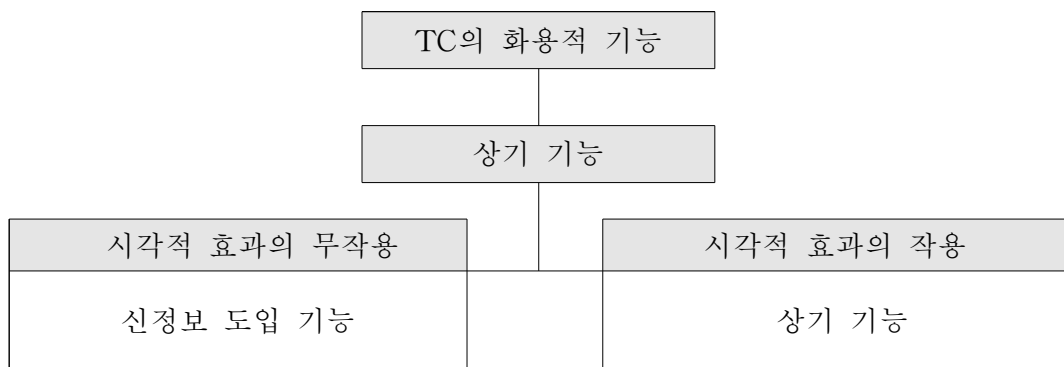
(146) I'm surprised she hasn't left him long before this- There are the children-remember?

위 (146)의 예문에서는 화자가 그녀에게 예전의 어느 시점까지는 ‘그녀에게도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TC의 존재동사 뒤에 있는 한정명사구 ‘the children’을 통해서 아이들의 존

재를 구현함으로써 대화 시점에서 이 사실이 순간적으로 의식 속에 떠올랐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한정성 명사구가 TC에 명제로 도입하더라도 정문으로 간주된다.

### 5.5.2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상기 기능 분류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설명에서는 구정보의 기준이 선행 언급의 여부에 두지 않고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개체에 대한 가시성에 있기 때문에 한정 명사구의 사용을 구정보로 처리하는 TC의 상기 기능 분류와 다른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1>은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반영한 분석에서의 상기 기능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나타낸다.



<그림 21> 상기 기능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상기 기능의 TC와 신정보 도입 기능 TC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여부에 따라 서로 상호적 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앞서 5장 2절 신정보 도입 기능과 5장 3절 존재(위치)강조 기능의 TC에서 확인하였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도입할 개체에 대해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상태에서는 비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던 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던 모두 TC의 신정보 도입 기능으로 분류되며, 반면에 시각적 효과의 작용상태에서는 비한정 명사구를 도입하던 한정 명사구를 동반하던 모두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TC의 상기 기능에 대한 분류도 명제에 대한 형태상의 한정성이나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만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같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 5.6 목록 제시 기능

Woisetschlager(1983)는 ‘목록 맥락’에서의 존재문을 예로 들어 ‘목록 맥락’의 존재문에서는 한정명사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단지 어떤 목록에 있는 항목(list)을 나열하는 것은 직시적(deictic)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자의 의식 속에 어떤 항목의 개체들을 ‘집어넣는(bring into)’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아래 (147)의 예문은 목록 제시 기능 TC의 예이다.

(147) Junior: Hey, Dad, what video did you rent?

Dad: I think you'll really like it. It's called Liar, Liar.

Junior: But, didn't we already see that?

Dad: Yeah, but I wanted to see it again. I guess after tonight we will have seen Liar, Liar, Liar, Liar.

Mom: We don't have to watch that. We've got other movies too.

Let's see, *there's Jakob the Liar, What Lies Beneath, and Secrets and Lies.*

(Ward & Birner, 1995)

다음은 Rando와 Napoli(1978)가 제시한 예문이다.

(148) Q: What's worth visiting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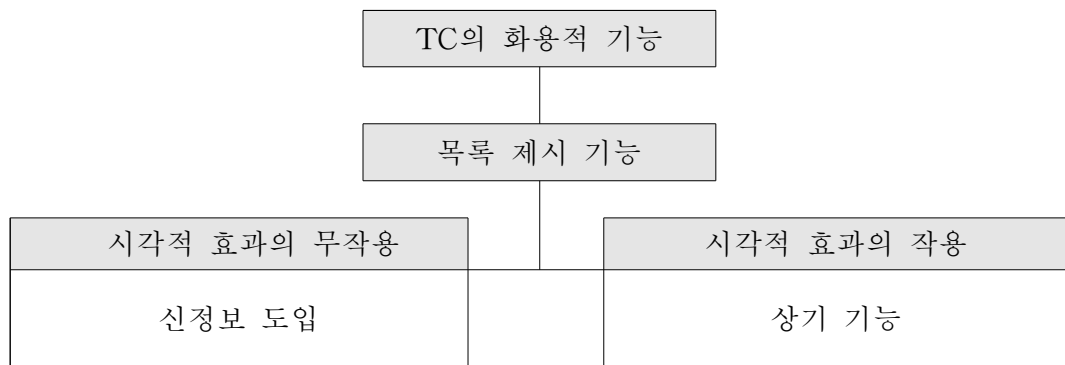
A: *There's the park, the very nice restaurant and the library.*

(Rando & Napoli, 1978)

위 (148)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예문이다. (148Q)는 ‘여기에 가볼만 한 곳이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148A)에서 한정명사구의 나열이 도입된 TC구문으로 대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정명사구를 취한다는 것은 청자에게도 이미 익숙한 정보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경

우에 TC는 담화 맥락상 기준에 주어진 정보를 재언급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신정보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형태상 한정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록이라는 신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TC를 구분하기 위해 Rando와 Napoli(1978) 그리고 Lakoff(1987)는 목록의 TC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희태(2001) 또한 TC에 한정명사구를 명제로 도입할 수 있는 경우로 목록을 제시하는 상황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설명은 모두 TC는 신정보 도입 기능을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목록의 TC도 항상 신정보 도입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만약 청자와 목록이 나열된 있는 서류를 함께 보고 있는 상태라면, 화자에 의해서 발화되지 않더라도 청자도 그 정보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발화되는 목록제시의 TC는 신정보의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제시된 목록을 청자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기 기능으로 분류된다.



<그림 22> 목록 제시 기능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

예를 들어, 음식점에 있는 메뉴판을 청자와 함께 보면서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읊으며 주문할 음식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자에게도 메뉴판에 있는 음식은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이때 메뉴판에 있는 목록을 언급하는 TC는 청자도 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상기 기능의 TC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 당시의 가시성을 기준으로 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을 적용한 분석으로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목록을 나타내는 TC의 화용적 기능이 신정보성을 지닐 수도 있고 구정보성을 지닐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형태상의 한정성 명사구와 비한정성 명사구를 기준으로 TC의 화용적 기능을 분류하기 보다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 5장에서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TC의 화용적 기능의 변형을 확인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에 의한 분석은 선행 발화여부를 기준으로 개체에 대한 정보성을 구분했던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개체에 대한 가시성을 기준으로 그것의 정보성을 구분한다. 그러므로 선행 발화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던 TC의 화용적 기능에도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와 상기기능의 TC의 상호적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제의 추성적 또는 물질적 성질이나 그 명제나 그것이 존재하는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의 의미, 시공간적 배경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의미 등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들에 TC에 도입될 개체의 정보성이 반영되기도 한다는 점을 다루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TC의 화용적 기능변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정성 명사구가 TC에 도입될 수 있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명사구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정성과 비한정성을 구분 짓고 비문 또는 정문인지 판단하기 보다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과 같은 기타 준언어적 요소를 반영하여 그 명사구가 지시하는 의미적 한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VI. 결론

본 논문은 TC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 여부뿐만 아니라 담화가 발생하는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두 요소는 어떤 개체에 대해 담화 당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개체에 대한 정보성에 영향을 미치며,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 때문에 발화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과 개체에 대한 개념은 구문 형태변형을 발생시키는 준언어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문 형태변형이란 통사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만 정문으로 사용되는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TC에서 명제와 문미 축소부사구가 문두이동 되는 현상,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현상, 본동사와 명제의 수일치가 여러 형태로 변형되는 현상 모두 일종의 TC의 형태변형으로 간주하였다.

우선 TC의 형태변형으로 통사적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TC의 두 가지 논쟁거리를 제시 하였다. 하나는 한정성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성 명사구가 명제로 도입되는 TC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도입되는 명제와 본동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지만 TC에서는 정문으로 간주되는 수 형태변형의 문제이다. TC의 수 형태변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것은 도입하는 명제의 수에 상관없이 축약형 There're의 사용은 어색한 표현이 되지만 There's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간주되는 현상과 형태상 같은 수를 취하는 명사구로 연결된 등위접속사를 명제로 취하는 TC에 대해 서로 다른 수일치를 보이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어떤 개체에 대해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있다는 것은 청자가 그 개체를 볼 수 있어 가시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따라 개체에 대한 정보량이 조절되어 구정보와 신정보로 구분되며, 때문에 발화에 의해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청자에게 이미 화제로 인식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을 제시하여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과



도입할 명제 또는 명제가 위치하는 시공간에 가시성이 있는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 그리고 명제와 시공간이 모두 가시적인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에서는 선행 발화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 한 어떤 개체에 대한 정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문 형태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는 선행 문장에서 발화되지 않았더라도 시각적 효과의 작용 대상이 되는 개체는 이미 구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화제가 되어 문두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완전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개체가 충분히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에 해당되므로 그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화제생략 현상이 나타나 명제만 간단히 언급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따른 구문 형태변형은 물결모양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였다.

또한 There + 단수동사 + 명사구 + (전치사구)를 TC의 기본구조로 간주하였다. 이에 TC를 (There's) 생략, There's나 There ar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러한 세 가지 유형과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높을수록 화제생략 현상인 (There's) 생략이나 There's선택으로 나타나고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이 낮아 정보량이 많을수록 There are가 선택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를 취하는 TC의 수에 대해서는 본동사에 근접하는 명사구의 수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 are를 취하는 수 형태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문에서 제시된 TC의 기본구조에 따르면 단수동사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동사 are를 취하는 것은 개체에 대한 화자의 수 개념이 반영되어 초래된 수 형태변형으로 명사구의 형태상의 수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의미적 수 개념이 반영된 것임을 적절한 예를 제시해 살펴보았다.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로는 명사구에 위치한 추상적 개체와 물질적 개체의 가시성의 차이, 개체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문미에 위치한 시공간적 배경의 추상적 성질과 물질적 성질에 따른 가시성의 차이를 들었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은 단어 자체의 의미적 특색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것의 예로 개체가 존재하는 배경에 쓰인 전치사의 의미, 개체가

존재하는 지명 자체의 의미적 특색, 지명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의 의미적 특색을 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의 쓰임은 TC에 도입된 개체에 대한 가시성 즉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을 나타낼 수 있음을 논의 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반영한 분석에 의하면 추상성을 지니는 개체는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대상으로 분류되며 신정보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그것의 형태상의 (비)한정성에 상관없이 TC의 명제로 도입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개체에 대한 추상적 개념도 다시 그것에 대한 개념 공유 상태와 개념 비공유 상태로 나눌 수 있다. 그 개체에 대한 개념이 이미 공유된 상태라면 청자에게 이미 구정보로 인식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상기 기능 TC의 명제로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념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정보로서 TC에 도입될 수 있다. 또한 형태상 한정성 명사구를 취하더라도 그것을 수식해주는 서술적 표현들에 대한 정보와 그것의 관련성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념 비공유 상태가 되며 형태적인 한정성에 상관없이 TC에 신정보로 도입될 수 있다.

TC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도 담화 발생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작용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명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TC의 화용적 기능 분석에서는 한정성 명사구를 취하는 TC는 상기 기능의 TC로, 비한정성 명사구를 취하는 TC는 신정보 도입 기능의 TC로 분류된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의 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된 분석에서는 담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개체에 대한 가시성과 그 당시의 개체에 대한 개념 공유를 기준으로 구정보와 신정보가 구분된다. 때문에 상기 기능과 신정보 도입 기능도 명사구의 형태상 (비)한정성에 상관없이 담화 발생 당시의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을 기준으로 분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을 설명하였다. 또한 TC의 화용적 기능 변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정명사구를 동반하는 TC가 정문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정성 명사구의 형태상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을 기준으로 그것이 도입된 TC를 비문과 정문을 논하기 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TC의 형태변형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선행 발화에서의 언급여부 뿐

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의 (무)작용 등급과 개체에 대한 개념과 같은 준언어적인 요소들의 작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그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졌을 때 비로소 TC가 비문 또는 정문인지 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있어 실제적인 원어민들의 사용이 확인될 수 있는 실험 자료가 추가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후행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관점이 고려된 TC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권희상. (2009). 정보구조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5.3: 399-419. 한밭대학교.
- 박분주. (2014). 영어학습자들의 주어-동사의 수일치 산출의 문장처리 과정. *영어영문학*, 19: 165-187.
- 박분주, 권영수. (2015). 영어학습자들의 주어-동사 수일치 견인현상에 대한 인지적 접근. *현대문법연구*, 86. 대구카톨릭대학교.
- 박기태. (1999). 한정성과 there-구문. *언어*. 20: 59-73.
- 박기태. (2015). There-존재구문의 의미·화용적 분석-특정성 효과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2: 135-152. 건양대학교.
- 박찬규. (2001). There as Non-expletive. *영어영문학연구*. 43-1, 263-292.
- 박희태. (2001). There 존재문의 명사구 특성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17.
- 박희태. (2002). *There* 존재문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신소나. (2017). 정보구조 인식과 사례연구-도치구문, There 존재구문,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박사학위논문.
- 안병길. (2005). There-구문의 담화·화용적 분석. *현대영어영문학*, 23. 3: 255-272.
- 양상백. (1998). 영어의 대조적 초점구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용준. (2016). 통사론·의미론의 이해. 제주. 온누리디앤피.
- 양용준. (2018). *Olle English Grammar*. 제주. 온누리디앤피.
- 오희정. (2007). *there-구문의 기능론적 분석*. 충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 논문.
- 이희정. (2012). 현대영어 도치구문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효진. (2009). 주제 진행에 따른 there 존재구문의 담화기능.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동국대학교.
- 최규정. (2005). There-구문 주어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49-4:

201-219.

- Abbot, B. (1993). A pragmatic account of the definiteness effect in existential sentences. *Journal of Pragmatics*, 19, 39-55.
- Allan, K. (1971). *A note on the source of There in existential sentences. Foundation of Language*. 7, 1-18.
- Algeo, J. (1988). British and American grammatical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1, 1-31.
- Baltin, M. R. (1998). A nonargument for small clauses as constituents. *Linguistic Inquiry*, 29, 153-515.
- Barwise, J. & Cooper R. (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Linguistics and Philosophy*, 4(2), 159-219.
- Basilico, D. (2003). *The topic of small clause. Linguistic Inquiry*, 34, 1-35.
- Belletti,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 1-35.
- Birner, B. (1994). *Information status and word order: An analysis of English inversion. Language*, 70, 233-259.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The Hague: Mouton.
- Bock, K. (1995). Producing agree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 35-43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Breivik, L. E. (1981). On the interpretation of existential there. *Language*, 57, 1-25.
- Birner, B. J. (1994). *Information status and word order: An analysis of English inversion, Language*, 70(2), 233-259.
- Bruce, N. J. (1988). *Communicative dynamism in expository academic English: Some strategies in teaching the pragmatics of writing.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Hong Kong: University of Hong Kong.
- Cardinaletti, Anna. (1997). Agreement and control in expletive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28, 521-533.

- Celce-Me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Chomsky, N. (1981). *Lecture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6). *Knowledge of language :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Freidin, R.(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417-.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orbett, G. (1979). The agreement hierarchy. *Journal of Linguistics*, 15, 203-224.
- \_\_\_\_\_. (1983). *Hierarchies, targets and controllers*. Beckenham: Croom Helm.
- Cohen, A. & Erteschik-Shir, N. (2002). Topic, focus, and the interpretation of bare plural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0, 125-165.
- Enç,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1), 1-25.
- Erteschik-Shir, N. (1997). *The dynamics of focus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u Hee, Kim. & Myung Kwan, Park. (2014).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70, 61-86
- Fibras, J. (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Travaux Linguistique de Prague*, 1, 267: 80.
- Fillmore, C. J. (1967). The grammar of hitting and breaking. In R. Jacobs & P. Rosebaum(Eds), *Reading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120-133). MA: Ginn.
- Finegan, E. (2004). *Language: Its structure and use*. Boston. Wadsworth.

- Foder, J. D & Sag, I. A. (1982). Referential and quantificational indefini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355-398.
- Givon, T. (1979). *Syntax and semantics 12: Discourse and syntax*. NY: Academic Press.
- Gundel, J. N., H., & Zacharski, R. (1989). Givenness, implicature and demonstrative expressions in English discourse, *CLS* 25, 81-103.
- Heidi L. (2007). *Conjunctions and grammatical agreemen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Inoue, I. (1991). On the genesis of there-construction, *English Linguistics*, 8, 34-51
- \_\_\_\_\_. (1993). On the two origins of existential sentences. *English Linguistics*, 10, 50-74
- Keenan, E. L. (1996). The semantics of determiners. In S. Lappin(ED.), *The handbook of com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 \_\_\_\_\_. (1987) A semantic definition of indefinite NP. In E. Reuland and A. ter Meulen, eds.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 286-317. MIT Press.
- Kim, Sungwook. (1999). *Number agreement in English existential there-sentences*. *InmunHakji*, 17.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Kuno, S. (1971). The position of locatives in existential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2, 333-378.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 (1996).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snik, H. (1992). *Case and expletives: Notes toward a prameteric account*. *Linguistic Inquiry*, 23, 381-405.
- \_\_\_\_\_.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615-633.

- Levin, B & Malka R. H. (1995). *Unaccusativity*. Cambridge, Mass: MIT Press.
- Levin, B. (1999). *Concord with collective nouns revised*. *ICAME Journal*, 23, 21-33.
- \_\_\_\_\_. (2001). *Agreement with collective nouns in English*, Lund, Sweden: Lund University.
- \_\_\_\_\_. (2006). *Collective nouns and language chang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0(2), 321-343.
- McNally, L. (1992). *An interpretation for the English existential constru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_\_\_\_\_. (1997). *A semantics for the English existential constructi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Milsark, G. (1974). *Existential sentence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_\_\_\_\_. (1977). Toward an Explanation of Certain Peculiarities of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Analysis*, 3, 1-29.
- Newmeyer, F. S. (1998). *Language form and language fun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Park, Chan-Kyu. (2005). There in discourse-based contex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1), 69-89.
- Poutsma, H. (1914).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art II: The parts of speech*, IA. Groningen: P. Noordhoff.
- Prince, E. (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In W. Mann & S. Thompson(Ed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analyses of a fundraising text*(295-3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_\_\_\_\_. (1973). *A concise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Janvanorich Inc.
- \_\_\_\_\_. (1985). *A comprehensive*



-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Quirk, R. (2016).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ndo, E., & Napoli, D. (1978). Definiteness in there sentences. *Language*, 54, 300-313.
-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53-94.
- \_\_\_\_\_. (1995). *Interface strategies*. *OTS Working Papers TL*, 95-002, Utrecht University.
- Ross, J.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afir, K. J. (1982). *Syntactic chains and the definiteness effec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afir, K. J. (1985). *Syntactic cha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fir, K. J. (1987). What explains the definiteness effect? In E. J. Reuland & A. G. B. EerMeulen(Eds.),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71-97). Cambridge, Mass.: MIT Press.
- Schreiber, P. A. (1978). There-insertion and number agreement. *Linguistic Inquiry*, 9: 318-325.
- Sobin, N. (1997). Agreement, default rules, and grammatical viruses. *Linguistic Inquiry*, 28: 318-343.
- Stowell, T. (1977).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aller, G. (1997). *Towards a proper characterization of English there*. Ms., MIT.

- Ward, G. & Biren, B. (1995). Definiteness and English existential. *Language* 71(4), 722-742.
- \_\_\_\_\_ . (1997). *Response to Abbot*. *Language*, 73, 109-112.
- \_\_\_\_\_ . (1998).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illian, E. (1984). *There-insertion*. *Linguistic Inquiry*, 15, 131-154.
- Woisetschlager. (1983). On the question of definiteness in an old man's Book. *Linguistic Inquiry*, 14(1), 137-154.
- Zandvoort, R. w. (1980).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Singapore: Singapore Offset Printing Co. Ltd.

Abstract

The Morphological Variants in  
*There*-Construction and the Analysis of  
Their Causes

Eunsuk, Oh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Prof. Yong-Joon Y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in the analysis of There Construction(TC), the action of visual impact at the time of discourse and the concept on objects should be considered. These two factors affect the informativeness on the object and make it recognized by the listener as Old Information even if it is not mentioned at the time of the discourse. Therefore, they can be quasi-verbal factors that can cause Morphological

Variants in TC.

In this study, away from the stereotype tha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informativeness are expressed only in the preceding utterances, the visual impact and the concept on the object are presented as representative quasi-verb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information structure. If there is visual impact on an object, the object is visible for the listener. Thus, even if not mentioned, it can be a topic. As a result, it can cause Morphological Variants such as omitting topics, word order transformation and word selection differences in TC.

Two arguments in TC that could not be resolved by syntactic explanation are presented as typical Morphological Variants in this paper. The first one is as follows. In TC, the nouns such as Definite NPs, Proper Nouns, Pronouns and Universal Quantifiers are not allowed as propositions. So Millsark(1977:4) presented the Definiteness Restriction. However, TCs which introduce Definite NP as a proposition are often used in pragmatical conversation. The other argument is Number Agreement in TC. In the theory of pragmatics as well as syntax, the reason why '*There're*' is accepted awkward but '*There's*' is naturally used as a contraction for '*There are*' still remains as a challenge. In addition, sentences that take plural verbs are sometimes used even if the number of noun phrase close to the main verb is singular. There is lack of explanation why those things happen. It is regrettable that the existing research on those matter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quasi-verbal factors at the time of the discourse.

The visual impact does not always provide the same amount of information. This is because visibility may var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the discourse occurs and the nature of the object being introduced. So, the Operational Degree of the Visual Impact is presented in this paper. As the factors that can cause Morphological Variants in TC, the differences in the visibility of abstract objects and material objects, the nature

of the spatio-temporal background which indicates the location of objects are mentioned. The informativeness from (non)visibility can be expressed in noun phrases that precede the prepositional phrase and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words representing the spatio-temporal background of the object.

As a result, an analysi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sual impact enables explanations of the Morphological Variants in TC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in the previous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preceding utterances. Thus, in the analysis of TC, the Operational Degree of Visual Impact and the concept on objects should be considered. The condition to discuss whether the TC is correct or incorrect is formed only when those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 감사의 글

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양용준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 까지 논문의 앞뒤를 살펴가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강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니신 이기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넓은 통찰력으로 신념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교수님의 지지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신 윤홍옥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 심리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고 인지언어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논문 심사에 응해주신 김종훈 교수님과 김동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교수님의 거침없는 평가 섬세하면서도 진심어린 조언은 논문 수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관심과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보내준 대학원 동료들에게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아들 현윤호 딸 현윤지에게, 엄마가 학업을 핑계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도 못했는데 사춘기를 잘 넘겨줘서 너무 기특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지해 준 남편 현재학과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두 언니 오은실 오은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전합니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받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양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2019년 6월 오은숙